

文化財技能의 脈

문화재기능의 맥 제 11 호



文化財技能의脈

문화재기능의 맥

제 11 호

文化財技能의 脈 제11호를 펴내면서

사단법인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회장 이재순

2012년도 정기총회를 계기로 열 한번 째 <맥>을 조심스럽게 선보입니다. 문화재 기능의 맥을 실질적으로 이어주는 소임을 다해 달라는 여러 회원님들의 여망을 나름 최대한 받들었지만, 펴내고 보니 여전히 아쉬운 점이 엿보입니다. 너그러운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개청 50주년을 맞이한 문화재청은 우리 협회와 함께 첫 기념사업으로 '문화재기능명장특별전' 열었습니다. 많은 호평을 받은 이 특별전을 계기로 우리 협회 위상 또한 많이 달라졌다고 자부합니다. 이 또한 여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이 실제로 시행되는 첫 해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작업도 조만간 마무리 되는 것처럼 행정환경 또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 소개하는 문화재청의 주요정책과 사업들도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故 홍정수 선생에 관한 글과 여러 회원들께서 주신 글들도 장인정신을 가다듬고 그 맥을 이어가는데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문화재청이 개청 50주년을 기념하고 또 다른 50년을 준비하듯이, 우리 협회도 앞날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그 그림에는 회원들의 희망사항과 정책당국과 우리사회가 협회에 바라는 요망사항도 잘 담겨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그려가기를 고대합니다. 끝으로, 좋은 원고를 주신 분들과 출간을 위해 애써 주신 윤창병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2012년 2월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발전방향

문화재위원
이상필

1. 들어가는 말

오늘 여러분과 나눌 대화의 주제는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첫째 문화재수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두 번째는 문화재수리기능의 보존에 대한 문제와 문화재수리 기록 및 자세,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기법 등의 발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가 어느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인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인간이 삶을 영위하고부터 어떤 형태든 人工造形物이 생성되었을 것이며, 그 造形物과 함께 주변의 자연환경이 생성된 당초의 모습 그대로 영구히 간직되어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류는 원시시대부터 현대까지 조형한 여러 형태의 건물, 탑, 각석, 성곽, 사원, 궁궐, 정원 등을 유형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등 원형보존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 왔다. 청동, 석조, 목조 등 조형물의 사용재료와 특성에 따라 보존연한의 차이는 있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수리, 즉 조형물을 원형대로 보존·유지하기 위한 보호·보존조치를 필연적으로 행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다. 고려시대 몽고의 침입,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근대에 한국전쟁 등으로 인멸된 문화재의 복원도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소요예산, 원형고증의 문제와 함께 문화재수리를 담당하는 분의 기예능의 수준과 역할도 복원에 중요한 판단요소로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2. 문화재수리의 약사(略史)

문화재수리의 역사를 “언제부터다”라고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인공 조형물에 대한 수리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음을 重修記나 重修上樑文, 重修上棟文, 墨書, 儀軌, 實錄 등의 기록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술적인 조사와 병행하면서 문화재수리가 시작된 것을 일제강점기로 보면 약 100년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日인들이 문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경주 石窟庵과 구례 華嚴寺 覺皇殿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유산이 日인들의 손에 의해 해체되었다. 많은 문화유산을 해체하면서 日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基準에서 조사하고 수리하면서 원형이 변경된 것도 있으며, 당시 수리한 내용을 기록한 보고서도 남기지 않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 일제강점기의 문화재관련 문헌자료에 의하면

- 1916.7.4 고적조사위원회규정 제정(조선총독부 훈령 제29호)

- 고적 및 유물조사 사무 심득 제정(조선총독부 내훈 제13호)

• 위원장 1명, 위원 25명, 간사 1명 총 27명 임명

• 문화재조사 및 수리에 주로 참여한 일본인

關野貞, 今西龍, 谷井濟一, 黑板勝美, 藤島亥治郎, 杉山信三, 石田茂作, 村田治郎 등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학술적 조사를 병행하면서 체계적으로 목조건물을 해체 수리한 것은 1956년 강진의 無爲寺 極樂殿으로 생각되며 1958년 修理報告書가 刊行되었다. 그 후부터 崇禮門(1961~1963), 법주사 捌相殿(1968), 봉정사 極樂殿(1969) 등이 해체수리되었고, 1970년대 무량사 極樂殿, 강진 無爲寺 極樂殿(1982~1983), 양산 신흥사 大光殿(1988), 안동 봉정사 大雄殿(2000) 등 수많은 문화재가 수리되고 보고서도 발간되었다.

그러나 수리보고서의 간행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몇몇 문화재에 한정된 것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록보존을 철저히 했느냐? 원형에 충실하게 후회없는 조사를 하고 수리를 했느냐? 에 대한 반성과 함께 그 실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리기록보존에 대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 1986년부터 전국에 수리된 문화재 전체를 모아 최초로 종합수리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문화재 복원사업은 불국사 복원사업이 당시 대통령 지시사업으로 1969. 11. 14 착수되어 1973. 7. 3 완공되었고 복원공사보고서도 발간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변조 훼손된 창경궁 복원을 위하여 1983. 7. 1 공개관람을 금지하고 동년말 창경원을 창경궁으로 환원하였으며, 3년간의 노력 끝에 복원되었다. 그 후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 사업으로 경복궁 복원이 시작되어 1995년 강녕전, 교태전 등 침전지역이 완료되었고, 2001. 10. 26 興禮門이 옛모습을 되찾고 준공행사를 했고, 2010. 8. 15 광화문 복원사업이 준공되었다. 현재는 제2차 경복궁 종합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소주방 등의 건물이 복원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승례문 복원사업, 수원화성 장안문 해체수리 등 문화재수리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승례문 복원사업에서는 유구조사와 함께 대장간을 설치하고 전통기법을 준수하여 인력으로 시공하는 모습을 볼 때 문화재수리분야도 참으로 많이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사회 각 분야에서도 문화재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민간부분에서도 문화재수리분야에 대한 조사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기록보존사업으로 실측조사보고서가 꾸준히 발간되고 있고, 의무적으로 수리보고서를 발간되도록 변화, 발전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매년 부실문화재수리에 관한 언론보도와 시민의 질책을 접하면서 문화재수리의 전문성 확보와 문화재수리의 기술과 기법의 계승전수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3. 문화재수리기능의 보존

문화재수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문화재수리 제도, 자재, 기술력이라고 생각된다. 문화재수리에 관한 제도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법규와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문화재수리표준품셈 등 많은 부분을 정비하여 발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문화재수리에 관계하시는 분이 합심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계속 발전시켜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

문화재수리에 많이 사용되는 목재, 석재, 마사토 등 천연자재의 확보와 안정적 공급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지만, 양질의 자재를 직접 사용하여 문화재를 수리하는 사람은 기능인 여러분이라 생각되며 기능의 발굴과 보존 또한 중요한 요소라 생각한다.

문화재수리에서 특별한 기술과 기법을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발굴하여 보존하고, 기법과 기능을 전수(傳受)받지 못하고 전수(傳授)하지 못한다면 기술과 기법이 단절되어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문화재수리현장에 직접 사용되는 기술과 기법은 수리기능인 여러분 외에 어느 누구도 대신해서 후대에 남겨 줄 수가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기법을 하나라도 더 많이 후대에 계승(繼承)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문화재수리현장에서 구부재 등을 통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옛기법을 전수(傳受) 받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고 재료의 가공, 드잡이, 미장 등 각 분야별 기술과 기법이 빠짐없이 후대에 전수(傳授)되어야 문화재가 원형대로 보존되고 문화재수리가 발전될 것이다.

※ 사례를 살펴본다면 : 체감(석계 폭, 오금 등), 가공(치목, 치석 등), 미장(목재 자귀질 등), 드잡이(가구라바줄 등) 등

문화재수리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제정되고 제도가 개선되고 좋은 재료가 확보되어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부재와 유구를 직접 수리하는 기술자와 기능자 및 관계관들의

문화재에 대한 열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쉽게 일하기 위하여 현대화된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부재를 가공한다면, 이것은 문화재수리의 의미가 퇴색될 뿐 아니라 수리의 意義가 없다. 기능 전수 등에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정신문화에도 문제가 된다.

흙자국을 찾고 면가공, 다듬기정도를 조사하고, 발굴조사나 건조물의 해체수리 과정에 나타나는 유구나 유물에서 흔적을 찾고, 옛문헌, 고서화 등에서 고증자료를 찾아 사람은 현대인이지만 옛도구를 사용하여 옛기법대로 수리해야만 한다. 전통기법과 단절하고 현대 기계장비를 사용하고, 전통재료가 아닌 현대재료를 사용하는 일은 스스로 경계하고 절대로 없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소멸되거나 없어진 옛도구를 찾아내고 제작하여 문화재수리현장에는 옛도구로 전통기법에 따라 수리업무가 정착되어야 한다.

현대 장비와 기계기구의 사용은 수리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은 줄일 수 있으나, 문화재수리 기술과 기능의 변질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전통성마저 허물어질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현대 기계기구의 사용은 우리 장인 정신문화와 원형유지의 원칙을 황폐화 시키는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4.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의 발전방향

올해는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가 창립(1988.8.18)된 지 24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회원수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해 왔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전과 수리를 책임지고 있는 법인으로 18개 직종 5천6백여명이 모인 단체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예산상의 문제? 회원의 참여문제? 기법의 발굴문제? 기능의 전수(傳受)와 전수(傳授) 문제? 사업의 확대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협회의 설립목적은 문화재애호사상 양양, 문화재보전 수리기능의 전승 계발, 회원의 자질향상 및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이며, 정기사업은 총회 및 임시총회 등 개최, 소식 정보지 「문화재기능의맥」 발간, 문화재 탐방, 신규 기능인 교육,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 등 이다.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이 오늘의 포럼목적으로 본다면 저는 제일 먼저 지식정보화라고 말하고 싶다. 현대는 지식정보화 시대라고도 말한다. 흔히 국운을 좌우하는 핵심 첨단 산업인 6T(IT, ET, NT, ST, CT, BT)가 앞으로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한다. 각 직능 사업단체를 보면 홈페이지 정보화가 잘 되어 있는 단체들은 이용자가 많아 활용이 잘되고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의 홈페이지는 어떠한가? 함께 고민해보고 개선발전시켜야 할 분야로 생각한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적정보와 새소식을 수록하고 회원과 대화할 때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확산될 것으로 믿는다. 또 일반 국민에게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가 하는 일들이 소상하게 알려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여러 기능인들이 땀 흘리며 문화재를 지킨다는 사실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예산의 문제 등으로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능의 발굴사실, 수리 체험기, 소규모 직종별 토론 등 활동현황, 회원의 동향 등을 수록하여 방문객이 많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사항이라 생각한다. 현대와 미래는 지식정보화시대로 어느 협회가 누가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기능능 콘텐츠 테크놀리지에 대한 과제도 검토해볼만 한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는 문화재수리 기능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정리하여 전수(傳授)하는 일과 수리현장에서 발견되는 옛 기법을 발굴정리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문화재수리기능인 여러분은 최고 양질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다만,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 생각한다. 수리현장에서만 활용하고 밖으로 확산시키지 않기 때문이고, 중요한 기능은 고유하게 지켜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지식을 판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

또 문화재수리현장에서 발견되는 옛기법을 모아서 잘 보존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간혹 수리현장에서 발견되는 가공기법이라든가 새로운 양식 등이 발견될 경우는 기능인 협회에서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 보존할 필요가 있다. 병행해서 전통공구 수집 보관 및 소멸 공구의 제작 보급에 관하여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것들이 모이면 훗날 좋은 자료가 되기도 하고 큰 재산이 될 것으로 믿는다. 지적재산의 판매만으로도 협회를 운영할 수 있는 큰 재산을 보유하게 되면 그야말로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가 한국문화재기능의 산실이 될 것이라 믿는다.

끝으로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의 사업확대에 대하여 제언하고 싶다.

협회가 계획하고 있는 「한국전통공예기능박물관(가칭)」설립과 「전통공구용어사전」 편찬 등의 사업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된다. 이와 병행해서 필자는 사업확대를 권하고 싶다. 오늘 포럼을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확대로 생각한다. 많은 경비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전통공구수집 전시」「분야별 심포지엄 개최」「기능과 관련된 구부재 수집 전시」 등의 사업도 검토 추진해 볼만한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문화재수리기능인의 전문분야별 소규모의 포럼을 조직하여 활동을 활성화하고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를 권하고 싶다. 토론회 등의 결과를 토대로 국내,

국제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업은 기능인의 자긍심을 고취할 뿐 아니라 지적향상 및 한중, 한일교류 등 국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회원의 협회 참여도 등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회원들이 화합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이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 믿는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흔히 로마를 예로 듭니다만,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5. 맺음 말

역사에 기록은 있으나 현장에는 실체가 없는 경우는 견학장이 될 수가 없다. 더 심하게 생각하면 문화재가 잘 보존되지 못하면 후대에 역사탐방이나 역사현장에 대한 견학장이 없어질 수 있다. 문화재수리의 복원은 역사의 실체를 찾아서 증명되게 하는 기술이다. 하나의 역사가 복원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부심과 긍지심을 더 북돋을 수 있는 길이 된다.

문화유산의 결정체인 문화재를 올바르게 수리하여 후세에 온전하게 물려주는 것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문헌으로 고증이 될 수 있고 지역 실정에도 맞는 당해 문화유산을 복원하여 역사의 실체를 증명하는 것은 역사의 복원인 동시에 자료의 복원이다. 이를 통하여 더 많이 훼손되었거나 소멸된 역사의 실체를 복원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후회없는 조사와 원형고증에 의한 수리가 현장중심으로 이루어져 지금이 과거가 되었을 때 자손들에게 몇몇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으로 세계일류 문화국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문화재 원형보존 및 정비사업 추진, 품질향상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에 감사를 드린다. 문화재수리기능인 여러분이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정성을 다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오늘의 우리가 자랑스러울 것이다.

“후대에 전할 기술과 기법을 하나라도 더 남겨야 한다.”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가 중심이 되어 하나라도 더 많은 기예능을 전파하고 전수(傳受)받고 전수(傳授)될 수 있게 한다면 큰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장인정신 가다듬기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장
박 왕 희

2011년 6월 30일(목) 오후 3시 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2차 계동포럼에는 문화재청 박왕희 수리기술과장을 발제자로 모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서울까지 올라온 박과장님은 “장인정신 가다듬기”라는 주제하에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미있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경복궁 근정전 공사사례와 사찰과 성곽등 문화재 부설시공 현장사진을 소개하면서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우리 문화재가 후대에까지 잘 보존전승 될 수 있도록 원칙과 법식을 준수하여 보수공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박과장님은 “전국에 산재해있는 문화재 보수현장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와 함께 우리 기능인들이 문화재 파수군의 주역이며, 여러분들이 있기에 소중한 우리 문화재들이 오늘날까지 온전하게 보전될 수 있었다.”는 감사 인사로 발제를 시작했고, “일에 대한 정성, 아주 작고 지극히 사소한 부분이라도 정성을 다해 일을 마무리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고 발제 주제처럼 장인정신을 가다듬는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날 박과장님은 사진을 통해 잘못된 시공사례들을 소개해줬기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듯 합니다만 간략히 정리합니다.

〈정성이 최우선〉

남한산성 성곽을 예로 들지만 부분적으로 정교하게 잘 쌓았고 돌 표면도 깔끔함 하지만 속을 너무 부실하게 하는 바람에 쌓은지 10년도 안돼서 무너져버리는 사례를 보았음

성곽뿐만 아니라 목공사, 모든 문화재공사는 정성이 최우선임

정성만 깃들면 모든게 다 잘 될 것임

〈가설뒤킵은 필요한 시설〉

공사안전과 부재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한 시설임

가설뒤킵을 짓는데 너무 인색하지 말고, 제대로 짓고 난 후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해야 할 것임

〈온전한 부재보관은 완벽시공의 기본〉

현장을 둘러보면 특히 부재관리에 소홀한 경우를 간혹 볼 수 있음
예를들면 비를 흠뻑 맞은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소임을 다 할 수 없음

〈물공사는 10월 이전에〉

언론으로부터 여러차례 지적을 받고 있던 남한산성 성곽을 둘러보았음
잘못된 고증, 부실한 공사, 잘못된 공사방법 등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음
물을 필요로 하는 공사는 기본적으로 10월 이전에 마무리하는게 원칙인데, 남한산성을
둘러보니 겨울에 일을 한 곳은 100% 하자가 발생했음
공기를 맞추기 위해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다보면 1~2년후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함

〈원형보전과 부재 재활용〉

○○왕릉의 곡장을 수리하면서, 기존 전돌을 다 버리고 전부를 새 전돌로 갈아 끼운
것을 보았음
세월이 가면 전돌도 풍화되고 깨지기 마련인데 전부 다 내다버리다 보니 역사까지
사라진 것 같아 너무 아쉬웠음
원형보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남은 유물도 가능한 재활용한다는 원칙은 매우 중요함

〈전통건축 나뭇의 격식을 지켜야〉

우리나라 전통건축물은 그 나뭇의 격식이 있음
특히 용이나 봉황문양은 궁궐중에서도 주요전각에만 쓰이지 다 들어가는건 아님
사찰에서도 대웅전과 같은 중심공간에서만 사용됨
A형 안내판이나, 사찰의 산신각, 화장실 지붕에 용과 봉황문양이 새겨진 막새를 끼운
사례도 간혹 볼 수 있음
막새를 막새로만 보지말고 막새문양도 격이 있기 때문에 격에 맞춰 선택해주기 바람

〈새 부재 교체 능사가 아님〉

일을 하다보면 목부재가 조금 썩고, 훼손되었다고 해서 신부재로 쉽게 갈아 끼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음
요즘은 좋은 육송 구하기도 어려우니 시간과 돈이 좀 들더라도 보존처리나 보강방안을
강구해나가면서 일을 해야 할 것임
정부재정도 이전보다는 많이 여유가 있으므로 문화재청도 이런 방향으로 수리공사를
해나갈 것임

〈파손된 부재도 잘 보관해야〉

파손된 석탑이나 부도를 보수할 때 다시 접합하기 어려운 경우도 더러 있음
현재로서는 접합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기에
파손된 부재도 잘 보관해주기 바람

〈꺼진불도 다시보자〉

승례문 방화범이 그전에 창경궁 문정전에도 불을 질렀음
다행히도 화재가 밤이 아닌 낮에 발생했기에 직원과 관람객들이 소화전으로 바로 불길을 잡았고 또 나중에 소방차가 와서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음
자세히 살펴보니 문정전 내부에도 불이 붙었기 때문에 소방차가 오지 않았다면 문정전도 완전히 불이 붙었을 것임

〈모두가 안전파수군〉

승례문 화재사건 이후로 화재나 누전, 안전문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나아진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음
그렇지만 스님이나 사찰관계자가 거주하는 공간은 생활편의부터 먼저 생각하다 보니 화재나 누전에 취약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음, 또 대개 이런 경우는 어지러운 전선 등으로 미관상 보기도 나쁨
광주지역 ○○사찰 준공행사 참석차 절에 들러 대웅전에 들어가 보니 불단에 켜놓은 촛불의 불기운이 바로 위 담집까지 닿고 있어 조금만 더 있으면 불이 날 지경이었음
문화재수리기능인 여러분은 사찰과 접촉이 잦기 때문에 화재나 전기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보이면 사찰측에 주의를 환기시켜 주기 바람.

〈가슴아픈 진봉사 능파교 사건〉

특히 석공사에 대해 뼈아픈 교훈이 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음
기존 홍예석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부재들이 파손되고, 원형이 훼손되어, 이 일에 관련한 분들도 곤욕을 치룬 가슴 아픈 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임

〈종묘 박석과 돌의 질감〉

종묘관리사무소를 짓고자 장비가 들어오면서 어도를 훼손한 문제인데, 문화재청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일어난 일임
말 그대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텐데, 모두가 무관심하게 일을 했던 것 같음. 이를 계기로 문화재청도 공사현장 관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음
이 일을 계기로 강화 석모도에서 매우 힘들게 박석을 채취해서 광화문에도 쓰고 승례문에도 쓰게 되었음, 박석을 채취할 수 있는 곳도 남한에서는 강화 석모도가 유일하고, 또 이미 좋은 돌을 많이 채취한 바람에 더 이상 좋은 돌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임
참고로 경복궁 근정전 앞 박석은 두께가 약 10cm내외 정도로 좋은 돌임. 한때 일을 쉽게 하기 위해 화강석을 갈아서 깔기도 했지만 질감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음
박석 뿐만 아니라 모든 석공사를 할 경우 돌이 주는 질감문제도 많은 신경을 써주기 바람

김태식 기자의 취재수첩

연합뉴스 김태식 기자입니다. 한 두어달전 협회 자문위원인 이성원 전 문화재청 차장으로부터 계동포럼 발제요청을 받을 때만 해도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에 대해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해서 송구스런 마음으로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니 생각했던 것 보다는 홈페이지가 잘 구축되었더군요. 온갖 정보가 다 올라와 있더군요. 제가 왜 생각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자리를 같이 해주신 여러 장인선생님들 대부분이 연배가 지긋하신데도 불구하고 나름 홈페이지에 관련자료를 많이 올려 놓았더군요. 그리고 협회에서 펴내는 잡지를 뭐라고 합니까? 예 <문화재기능의 맥>이죠. 사실 그 책은 오래전부터 짝옥 봐왔었습니다. 내용은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사실 발행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살펴보니 그 책이 새삼스러웠습니다. 이처럼 제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구나, 새삼 알게 돼서 기쁘기 그지 없었습니다.

연합뉴스

김 태 식 기자

홈페이지를 보니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에는 22개 직종에 5,800여 회원이 소속되어 있더군요. 실제 활동하는 분들은 이보다 적겠으나, 지난 88년에 설립되었으니 연륜도 꽤 되었고요. 지금은 석장(石匠)이신 이재순 회장님이 맡고 있지만 초기에는 대목장을 중심으로 협회를 이끌어왔던 것 같고, 그 외에도 단청장이나 번와장 등등 문화유산 담당기자로써 취재현장에서 간간히 보였던 분들 모두가 이 협회에 속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발제요청을 받고 보니 솔직히 제가 문화재 기능이라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감히 드릴 말씀이 없지만, 기자라는 시각으로, 외부인의 시각으로 볼 때,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가 이렇게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한 두어가지 있긴 합니다.

몇년전인가요? 광화문 복원보다 앞서 있었던 흥례문 복원공사 때인 것 같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신형준기자가 복원완공식 뒷풍경 기사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요지가 뭔가 하면 “이 경복궁 복원에 직접 헌신했던 여러 장인들은 기념식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 채 뒤로 밀려 있었다.” 그리고 “막걸리만 마시면서 분을 토했다.” 는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건데요, 이제 시대도 바뀐만큼 뒷전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쩔 매우 유감스런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징징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말해 우리 사회와 이 시대가 왜 날 알아주지 않는가 조바심 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데 왜 날 알아주지 않는가 하고 욕박지를 필요도 없고, 화를 낼 이유도 없습니다. 이는 언뜻 보면 모순된 것처럼 생각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픈 얘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되, 그렇다고 해서 왜 몰라주는가 하고 삿대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대가 그만큼 변했다는 겁니다.

제가 협회 입구에서 몇몇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들은 얘기로는 드잡이 홍정수 선생을 기리기 위해 여러분의 글도 받고, 또 오늘 오전에는 드잡이 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 간담회도 가졌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올봄 홍정수 선생이 타계했습니다. 그때 국립문화재연구소로부터 부음소식을 받고 기사를 썼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저명인사를 제외하곤 통상 부고기사는 간단하지요. 상주, 빈소, 발인일시 등등…… 홍정수 선생과는 개인적인 인연은 그다지 없었지만, 그래도 때로 주변에서 아니면 먼발치에서 홍선생님을 바라보았고, 해서 그분이 해 오신 일도 대강 알고 있었기에 별도기사를 내보냈는데, 그 때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일반인들이야 크게 관심가질 사안이 아니라 별로였지만, 문화부에 소속된 기자들은 “드잡이가 뭐냐?”라는 반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언론계 내부를 들여다보면, 조선일보 신형준 기자(지금은 퇴직했습니다만)나 동아일보 이광표 기사를 제외하곤 적어도 십년이상 문화재를 취재해 온 기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일반인들에게는 당연히 생소하겠지만 문화재를 담당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드잡이는 생소하다는 겁니다.

전임 회장 세분을 필두로 그런데요, 22개 직종중 언론으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는 대목장입니다. 사실 홍정수 선생은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승례문, 광화문, 백제역사재현단지과 같은 대규모 복원사업이 있었지만, 한 십년쯤 거슬러 올라가도 지금처럼 대목장이 각광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설계자가 따로 있고, 여러 분야의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 총설계자라 할 수 있는 대목장이 각광받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는 언론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저변에는 그런 요구와 수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 집을 누가 지었나?” 라고 찾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언론이란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기 하지만, 한편으론 우리사회의 요구를 따라가는 측면도 매우 강합니다.

제가 문화재 기사를 다룰 때는 먼저 언론의 시각으로 글을 쓴 다음, 문화재청의 행정기준으로 글을 쓰는데요, 어쩔 문화재는 “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벤트를 잘 해야 하는데요, 유홍준 전청장 얘길 빌리면 “문화재는 스토리텔링이다.” 라고 했거든요. 이야기를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승례문 복원현장은 특이한 점이 없지 않지요. 문화재청도 100일이니, 1주년, 2주년, 3주년 등등 계기마다 이벤트를 합니다. 청장 개인성향에 따라 이벤트도 좀 달라지긴 하지만요, 승례문 복원현장이 왜 중요한가 하면 대목장 이외에 여러 장인들이 있다는걸 비로소 알게 되고 또 각인시켜주고 있거든요. 석장, 두석장, 제와장,

단청장 등등…… 하나의 현장을 두고 이만큼 많은 장인들이 각광 받는 곳은 승례문이 유일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좀 외람스런 표현이지만 승례문 불 잘났다고도 할 수 있지요 복원을 위해서는 대목장은 물론 여러 장인들이 필요하다는 걸 각인시켜준 것은 호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화재 자체는 엄청난 비극이지만요.

다시 홍정수선생 얘기로 돌아가 그때 기사를 쓸 때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 그 분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된 국가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부고를 쓰려면 하다못해 약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약력조차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미륵사지 발굴현장단이 중심이 되어 문화유산상을 신청한 적이 있었고 또 상을 받았지요. 문화유산상 신청당시의 서류가 미륵사지 복원단에 있었고, 그 자료를 받아 기사를 썼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관해둔 자료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던 겁니다. 그 외에도 돌아가시기 전에 모업체가 선생에 대해 증언청취를 해둔게 있던데요, 분량이 한 서너시간 정도인데, 녹음한 그대로 남아있어 정리가 안되었더라고요. 정부든 민간이든 그런 기록정리작업들은 제때 제때 잘 마무리 해야 합니다.

수상자 선정을 위산 심사회의에도 여러번 참석한 적이 있어 문화유산상 얘길 좀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추천위원회와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어 별도로 분리를 하는 모양입니다만, 지난해까지 참석했을 때의 반응들을 전해드리면…… 수상자로 매년 한 두분의 장인들이 선정되는데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을 왜 또 문화유산상 수상자로 선정하는가입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반면 학술부문에서는 전현직 문화재위원들이 너무 많이 받았습시다. 이 분들에게 왜 또 상을 주냐 이런 얘기가 많았습시다. 제가 왜 이런 얘길 꺼낸 이유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시각도 곱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들은 문화재청이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자료정리를 합니다. 증언청취를 하고 작업 장면을 녹화해서 자료로 남기죠. 문제는 지정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 분들 그냥 돌아가시면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까지 국가가 기록정리를 좀 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화재청이나 연구소가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시간적인 여유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가 적어도 60세 이상 정도의 장인들을 대상으로 증언청취나 기록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를 만지고 다뤘다면 뭔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협회 차원에서 작업을 해주는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정리에 대해 좀 덧붙인다면, 사실 저도 홍정수 선생님과 매우 긴 인터뷰를 하고 싶었습니다. 문화재는 물론이고 그분의 인생역정까지 말입니다. 그런데요 문화재 현장에 오래 계신분들이라 그런지 당신 스스로 증언하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 말씀하시고, 저 자리 가서는 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스승과 제자관계도 너무 많이 따지는 것 같고, 서로 칭찬하는데도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 양반 실력이 형편없다.”부터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제관계에 대해서도 “그건 실제 제자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많이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애긴즉슨 누구의 제자가 아니면 어떤가요? 현장에서 어깨너머로 배웠던, 아님 혼자서 노력해서 배웠던 간에 중요한 건 지금이라고 봅니다. 꼭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좋은 제자가 나오는 건 아니죠. 저는 남들이 괜찮다고 하면 그게 진정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재를 함께 하는 동료에 대한 칭찬에 지금보다 덜 인색했으면 합니다. 인색하면 할수록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결과가 됩니다.

다음, 문화유산상 얘기를 하면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자에게 왜 상까지 주냐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사회가 협회를 바라다 볼 때, 좀 고리타분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통 쪽에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론 돈도 별만큼 벌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꼭 돈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요즘 사회 흐름이 “사회에 대한 책임” 애길 많이 합니다.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도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갖고 나서 주셔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요건을 갖춘 실업자에 대해 실업수당을 지급합니다. 물론 그 재원은 우리가 낸 세금이고요. 내가 왜 실직한 당신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을 시켜줘야 할 책임도 있는 겁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재벌이나 부자처럼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일정부분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협회도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장인들께서는 이미 사회적 기부나 기여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튀”를 좀 내면 좋겠습니다. 사실 튀를 내야 할 땐 튀를 내야 합니다. 그럼 과연 협회 차원에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으나, 우리 협회의 중심에 세분의 대목장이 있고, 그 분들이 상대적으로 나은 것 같으니, 이를테면 홍보나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차원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한옥을 짓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사회로부터 받은 게 뭐가 있는가라고 반문할 경우, 저도 할 말이 없지만, 여러 장인들께서 일을 해온 큰 현장의 발주처는 대개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회로부터 받은 게 없다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사회환원이 아니라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협회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홍보 애길 좀더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드잡이> 생소합니다. 하지만 생소하기 때문에 더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드잡이라는 상품이 우리 사회에서 소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22개 분야 모두 일반인들이 관심 있어 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관심 있어 합니다. 제가 볼 때 미래의 문화상품은 적어도 두 계층의 고객중 하나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는 학부모 중 어머니이고 또 하나는 어린이를 잡아야 합니다. 둘 다 잡으면 당연히 성공하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이 종사하는 모든 분야가 다들 인기가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고 볼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요샌 낫자루 팽이자루 버리는 것도 민속촌에나 가야 볼 수 있지 서울 시내에서 이런 걸 거의 볼 수 없어요. 저만 해도 어릴 때 풀무질 하는 것도 보았고, 제가 살았던 고향이 사하촌 보다 조금 아래였는데 60년대까지만 해도 사하촌에서는 닥으로 한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제가 볼 땐 22개 분야 모두 우리 사회로부터 인기를 끌어낼 수 있는 분야라고 봅니다. 너네들이 왜 우리를 몰라주느냐 그러지 말고, 그런 작업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업을 할려면 장소와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실정이죠.

개인적으로는 단청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박물관에 가면 석청이니 광물질 안료를 전시해 놓은 건 봤지만, 어떻게 채취하고 제련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도금공 애길 하면 그렇습니다. 금은 사실 여자들한테 큰 인기가 있지요. 금붙이를 가지고 이벤트도 했으면 합니다. 돌 깨는 건 당연하고요, 드잡이도 그래요. 현장을 볼 수 있는 곳이 문화재 해체나 복원현장 밖에 없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와 경주 사천왕사에서 심초석 들어낼 때나 볼 수 있었지 그 외는 볼 기회가 없었지요. 이런 걸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했으면 합니다.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은 어떤가요? 협회와 별 관련이 없나요? 이런 공간도 필요한 것 같은데……. 암튼 분명한 것은 22개 종목 모두가 인기가 좋을 거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문화재청도 좀 뛰어 넘었으면 합니다. 다들 문화재청을 통해서 뭔가를 할려고 하는데요, 청단위 기관인 문화재청의 조직위상도 그렇고 예산도 별로입니다. 올해 예산이 한 4,500억 정도지요. 여러분들에겐 힘센 기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힘도 별로 없습니다. 장인과 관계있는 타부처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고, 민간기업도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포스코 같은 기업은 장인과도 관련이 있고, 또 연매출도 수십조가 넘지 않습니까? 건교부도 최근들어 한옥 권장정책을 펼치는 모양입니다만, 저는 가장 보기 싫은 게 관공서 건물입니다. 전부 서양건축 흉내만 내고 있고, 요새는 콘크리트가 유리에 밀려나 유리건물을 세우고 있지요. 정말로 다른 데는 몰라도 관공서나 공공건물은 전통건축으로 지었으면 합니다. 물론 아주 크게 지어야 할 경우는 다르지만요. 다른나라를 보십시오. 박물관과 같은 공공건물들은 자기나라를 대표하는 건축양식으로 짓고 있지요. 우리는 고작 한다는 게 국립광주박물관인데요, 그것도 겉모양은 한옥이지만 실체는 콘크리트 건물이지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진짜 목조한옥건물 한번 지어보고 단청도 한번 해보아야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언론이 목소리를 내는 것 힘듭니다. 누군가 먼저 떠들어줘야지 언론이 따라잡니다. 언론이 앞장서서 선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깃발을 높이 들고 앞장서는 역할도 좀 해주십시오.

이상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짧게 요약해보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부심을 갖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협회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와 접촉하는 기회와
창구도 많이 마련해주시고요.

정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문화재청 반세기를 보내며

문화재청 대변인
신 용 환

존경하는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회원 여러분!
문화재청 대변인으로 부임하고 지면으로 처음 인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는 문화재청이 1961년 10월 2일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 행정을 펼친 지 50주년이 된 해였습니다. 50주년 기념사업을 시작하면서 대국민 캐치프레이즈 공모를 통해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를 선정하여, 국민과 함께 문화재청 5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다가올 문화재 행정 50년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문화재청 50주년을 회고해 보면 크게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61년 문화재관리국으로 출범한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왜곡된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리 역사와 문화의 실체를 뒷받침할 문화재 발굴 조사를 통해 선사시대, 역사시대의 뛰어난 문화역량과 정체성을 규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의 원형 복원을 통해 훼손된 문화재들이 제 모습을 찾아가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산업화 시기에는 ‘개발과 보존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문화재 보호에 위기를 맞은 적도 적지 않았으며, 불가피하게 일반인의 문화재 출입을 제한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진국 문턱에서 수준 높은 국민의식에 맞춰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궁궐을 활용한 숙박 체험이나 달빛 체험 행사 등도 운영되고 있는데, 문화재가 우리의 삶 속에 같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또한, 정보화, 세계화 등 환경의 급속한 변화, 디지털과 모바일 기술 발달에 따른 문화유산 향유 소비패턴 변화 등을 고려해 IT와 문화유산의 접목, 활용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모바일 서비스, 지리정보 활용, SNS 방재와 문화유산 보호 등을 중점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경복궁 경희루에서 재현·공연한 조선시대 전통공연인 ‘경희루 연향’

을 비롯하여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자긍심과 정체성을 부여하는 한편, 국민과 소통하는 문화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살아 숨쉬는 궁궐 만들기’ 같은 4대 궁과 종묘의 적극 활용, 헤리티지 채널의 쌍방향 서비스, 문화재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문화재를 향유하고 함께 가꾸어 나가는 정책들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귀 협회와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이 안고 있는 당면과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그 발전방향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아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소망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해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에 대하여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장
박 왕 희

1.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요

1-1 표준품셈 개정배경 및 목적

1-1-1 개정배경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은 1960년대에는 당시 설계자의 경험에 의한 직접산출방식에 의하거나 건설공사 표준품셈(당시 건설부 및 철도청)의 일부를 적용하여 사용하다가 1974년에 제정되었으며 1986년과 1998년에 부분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문화재수리의 다양성, 공사규모의 대형화, 기능자의 역량 및 사용 연장·장비의 변화와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2005)’의 전면개정에 따라 불합리한 부분 및 누락 공종·항목 등에 대한 수정·보완이 요구되었다.

1-1-2 개정목적

문화재수리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품셈기준이 필요하다. 표준품셈 개정은 현행 표준품셈 중 전통수리기법 및 현실에 맞지 않는 품셈의 조정은 물론 누락 공종·항목에 대한 품셈을 신설하여 전통수리기법(재료, 기구, 공법)에 의한 품셈기준을 작성하고, 최근 전면개정된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2005)’와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품셈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재의 전통수리기법 전승 및 시공 품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1-2 개정범위 및 방법

1-2-1 개정범위

건조물문화재를 정비대상으로 하며, 그 범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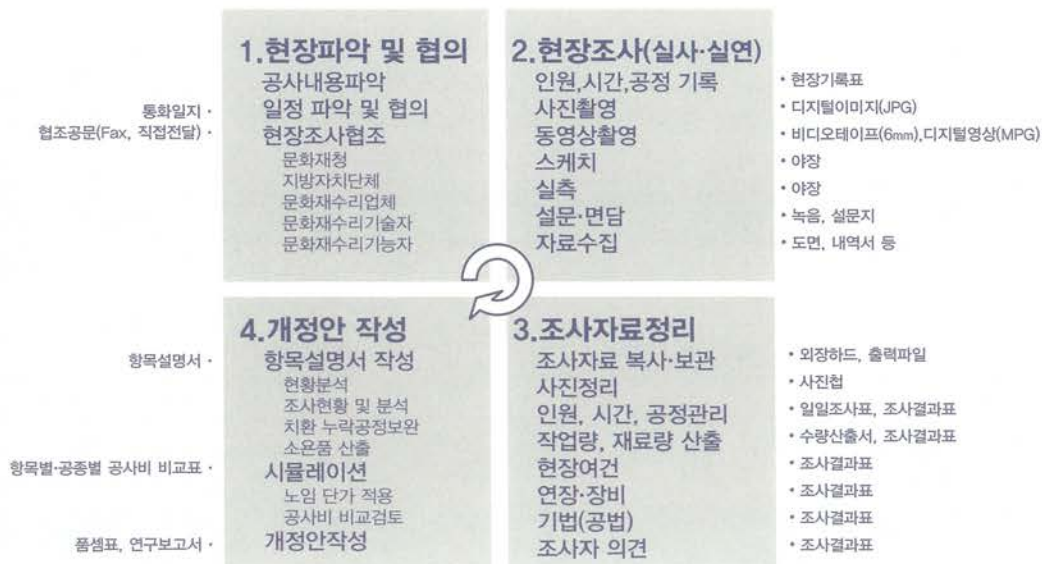
- ①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

- ② 기념물 중 사적지, 기념시설물
- ③ 민속자료 중 가옥
- ④ ①, ②, ③항에 준하는 건조물

1-2-2 개정 추진절차



1-2-3 개정과정



2.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현황

2-1 품셈의 정의

‘품셈’이란 인력 또는 공사장비를 이용하여 구성하고 있는 단위목적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노력과 재료량을 수량으로 표시한 것으로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품셈은 가장 대표적이고 타당성 있는 공정으로 경제성, 공평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품량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표준공법과 설계기준, 지역 및 기타 여건에 따른 작업 조건 등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노동력 등을 적절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2-2 품셈 연혁

1962	표준품셈 제정
1962~1968	각 부처 시행처별로 제정운용
1974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정
198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부분개정)
1998	문화재수리 표준품셈(내용일부변경)
2005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전면개정 중 : 18개 공종, 209개 항목)

☞ 1970년대 이전의 문화재수리공사는 소규모로 유경험자가 표준품셈을 경험에 의한 품량을 산출하여 적용하였으나, 대형화됨에 따라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당시의 품셈은 목공사, 기와공사, 단청공사는 일당의 인력투자를 기본으로 작성되었고, 가설공사, 미장공사, 석공사 등은 일반건설표준품셈을 준용하였다.

2-3 적용근거

구 분	내 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10.2.4 법률 제9999호]	제7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보급)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이나 자재의 규격·품질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수리등의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11.1.26 제22638호]	제6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7조 각호의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4 구성체계

2-4-1 공종 및 항목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은 11개 공종 12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4-2 공종분류체계 현황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의 전체적인 분류체계는 적용기준 및 주의사항, 공종별 품셈기준, 석재 가공면적 산출방법이 있다. 공종별 분류체계는 항목 종합표, 일반사항, 항목별 품셈표가 있고, 항목별 분류체계는 항목명, 단위기준, 품셈표, 주기, 해설이 있다.

목 차	공 종	항 목
품셈적용기준 및 주의사항	항목 종합표 (목차)	항목명
공종별 품셈기준		단위기준
가. 가설공사	일반사항 (품적용)	품셈표
~		주기
카. 잡공사	항목별 품셈표(연번)	해설
석재 가공면적 산출방법		

2-4-3 항목별 내용구성 현황

항목별 품목구성은 인력, 재료, 기구손료로 구분된다. 인력품은 단위당 소요되는 인원수(1일기준)로 다듬기, 비빔, 철거, 할증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재료품은 단위당 소요되는 재료량으로 소운반, 할증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기구손료는 단위당 소모되는 기구량으로 감가상각, 유지, 수리,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2-4-4 기능자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매년 1회 국가시험을 거쳐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직종은 한식목공, 한식석공, 화공, 드잡이공, 한식와공(번와/제작), 한식미장공, 철물공(제작), 조각공, 칠공, 도금공, 표구공, 조경공, 세척공, 보존과학공, 식물보호공, 실측설계사보, 박제표본 및 제작이 있다.

2-5 현황분석

1974년에 제정된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은 1986년과 1994년에 부분적으로 개정한

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현재의 수리 여건변화에 상응하지 못하고 품의 적정성, 공중 및 항목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표준품셈이 될 수 있도록 현행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개정품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표준품셈은 제정 당시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현재 문화재수리 공사 현장에서는 일부 공종 및 항목은 기계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계장비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품셈이 없기 때문에 인력기준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계장비 사용으로 인하여 문화재 원형변경 및 전통기법의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기계장비기준 표준품셈을 마련하여 사용범위를 한정하고 전통기법을 보존·계승하여야 한다.

표준품셈은 표준시방서의 내용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효과적으로 수리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데, 현행 표준품셈은 개정된 표준시방서와 연계해 볼 때 일부 공종 및 항목의 누락으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참고하거나 새로 작성하여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행 표준품셈을 개정된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공종 및 항목을 제·개정하여 문화재수리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표준품셈은 작성방식의 분류체계가 불규칙적이고 용어의 중복사용, 표준시방서와 상이한 용어사용 등으로 혼란과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분류체계의 통일과 표준시방서 사용 용어 및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체계적인 기술체계로 정비하여야 한다.

3.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계획

3-1 정비원칙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은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은 문화재수리 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정에 따르며,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와 연계하여 전통수리기법을 기준으로 하고, 재료, 기구, 공법은 전통기법을 되살리고 전승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품셈이 되도록 정비한다. 표준품셈 적용기준을 전통수리기법에 의한 적용 품과 기계장비 사용에 따른 적용 품으로 이원화하여 작성한다.

3-2 정비방향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은 전통재료, 기구, 공법에 맞는 품을 신설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품을 조정, 기계화 시공에 따른 품을 조정한다. 또한, 개정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 맞춰 누락된 공종 품을 신설하고 조정하여 기존품셈 및 일반건설표준품셈 등을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품을 산정한다.

3-3 공종 및 항목 개정안

공 종		당 초	개 정 안	
			조 정	신 설
계		122	96	113
제1장	적용기준	—	총괄적용기준	
제2장	가설공사	2	1	8
제3장	기초공사	3	3	6
제4장	목공사	24	19	18
제5장	지붕공사	21	18	4
제6장	전돌공사	2	1	5
제7장	미장공사	10	10	3
제8장	창호공사	—	—	9
제9장	온돌공사	—	1	6
제10장	수장공사	—	—	7
제11장	철물공사	—	—	3
제12장	석공사	25	15	10
제13장	석조물공사	—	—	6
제14장	성곽공사	—	4	8
제15장	단청공사	21	17	7
제16장	유구정비공사	—	—	2
제17장	기타공사	14	6	5
제18장	보존처리공사	—	1	6

※ 당초의 기타공사는 거푸집공사, 해체공사, 잡공사에 해당함.

4.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

4-1 개정결과

2011년 4월 11일 1차로 100개의 품셈항목을 개정·고시 하였고, 2012년 3월에 2차로 109개의 품셈항목을 개정·고시 예정이다.

4-2 적용지침

〈적용대상〉 국가 및 시도지정 문화재수리, 문화재 주변정비사업, 이하 문화재에 준하는 보수정비사업

〈적용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

〈시행일자〉 문화재청 고시 제2011-74호 / 관보 17484호 (2011. 4. 11)

〈개정내용〉 총괄적용기준을 포함한 13개 공종 100개 항목(금회 개정되지 않은 항목은 기존 품셈 적용)

〈적용원칙〉

- 지정문화재(보수, 복원)는 인력품, 주변정비사업은 기계품을 적용한다.
- 기타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계품과 인력품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 의장성, 상징성, 작품성이 있는 공종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처리한다.
- 문화재 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건축사항은 건설품셈을 적용한다.
- 현 품셈에 없는 사항은 별도 견적내지 품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노임단가 적용〉

- 정부 노임이 없는 직종의 기능공 및 조공은 특별인부, 조력공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직종 성격에 따라 유사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4-3 주요내용

4-3-1 공구손료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는 공구손료에 대하여는 이를 계상한다.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는 공구손료는 전기대패, 엔진톱, 그라인더 등 중장비에 속하지 않은 동력장치에 의해 구동되는 장비류의 손료를 말한다.

☞ 치목, 치석에 사용되는 기계장비품의 공구손료에는 전동공구의 손료가 포함되어 있다.

4-3-2 재료할증

재료의 할증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준 이내에서 적용한다.

〈목 재〉

재 료	할 증 륜(%)
원 목(原木)	25
제재목(製材木)	
원형재	10
각 재	10
판 재	20
세살재, 울거미	40

- ① 추녀, 포부재 등 정밀가공을 요하거나 특별한 구조형태를 만들고자 할 때는 소요부재의 특성을 검토하여 재료의 선택, 할증의 범위를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수한 모양일 때는 별도 실용수치로 할증을 가산할 수 있다.
- ② 원목(原木)은 베어 낸 그대로 아직 치목하지 않은 목재를 말한다.
- ③ 제재목(製材木)은 원목(原木)을 소요치수, 형태(4각, 8각, 16각 등)로 치목한 목재를 말한다.

☞ 원목의 할증률은 부피와 길이에 대한 할증률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 길이에 대한 할증률은 목재를 정척물(자)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것이다.

〈석 재〉

재 료	할 증 륜(%)
원석(마름돌용)	30
정형물	10
부정형물	30

☞ 원석을 사용하여 마름돌을 가공할 때는 원석(마름돌용)의 할증률, 거친돌을 사용하는 쌓기, 깔기 등)는 부정형물의 할증률을 적용한다.

〈기 타〉

재 료	할 증 륜(%)
한식기와	3
특수형태기와(아치 등)	30
전돌(방전, 전벽돌)	3
벽지, 반자지	10
장판지	10
창호지	10

[주] 한식기와는 기와파손률 5%를 별도 가산하며, 회침골이 있는 경우에는 1개소당 2%씩 별도 가산한다.

4-3-3 품할증

① 적용방법

기준이내로 적용하고 항목별 할증이 명시된 경우는 항목별 할증 우선 적용한다.

○ $W = \text{기본품} \times (1 + a_1 + a_2 + a_3 \cdots + a_n)$

－ W : 할증이 포함된 품

－ 기본품 : 각항 [주]란의 필요한 할증 · 감 요소가 감안된 품

－ $a_1 \sim a_n$: 품할증 요소

☞ 단, 동일 성격의 품할증 요소의 이중 적용은 불가한다.

② 소단위공사

다음의 기준 이내에서 인력품을 가산한다.

○ 건 축 물 : 바닥면적 10㎡ 이하 100%, 바닥면적 20㎡ 이하 50%

○ 단종공사(단일공종으로 이루어진 공사)

－ 목 공 사 : 바닥면적 10㎡ 이하 100%, 바닥면적 20㎡ 이하 50%

－ 지붕공사 : 바닥면적 10㎡ 이하 100%, 바닥면적 20㎡ 이하 50%

－ 전돌공사 : 깔기 25㎡ 이하 100%, 쌓기 한면 10㎡ 이하 100%

－ 석 공 사 : 10㎡ 이하 50%, 석재드잡이 2㎡ 이하 100%

☞ 목공사, 지붕공사 바닥면적 : 건조물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다.

③ 특수작업할증

다음의 기준 이내에서 인력품을 가산한다.

○ 작업의 중요성 또는 특별한 시방에 따라 특수한 기술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기술원(기술자, 기술사 및 기사, 특수자격자, 특수기능사, 안전관리자 등) 및 감독원이 투입될 경우에는 필요

○ 따라서 본 작업에 대하여 인력품을 5~10%까지 가산한다.

○ 고증, 관계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공사는 다음의 기준으로 인력품을 가산한다.

-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은 인력품의 10% 초과~20% 이내
- 1~5억원 미만은 인력품의 2% 초과~10% 이내
- 5억원 이상은 인력품의 2% 이내
- 특별한 사양 및 공법이 필요한 작업은 인력품을 5~10%까지 가산한다.

④ 목공사

<해 체>

- 기단높이 1.8m 이상일 때는 인력품의 10%를 가산한다.
- 2층(중층 포함)이상 건조물은 2층부터 층별로 인력품의 20%를 가산한다.
- 누각, 문루는 상층에 대해서 인력품의 20%씩 가산한다.
- 지정문화재 해체 시 실측조사연구를 겸할 경우 인력품의 50%를 가산한다.

<조 립>

- 기단높이 1.8m 이상일 때는 인력품의 10%를 가산한다.
- 2층(중층 포함)이상 건조물은 2층부터 층별로 인력품의 25%를 가산한다.
- 누각, 문루는 상층에 대해서 인력품의 25%를 가산한다.

<치 목>

- 고려말~조선초기(15세기)의 구조양식은 인력품을 20% 가산한다.
- 재사용 부재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치목품을 50% 가산한다.

⑤ 지붕공사

- 처마높이 3.6m 이상일 때는 인력품을 15% 가산하고, 6.0m 이상일 때는 30% 가산한다.(처마높이는 처마중앙(가장 낮은 부분)에서 지면까지이다.)
- 지붕구배 60% 이상일 때는 인력품을 30% 가산한다.

⑥ 기타공사

- 지대석설치는 별도로이며, 담장높이(담장지붕높이제외)가 지면에서 1.5m 초과 시 인력품을 30% 가산한다.

4-3-4 소운반

- 품에 포함된 것으로 규정된 소운반 거리는 20m 이내의 거리를 말한다.
- 소운반이 포함된 품에 있어서 소운반 거리가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이를 별도계상한다.
-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4-3-5 수량산출기준

- 수량의 계산은 지정소수위 이하 1위까지 구하고, 끝수는 4사5입한다.
- 예) 지정소수위 2위인 경우 : 1.453→1.45, 1.456→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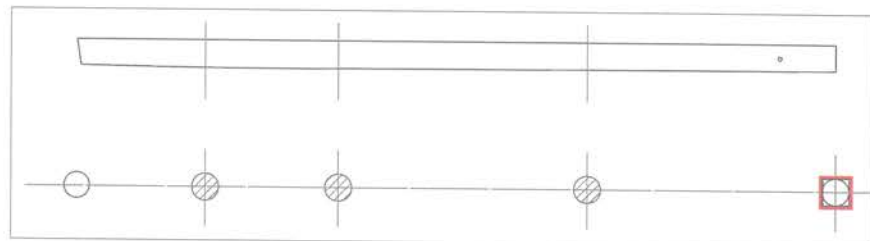
- 파내기, 흙파기, 파내기, 그레질, 후리기, 바데떼기, 모접기, 소매걸이, 새김질, 초각, 쇠시리 및 이에 준하는 것은 수량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설계마감치수로 산출한다.

① 가설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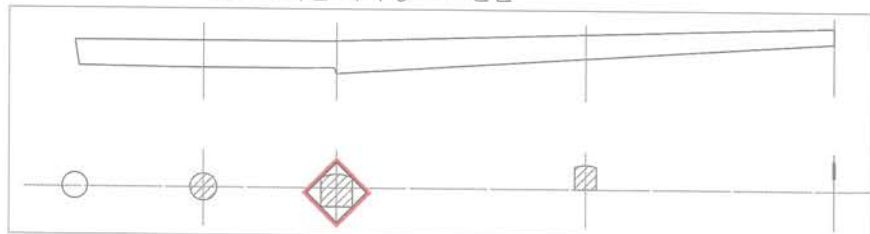
- 강관비계매기(미장·단청공사용)는 목공사용과 별도로 미장공사용, 단청공사용 강관비계매기 횡수를 추가로 산정한다.
 - 목공사, 미장공사, 단청공사가 모두 있으면 강관비계매기를 3회 산정한다.
 - 목공사용 강관비계매기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준용한다.
 - 미장공사용, 단청공사용 강관비계매기는 개정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 수량산출기준
 - 강관비계매기(미장단청공사용) : 지붕수평투영면적(추녀마루 막새끝 기준)의 90%
 - 수리용덧집(강관비계) : (비계둘레 × 비계높이) + 지붕면적 + 박공면적

② 목공사

- 마감치수(설계도면치수)를 기준으로 최대단면 × 길이(높이, 두께)로 산출한다.
 - 예) 민흘림 기둥 : 밑둥단면 × 길이
- 수량산출기준 도식
 - 평서까래 : 원목재적계산방법에 의해 끝마구리 지름을 한변으로 하는 사각형으로 산출
 $D2 \times \ell$ (D: 끝마구리 지름, ℓ : 길이)



- 선자서까래 : 원목재적계산방법에 의해 주심도리 위 최대단면의 대각선을 한변으로 하는 사각형으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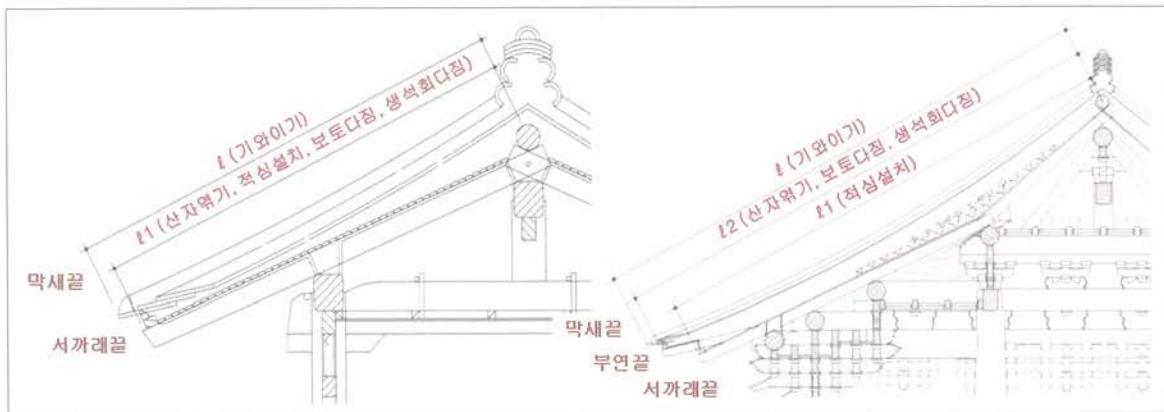


$D'2 \times \ell$ (D' : 주심도리 위 최대단면의 대각선, ℓ : 길이)

③ 지붕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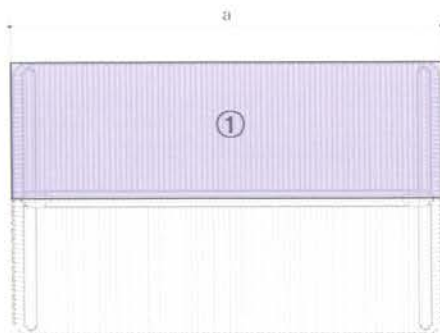
○ 수량산출기준 도식

구분	홀처마	겹처마	비고
산자엮기	ℓ 1기준 면적 $\times 100\%$	ℓ 2기준 면적 $\times 100\%$	m ² 당
적심설치	ℓ 1기준 면적 $\times 90\% \times$ 최대깊이 $\times 1/2$		m ³ 당
보토다짐	ℓ 1기준 면적 $\times 100\% \times$ 다짐두께	ℓ 2기준 면적 $\times 100\% \times$ 다짐두께	m ³ 당
생석회다짐(지붕)	ℓ 1기준 면적 $\times 100\%$	ℓ 2기준 면 $\times 100\% \times$ 다짐두께	m ³ 당
기와이끼	ℓ 기준 면적 $\times 100\%$		m ²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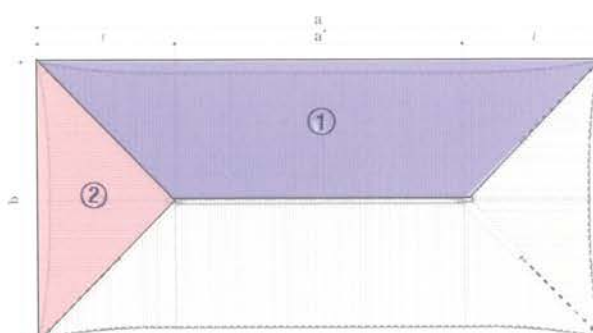


- ℓ : 적심도리 중심선과 막새기와끝까지의 직선거리
- $\ell 1$: 적심도리 중심선과 서까래끝까지의 직선거리
- $\ell 2$: 적심도리 중심선과 부연끝까지의 직선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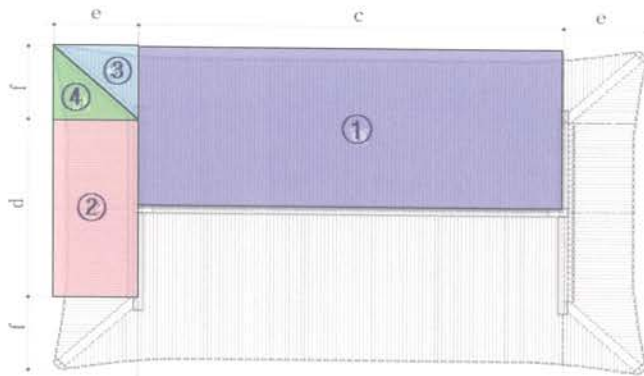
지붕형태별 수량산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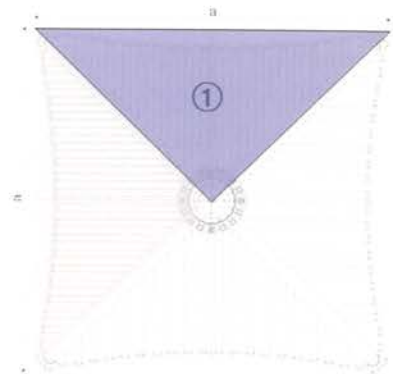
맞배지붕 : ① $\times$ 2



우진각지붕 : (① $\times$ 2) + (② $\times$ 2)



팔작지붕: $(① \times 2) + (② \times 2) + (③ \times 4) + (④ \times 4)$



사모지붕: $① \times 4$

④ 전돌공사

- 전돌벽해체, 전돌벽쌓기, 줄눈바름
- 벽체 한면 기준
- ☞ 양면일 경우: 벽체 한면 면적 $\times 2$

⑤ 미장공사

- 초벌바르기, 재벌바르기, 정벌바르기
- 벽체 한면 기준
- 양토바르기: 지붕면적(서까래끝)의 75%
- 당골바르기: 당골벽면적 $\times 2$ 면의 75%
- ☞ 양면일 경우: 벽체 한면 면적 $\times 2$

⑥ 창호공사

- 창호제작-세(띠)살, 격자살, 솟을살, 아자·완자살, 불발기창, 판문, 대문
- ☞ 목재량을 산출하여 항목별로 제시된 기준목재량과 대비하여 품을 비례증감할 수 있다.

⑦ 기타공사

- 막돌담, 거친돌담, 돌각담, 사괴석담쌓기
- 담장 한면 기준
- 판축담, 토담쌓기
- 담장 체적 기준
- 지대석, 담장지붕 부분은 수량산출에서 제외한다.
- ☞ 양면일 경우: 담장 한면 면적 $\times 2$

4-3-6 편수산정

〈한식목공편수〉

- 치목 2㎡당 1인
- 조립 5㎡당 1인
- 해체 6.6㎡당 1인(철거 시는 적용하지 않음)

〈한식와공편수〉

- 기와이기 지붕면적 30㎡당 1인
- 기와해체 지붕면적 50㎡당 1인(철거 시는 적용하지 않음)

〈한식미장공편수〉

- 전돌벽해체 50㎡당 1인
- 전돌벽쌓기 10㎡당 1인
- 전돌깔기 25㎡당 1인
- 벽체해체 한면 80㎡당 1인
- 벽바르기 한면 40㎡당 1인
- 양토, 당골 벽바르기 25㎡당 1인
- 판축담, 토담 3㎡당 1인

〈한식석공편수〉

- 치석 흑두기 20㎡당 1인
- 거친정다듬 6㎡당 1인
- 고운정다듬 3㎡당 1인
- 도드락다듬 2㎡당 1인
- 잔다듬 1㎡당 1인
- 석조물조립 3㎡당 1인
- 석조물해체 2.5㎡당 1인

〈한식드잡이공편수〉

- 석재드잡이 2㎡당 1인

4-3-7 기본미장공사품

○미장 벽면적 20㎡(외역기 포함)를 기본미장공사 품으로 적용한다.

(벽면적 20㎡ 이하)

한식미장공편수		인	5	
한식미장공		인	18	
한식미장공조공	인력품의 3%	인	6	비고
보통인부		인	4	
공구손료		식	1	

- 벽면적 5㎡ 이하 기본미장공사품의 60% 적용
- 벽면적 5㎡ 초과~10㎡ 이하 기본미장공사품의 80% 적용
- 양토, 당골 벽바르기 25㎡ 이하 기본미장공사품 적용
- 벽면적 20㎡ 초과 기본미장공사품 초과분 계상
- ☞ 기본미장공사품은 미장 벽면적 20㎡까지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의 품을 적용한다.
- ☞ 기본미장공사품은 외역기→초벌바르기→재벌바르기→정벌바르기(회벽/재사벽/양토회벽/양토재사벽)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4-3-8 기 타

- 목공사 치목시 재료는 원목(原木), 제재목(製材木)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 항목 [주]에 사용재료가 명시되어 있다.
- ☞ 제재목(製材木) 치목품을 원목(元木)을 사용하여 치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목(製材木) 치목품에 '4-1 4각치목(원목→4각), 4-2 8각치목(4각→8각), 4-3 16각치목(8각→16각)'품을 가산한다.
- 목공사 조립을 위한 철물설치품을 포함한다.
- 철물제작은 별도 계상한다.
- 창호설치를 위한 철물설치품을 포함한다.
- 철물제작은 별도 계상한다.
- 담장공사 시 지대석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17-0 적용기준 지대석설치'품을 가산한다.
- 생석회 피우기를 할 경우 생석회 100kg당 보통인부 0.09인을 가산한다.
- 기계장비 운반시 인력운반공품을 감산하고 기계장비품을 계상한다.
- 비계매기가 필요할 경우 별도계상한다.

4-4 기대효과

현행 품셈은 현재의 수리여건변화에 상응하지 못하고 품의 적정성, 공종 및 항목 누락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개정품셈은 공종 및 항목 신설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또한, 문화재 수리시 전통기법과 기계장비 품으로 이원화하여 해당 문화재는 전통기법품을 적용하고 문화재 주변건물은 기계장비품을 적용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되었다. 품셈개정과 함께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직종도 신설하여 전통기법 전승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금번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으로 문화재 수리공사 품질 향상 및 전통기법 전승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인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복궁 복원정비는 이렇게

1. 경복궁의 변천과정

가. 조선의 법궁 경복궁

1392년(태조 1)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지인 한양으로 1394년(태조 3) 수도를 천도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도읍 한성을 건설하고 궁궐을 짓는 일을 담당하기 위하여 1394년(태조 3) 9월1일 「新都宮闕造成都監」이라는 임시기구를 두었으며 이 기구를 중심으로 1395년 9월에 궁궐을 완성하였다. 이 때 지어진 경복궁의 규모는 390여 칸이었다¹⁾. 창건 당시의 경복궁은 제반시설을 고루 갖춘 완성된 궁궐은 아니었다. 때문에 이후 궁을 감싸는 외곽의 궁성을 축조하고, 주요건물을 건립하여 점차 법궁으로 완성해 나갔다.

경복궁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으로 모든 건물이 소실되었으나 폐허로 남은 채 270여년 동안 중건하지 못하다 1865년(고종 2)에 「영건도감」을 설치하고 중건을 시작하여 1868년(고종 5)에 완료하게 되었다.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장
최이태

1) 太祖實錄(태조4년(1395)
9월 29일)

나. 일제강점기의 경복궁



북궐도(혜촌 김학수, 1975년)



북궐도형(서울대 소장)

경복궁은 일제강점기에 철저히 파괴되고 말았다. 일본인에 의해 많은 전각이 경매로 매각되고 훼손되었다. 1915년 「시정5년기념공진회」를 개최하면서 남아 있던 주요 전각들은 공진회 행사용도로 사용되고, 경복궁 내에는 콘크리트 및 석조 시설물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시정5년기념공진회 이후에도 경복궁 내에서는 조선부업품공진회(1923년), 조선가금공진회(1925년), 조선박람회(1926년), 시정 20년기념 조선박람회(1929년), 조선산업박람회(1935년) 등 많은 박람회 행사를 열면서 훼손을 더해갔다. 특히 민족말살정책을 위해 1926년에 조선총독부 청사를 건립하면서 광화문은 1927년 9월 건춘문 북쪽으로 이진되고 남쪽 궁장도 함께 철거되고 말았다.



박람회장 입구로 사용된 광화문(구 조선총독부 건물 실측 및 철거 보고서)

순종 10년 11월에는 창덕궁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 화재로 대조전, 회정당, 내전, 흥복헌 등 많은 전각들이 소실됨에 따라 그 소실된 건물을 복원하기 위해 경복궁 내에 있는 교태전, 강녕전, 흥복전, 행각 등 전각들을 헐어 창덕궁으로 이진하였다.

다. 광복이후의 경복궁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는데 이때 건춘문 북쪽으로 이진된 광화문 문루가 폭격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후 1967년 광화문을 복원하기로 결정하고 1968년에 원래 위치보다 북쪽으로 11.2m, 동측으로 13.5m, 경복궁 중심축에서 3.75° 반시계방향으로 틀어진 위치에 조선총독부를 축으로 목조구조 대신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립하였다. 그리고 1965년에는 수도경비사령부 30경비대대가 경복궁 서북쪽의 태원전 권역에 주둔하였고, 이 권역이 복원되기 전까지 일반인들의 접근도 오랫동안 금지되었다.

2. 경복궁 복원정비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정궁으로 창건된 이후 여러차례의 화재로 많은 전각이 소실되기도 했지만 곧 복구되어 제 모습을 찾았었다. 그러나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으로 모든 전각들이 소실된 이후 수차에 걸쳐 복구계획을 세웠으나 주변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착수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고종 2년(1865)에 흥선대원군의 결단으로 중건을 시작하여 고종 5년(1868)에 완공되었다. 그러나 한일합방 이후 일본인에 의해 경복궁을 비롯한 5대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경복궁에는 조선총독부가 들어서면서 일제강점의 상징적인 위치로 바뀌었다. 이처럼 경복궁은 일제의 우리 역사와 문화 말살정책 때문에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이에 문화재청은 경복궁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을 복원하여 민족 자존심을 회복하고,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는 교육의 현장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계인들이 찾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원정비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가. 경복궁 제 1차 복원정비 추진경과

조선왕조의 법궁인 경복궁 1차 복원사업의 1단계 복원구간은 침전권역²⁾이었다. 복원 대상지역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1990년 5월부터 1992년 7월까지 3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발굴조사의 결과물과 복궤도, 경복궁전도, 궁궐지, 일제강점기 때 설계한 도면, 조선고적도보에 실린 사진, 기타 고증자료 등을

2) 왕의 정침(正寢) 강녕전, 왕비의 정침(正寢) 교태전 등이 있는 곳이다.



경복궁 복원정비 전 조감도(1990년 기준)

바탕으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1990년 1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강녕전, 교태전, 연생전, 경성전, 연길당, 응지당, 흙경각, 함원전, 행각 등 12동을 복원하였다.

3) 세자가 거처하면서 왕위에 오르기 전에 공부하던 곳으로 궁궐 내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2단계 복원은 동궁권역³⁾이었다. 발굴조사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맡았으며 1995년 12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자선당, 비현각, 행각, 삼비문, 승덕문, 협문 등 18동을 복원하였다.

3단계 복원은 흥례문 권역이었다. 흥례문 권역은 일제에 의해 많은 유구가 파괴된 곳으로 조선총독부청사 건물이 1926년도에 건립되면서 기초유구가 대부분 멸실되어 없어졌다. 발굴당시 어구 및 담장지 기초 유구 정도만 확인 할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청사는 1995년 8월 15일부터 1997년 2월 28일까지 완전 철거하였다. 흥례문 권역 복원공사는 1997년 6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흥례문, 유화문, 기별청, 행각 등 6동을 복원하였다.

4) 국장을 당했을 때 시신을 모신 빈전(殯殿)으로 사용하던 곳이다. 특히 1895년 명성황후가 일본인 자객에 시해되고 빈전으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4단계 복원은 태원전 권역⁴⁾이었다. 이곳에는 1965년에 수도경비사령부 30경비대대가 주둔하면서 군사지역으로 통제되던 곳으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었다. 태원전 권역은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1998년 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2001년 5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태원전, 영사재, 공목재, 숙문당, 세답방, 행각, 건숙문, 광림문, 사주문 등 25동을 복원하였다.

5단계 복원은 건청궁권역, 함화당 및 집경당권역, 광화문 권역 등이었다. 건청궁 권역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등이 설치된 곳이다. 1895년 명성황후가 이곳에서 일본인 자객에 시해됐던 곳으로 2004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곤녕합, 복수당, 장안당, 행각, 사주문, 협문 등 18동을 복원하였다.

함화당 및 집경당 권역은 2006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행각, 협문, 전축협문 등 11동을 복원하였다. 광화문 권역은 경복궁의 정문으로서 2006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광화문, 용성문, 협생문, 영군직소, 수문장청, 협문 등 7동을 복원하였다. 광화문은 1968년에 원래 위치보다 북쪽으로 11.2m, 동측으로 13.5m, 경복궁 중심축에서 3.75° 반시계방향으로 틀어진 위치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립되었던 것을 당초의 위치에 육축과 문루 목조건물로 복원하였다.

경복궁 제1차 복원정비 추진경과

연 번	문화재명	예산	복원기간	비 고
1단계	침전권역	165억원	'90. 1월 ~ '95.12월	- 복원: 강녕전, 교태전, 연생전, 경성전, 연길당, 응지당, 흙경각, 함원전, 양의문, 주위행각 등 12동 - 보수: 근정전 행각 등 4동

2단계	동궁권역	126억원	'95.12.29 ~ '99.12.24	- 복원: 자선당, 비현각, 자선당 및 비현각 행각, 측간, 삼비문, 승덕문, 협문, 자경전 행각 등 18동 - 보수: 건춘문, 자경전, 자경전 행각 등
3단계	홍례문권역	233억원	'97. 6.12 ~ '01.10.31	- 복원: 홍례문, 유화문, 기별청, 동·서·남행각 등 6동 복원, 영계교 복원 - 보수: 근정문, 근정전 행각 등 단청
4단계	태원전권역	290억원	'01. 5. 8 ~ '05.12.28	- 복원: 태원전, 영사재, 공목재, 건숙문, 숙문당, 경안문 및 복도, 세답방(동·서·북측), 서측세답방 외행각, 태원전 남·동행각, 광림문, 사주문(4동), 협문(3동) 등 25동
5단계	전청궁권역	98억원	'04. 6.16 ~ '06.12.17	- 복원: 전청궁 동·남행각, 곤녕합, 곤녕합 동·남·북행각, 복수당, 복수당 서행각, 장안당, 장안당 동·북행각, 장안당 복도각, 사주문 및 협문 18 동 등
	합화당 및 집경당권역	64.3억원	'06.10.13 ~ '09.12.22	- 복원: 합화당(서·남외·남행각), 집경당(동·남·북행각), 협문(3동), 전축협문(2동) 등 11동 - 보수: 합화당, 집경당 등 2동
	광화문권역	246억원	'06.10.30 ~ '11. 5.30	- 복원: 광화문 육측(72.6평), 문루(하층 52.7평, 상층 33.5평), 용성문, 협생문, 영군직소, 동·서 수문장청, 협문 등 7동 / 공장 330m, 어도 100m, 우수암거 등



경복궁 1차 복원정비 경과 배치도

범례	
구분	시설명
■	1차 복원 정비구역
■	기존건물
■	복원건물
■	파괴예정건물



경복궁 1차 복원정비 조감도

나. 경복궁 제 2차 복원정비 추진계획

경복궁 복원정비는 1990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까지 1차 복원사업을 마무리하였는데, 1,571억원의 예산으로 광화문 등 전각 89동을 복원하여 고종황제 당시 약 25%의 전각을 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어구 및 궁장 복원, 지형복구도 병행하였다. 아울러 문화재청에서는 2011년부터 2030년까지 5,400억원 예산을 투입, 6단계 권역으로 나누어 2차 복원사업을 착수하였다.

1단계 사업은 궁중생활권역으로, 2011년에 시작하여 2016년까지 소주방 영역, 흥복전 영역, 자미당·인지당 영역 등 56동의 전각을 복원하게 된다. 먼저 첫 번째 복원구간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방영되었던 대장금의 주무대인 소주방 영역을 복원하게 된다. 소주방영역을 복원하기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04년 4월부터 2005년 5월까지 2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건 축사사무소에서 2006년도에 복원 설계도를 작성하고 2011년도에 부분 보완하여 복원사업을 시작하였다. 경복궁 2차복원사업의 1단계 사업인 소주방권역 복원 기 공행사를 2011년 10월 5일에 거행하면서 온 국민에 복원의 의미를 알렸다. 소주방 영역은 궐내의 음식을 장만하던 곳으로 내소주방⁵⁾, 외소주방(난지당)⁶⁾, 생물방(복희당)⁷⁾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5) 임금의 수라를 장만하던 곳

6) 어전을 모셔둔 진전(眞殿)의 차례, 진연(進宴), 진찬(進膳), 회작(會酌), 탄신(筵宴) 등에 쓰이는 음식을 만드는 곳

7) 궐내의 다과를 장만하던 곳

〈소주방권역 복원공사 개요〉

1) 시 공 사 : (주)진강건설 대표 김광식 / (유)대창 대표 기호성

2) 공사금액 : 13,287,914천원

※ 관급자재 476,380천원, 전기 40,000천원, 통신 33,312천원, 소방 49,291 별도 발주예정

3) 공사기간 : 2011.09.01~2014.08.30(총 1,095일)

4) 공사내용 : 건물 17동 복원(369.51평)

건물명	세 부 사 항
내소주방 (6동/109.47평)	본당(32.84평), 행각(동·서·남/45.61평), 남외행각(27.37), 고간(3.65평)
외소주방 (6동/139.62평)	난지당(40.14평), 행각(동·서·남/41.96평), 외행각(동·남/57.52평)
생물방 (5동/120.42평)	복희당(40.14평), 행각(동·서·남/38.31평), 동외행각(41.97평)
기 타	협문(11개소), 담장(138.5m), 우물(1개소) 등



소주방 영역 발굴 전경



소주방 영역 복원 조감도



소주방 복원 기공행사(2011. 10. 5)

2단계 사업은 궁중통치 권역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영추문 영역, 수정전 영역, 궐내각사 영역 등 66동의 전각을 복원하게 된다. 이 권역에는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 등 조립식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또한 승례문 복원공사를 위한 목재 치목장 및 목재 보관소 등이 있다.

3단계 사업은 제왕교육 권역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궁영역, 건춘문 영역 등 21동의 주요 전각을 복원하게 된다. 이곳은 경복궁관리사무소와 부속시설물이 위치하고 있다.

4단계 사업은 궁중의례 권역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문경전 및 회안전 영역, 보현당 영역, 신무문 영역 등 42동의 주요 전각을 복원하게 된다. 변형되어 있는 향원정의 취향교도 원위치를 찾아 복원할 예정이다.

5단계 사업은 궁중의례 권역으로, 선원전 영역, 만경전 및 만화당 영역, 상궁 및 나인처소 영역 등 45동의 주요 전각을 복원하게 된다. 이 권역의 선원전터에는 1972년에 건립한 국립민속박물관이 위치해 있는데, 이 박물관의 철거 및 이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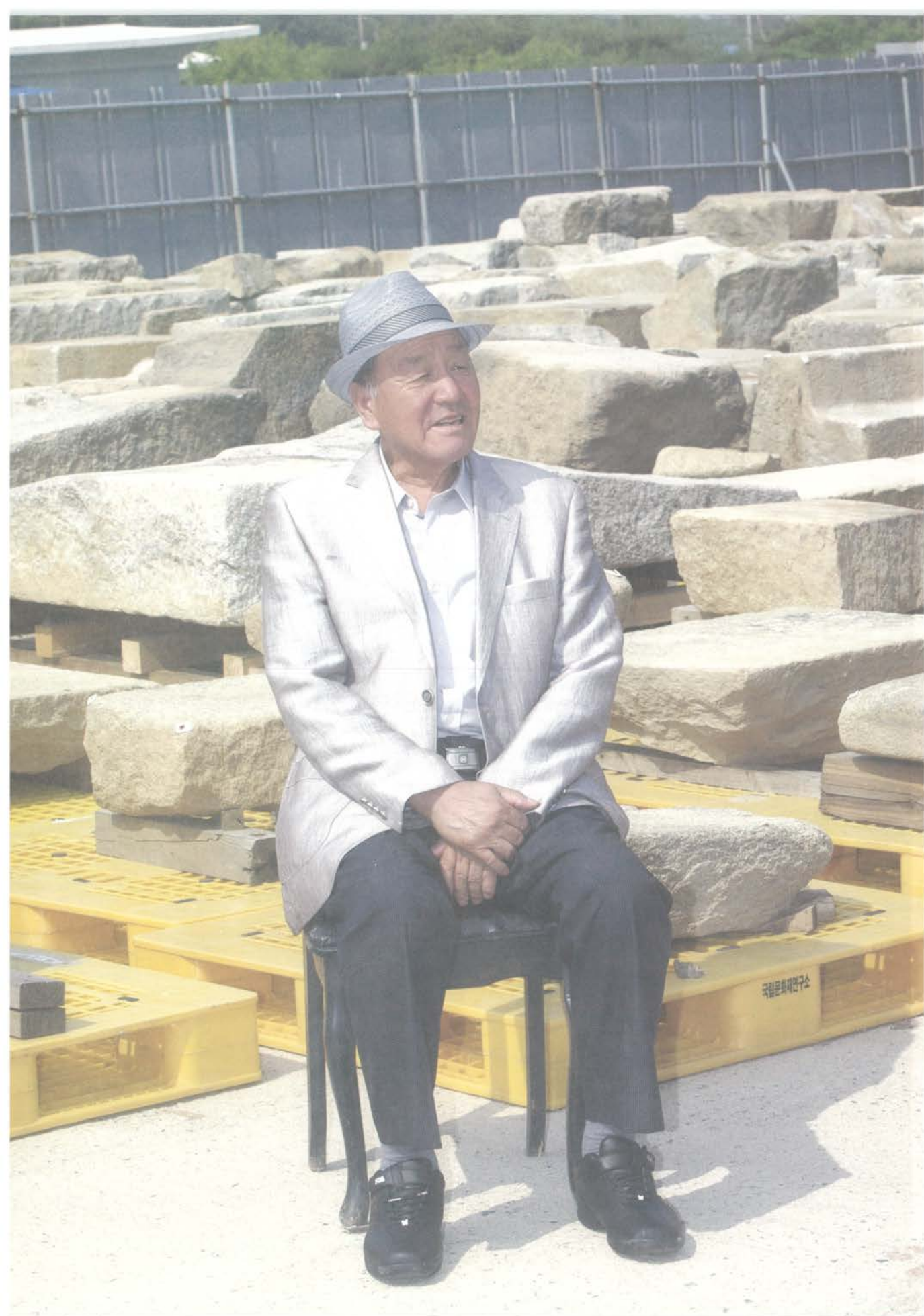
6단계 사업은 궁중군사 권역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오위도총부 영역, 내사복 영역, 서십자각 영역 등 24동의 주요 전각을 복원하게 된다. 그리고 훼손되어 없어진 서십자각을 복원하고 현재 도로 한복판에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동십자각에 궁장도 연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동서십자각을 복원할 경우 부지 매입에 따른 예산, 도로 선형변경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권역에는 경복궁 주차장과 국립고궁박물관 건물 등도 자리하고 있다.

【경복궁 2차 복원정비 단계별 계획】

- 총사업 기간 : 2011 ~ 2030(20개년)
- 총사업 예산 : 5,400억, 254동 건물복원, 102동 초석복원

단계별 복원계획		복 원 내 용	
1 단계 궁중생활 권역	소주방 및 흥복전 권역 등 (2011년~2016년)	건물 56동	소주방 영역 : 내·외소주방 등 18동 흥복전 영역 : 흥복전, 영훈당, 다경합 등 31동 자미당·인지당 영역 : 자미당, 인지당 등 7동
		소요예산	1,038억
2 단계 궁중통치권역	궐내각사 권역 등 (2013년~2020년)	건물 66동	영추문 영역 : 영추문 및 수문장청 복원 수정전 영역 : 수정전 행각 등 14동 궐내각사 영역 : 선전관청, 빈청, 정원 등 50동 경희루 남측 및 서측 담장 복원 어구 복원 및 주변 정비 기단, 초석 복원 : 국별장직소 등 9동
		소요예산	1,201억
3 단계 제왕교육권역	동궁 권역 등 (2019년~2022년)	건물 21동	동궁영역 : 춘방, 계방, 제조당 등 19동 건춘문영역 : 수문장청 등 2동 복원 기단, 초석복원 : 별감방 등 5동 훼손된 근정전, 홍례문 행각 내부 원형 복원
		소요예산	652억
4 단계 궁중의례권역	혼전 권역 (2021년~2025년)	건물 42동	문경전 및 회안전 영역 : 문경전, 회안전 등 29동 보현당 영역 : 보현당, 각감청 등 9동 신무문 영역 : 수문장청 등 3동, 측간 1동 기단, 초석복원 : 회안전 수궁 1동
		소요예산	759억
5 단계 궁중의례 권역	선원전 권역 (2022년~2027년)	건물 45동	선원전 영역 : 국립민속박물관 철거, 선원전 등 10동 만경전 및 만화당 영역 : 만경전 등 20동 상궁 및 나인처소 영역 : 제수합 행각 등 15동 기단, 초석복원 : 영보당 등 73동
		소요예산	1,164억
6 단계 궁중군사권역	군사관청 및 내사복 권역 (2026년~2030년)	건물 24동	오위도총부 영역 : 오위도총부, 상의원 등 10동 내사복 영역 : 내사복 등 13동 복원 서십자각 영역 : 서십자각 1동, 궁장복원 기단, 초석복원 : 별군직청 등 14동 고궁박물관 철거 또는 리모델링
		소요예산	581억

※ 국립민속박물관의 철거·이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에 따라 조정 추진



영원한 드잡이 홍정수 선생

협회 자문위원 이 성 원

지리한 장마가 계속되던 지난해 여름, 남대문 시장통 단골집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 온 분들과 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조선일보 신형준 기자(현재는 퇴사했지만 그냥 기자로 부르고 있습니다)에게 “신형, 현역시절에 드잡이하셨던 홍정수 선생 취재한 적 있어요?”라고 물었더니, “문화재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아쉽게도 홍선생과는 연이 닿지 않아 인터뷰한 적은 없어요. 70년도인가 덕수궁 대한문 옮길 때 그 일을 맡지 않았나요? 제 기억으론 조선일보가 1면 톱기사로 다룬 걸로 아는데, 당시 대한문을 들었다 봤다고 합디다. 아마 인터뷰는 연합뉴스 김태식 기자가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자 함께 있던 대목장 전홍수관장님이 “대한문 옮길 때는 그 양반이 일을 도맡아 하지는 않고, 그 양반 스승이자 매형인 김천석이란 분이 주로 일을 했고, 함께 일을 도운 걸로 알고 있네. 그 양반 우리 문화재 많이 만졌지, 그 양반 손길 안 닿은 문화재도 없을거야. 하지만 나이도 그리 많지 않고, 요새 나이 칠십이면 한창 일할 땐데, 너무 빨리 가서 안타까워.”

참고로 덕수궁 대한문은 덕수궁 담길 동북쪽에 태평로파출소를 만들고, 담장도 손질하는 바람에 한때 도로상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미터 뒤로 물려 현 위치로 이설했던 겁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반증해주는 거라 하겠죠. 70년 8월 시작된 이설공사는 이듬해 1월 2일 마무리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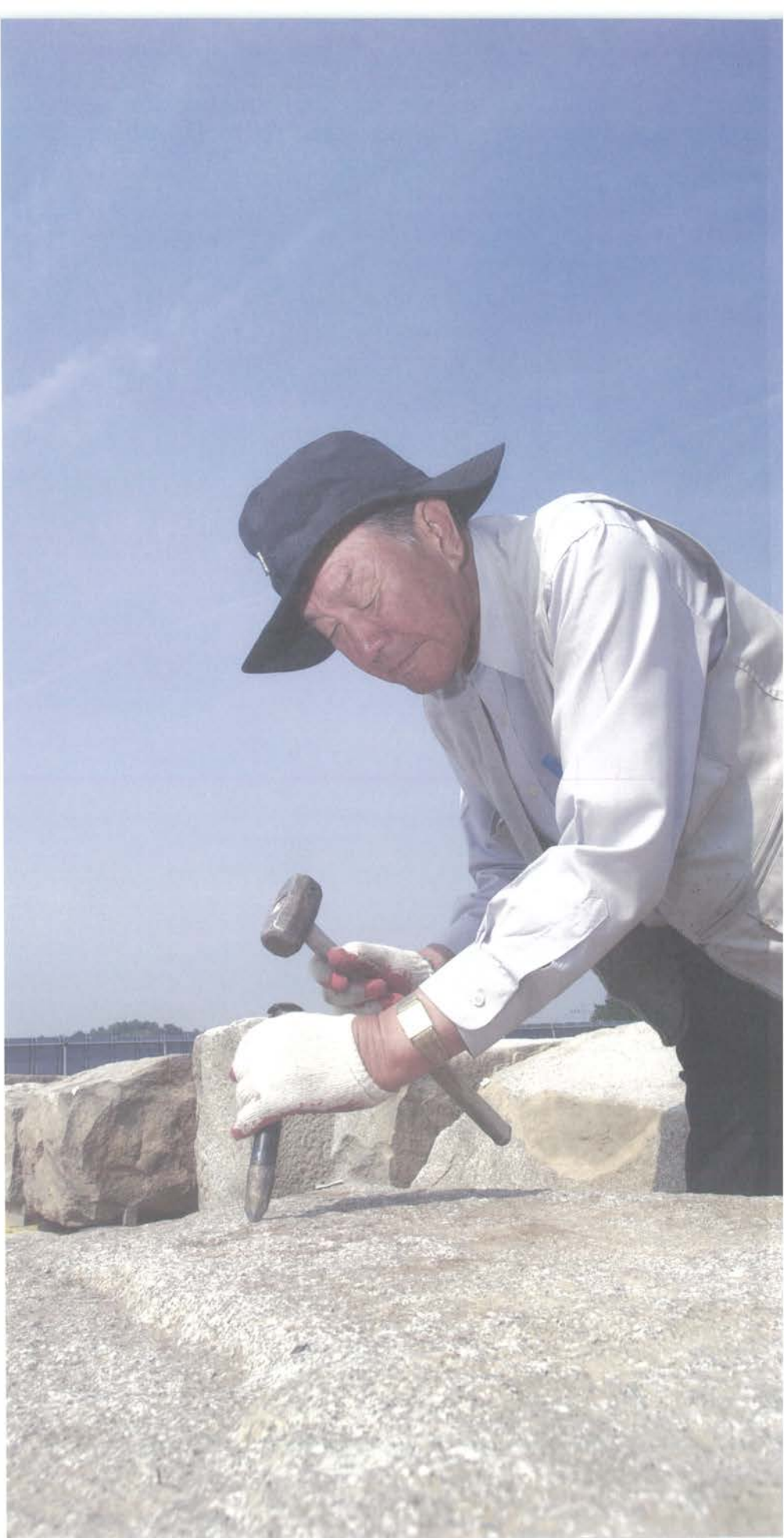
알만한 사람들은 다들 알겠지만 국보 제11호 국내 최고 최대석탑인 익산 미륵사지석탑 하면 홍정수 선생을 떠올립니다. 선생은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사업단 드잡이공으로 해체작업을 주도했습니다. 제가 문화재청에 근무할 당시 익산 현장은 좀 별로였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시간도 많이 흘렸지만, 공정도 지지부진해서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해서 격려도 하고 독려도 할 겸 해서 세 번인가 익산에 내려갔지만 아쉽게도 홍선생을 만나지는 못했지요. 2009년1층 심주 윗면 중앙의 사리공에서 사리장엄구가 나오는 바람에 그간의 지리

함과 답답함을 일거에 털
어낼 수 있었지만요.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
니 2010년 국립문화재연
구소에서 펴낸 홍보책자
인 '오신단' 여름호(지금
은 종이책이 아닌 웹진으
로 바뀐 모양입니다)에 실
린 글이 선생의 마지막 인
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 일부를 인용합니다.

"미륵사지 석탑 6층 지
붕돌(옥개석)이 2톤은 되
는데, 그걸 내손으로 처음
들어냈어요. 들어내고 보
니 속이 엉망이었죠. 밖에
서 본 것보다 훨씬 상처가
깊었어요. 1965년 왕궁리
5층석탑 해체복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사리장엄
과 금제금강경판 등을 발
견하게 되었어요. 그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건강이 별로라는 얘기가
들려 미리미리 인터뷰를
할려고 지난해 3월 김춘
옥 여사에게 연락을 드
렸더니 "고맙긴 합니다만
그 양반 인터뷰는 어렵겠
네요. 병세가 나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말씀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 양



반 평생 일해온 걸 정리해둔 자료와 사진들은 있긴 한데……”

그러고 나서 한달 후인 4월 11일 홍선생님은 “이 시대 최고의 드잡이 홍정수”란 이름만 남긴 채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신라돌과 백제돌이 다르고, 돌산에서 캐서 쓰는 요즘돌과 이전 우리 강산에 드러나 있던 옛날돌이 다르다는 선생, 노장(老匠)의 손길로 다시 태어나야 할 미륵사지석탑은 이제 누가 풀어야 할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영원한 드잡이 홍정수옹 이라고들 하지만 드잡이는 문화재 보수공사에서 매우 중요한 공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드러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문화재를 하는 사람들도 드잡이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서 선생이 걸어온 길을 장황하게 정리하지 않아야만 예의를 갖추는 것 같습니다.

1939년 여수에서 태어난 선생은, 1959년 매형 김천석님과의 인연으로 송례문 보수공사를 계기로 드잡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1964년 독립해서 처음으로 맡은 일이 남한산성 보수사업이었습니다. 그 후로, 월정사 9층석탑, 불국사, 수원화성, 통영 세병관, 금마 왕궁탑, 덕수궁 돌담, 현충사, 경복궁 근정전, 보림사 보조선사창성탑비, 화엄사 동오층석탑 등 전홍수 대목장이 언급한대로 중요한 문화재마다 선생의 손길과 땀이 베여 있습니다. 평생 들었다 내린 석탑만도 100기가 넘는다고요.

남들은 다들 탐내하는 인간문화재에 대한 욕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재수리기능자 제190호, 2007년 대한민국 문화유산상(보존관리부문)을 수상하시고, 4년 후인 2011년 4월 11일 별세하셨습니다.



미륵사지 석탑 해체 시연(2001. 10.)

시대의 名匠 故 홍정수 先生을 기리며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장 배 병 선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사업단장)

2011년 4월 초봄, 이 시대 최고의 드잡이공이었던 홍정수 선생이 타계하셨다. 입버릇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현장이 될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하시던 선생께서는 끝내 미륵사지 석탑의 완성을 보지 못하시고 생을 마감하신 것이다. 선생은 그렇게 안타까움을 뒤로한 채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그 분의 문화재에 대한 열정과 발자취는 긴 여운으로 남아있다.

내가故 홍정수 선생을 처음 뵈는 것은 2004년 여름 불볕 더위가 한창이던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현장에서였다. 당시 건축문화재연구실장으로 부임하면서 미륵사지석탑보수정비사업의 단장까지 맡게 되어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인데, 선생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수 톤의 석탑 부재들과 씨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선생은 비슷한 연배와 비교해 상당히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편이셨는데, 삼국지의 관운장처럼 얼굴이 붉었으며 장인(匠人) 특유의 고집스러움과 소탈함이 그대로 느껴졌다. 현장에서 첫인사를 하고 나눈 몇 마디를 통해 선생의 문화재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엿볼 수 있었다. 그로부터 2010년까지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하게 되었으니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동고동락(同苦同樂)하게 된 것이다. 나로서는 드잡이공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한 선생과 의미 있고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된 것인데, 이제 선생을 보내드리고 나니 서글픈 마음을 달랠 길이 없다.

내가 기억하는 홍정수 선생은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하고 사명감이 강하셨다. 현장에서는 작은 실수라도 그냥 넘기시는 법이 없고 불같은 성정을 보이기도 했는데, 아마도 무거운 석재가 머리 위로 움직이는 상황이다 보니 현장 식구들의 안전을 기하고자 노심초사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다. 선생은 고단한 일과 속에서도 늘 정갈한 매무새를 유지하셨는데 특히, 중절모와 잘 다린 흰색 와이셔츠를 즐겨 입으셔서 마치 유람 온 노신사처럼 보일 정도로 멋쟁이셨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무리 현장에서 힘들게 작업하고 먼지를 뒤집어써도 자신의 몸을 먼저 살펴 호

트러짐이 없도록 함으로써 항상 문화재에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만큼 선생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애정과 마음가짐이 남달랐던 것인데 우리 후세들이 본받을만하다.

홍정수 선생은 1939년 전남 여수에서 태어나 서울로 상경한 뒤 남대문 시장에서 미역 등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누님이 그 당시 유명한 드잡이공이었던故 김천석 선생과 결혼하면서 매형 손에 이끌려 1955년 경복궁 담장을 보수하는 현장에 나가게 된 것이 문화재 현장에 첫 발을 딛게 된 것이다. 선생의 말에 따르면 그저 입에 풀칠이나 하려고 매형을 따라나서게 된 것인데, 그게 당신의 평생 업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하셨다. 처음에는 등짐을 지고 기왓장을 나르는 등 허드렛일을 도맡아 했지만 점점 일이 몸에 익으면서 기술도 좋아졌다. 그의 드잡이 인생은 1959년 동묘 보수를 시작으로 1964년에는 매형으로부터 독립해서 남한산성 서장대 보수를 맡은 후 세병관,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불국사, 수원화성, 경복궁 근정전, 창덕궁, 덕수궁, 태안 마애삼존불, 신륵사 다층전탑, 진전사지 부도, 연곡사 부도, 보림사 보조선사탑, 화엄사 동 오층석탑 등 석조물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약 100건이 넘는 문화재의 해체와 보수에 참여하였다.



현장에서 안전교육 중인
홍정수 선생

선생이 미륵사지 석탑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현장의 자문위원으로 계신 정영호 선생(현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장) 등 여러 원로들의 추천이 있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석탑이 바로 미륵사지 석탑이기에 당대 최고의 드잡이공이었던 홍정수 선생이 참여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운명이었던 것 같다. 당시 선생의 소감을 인용하면 "1965년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해체 보수 사업에 제가 참여했는데 그때 인근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을 처음 보게 됐어요, 돌을 꼭 나무 싹듯이 맘대로 누이고 세우고 짜 맞추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신묘하게 빚어진 석탑이 허허벌판에 시멘트 땀질을 한 채 처량하게 서 있는 걸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려 앉았죠. 그때 제 손으로 이걸 꼭 다시 세워 놓겠다고 결심했어요." 라고 하셨다. 1965년 처음 생각했던 당신 평생의 간절한 소망이 26년이 지난 2001년 10월 석탑을 처음 해체하던 날 실현된 것이다. 왕궁리 오층석탑을 해체, 보수하던 과정에서 사리장엄과 금제금강경판이 발견됐는데 당시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고도 하셨다. 그리고 2009년 1월 미륵사지 석탑에서 백제지역 최대의 고고학적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는 사리장엄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홍정



사리장엄 발견 직전
심주석 해체(2009. 1)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수상
(2007. 12)



수 선생이 참여하실 때 발견된 것으로 생전의 큰 기쁨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다. 그러나 모두 긴장하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때 선생은 오히려 말씀도 거의 없이 침착하게 자리를 지키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마도 1,400년의 세월을 건너 현세에 모습을 드러낸 사리장엄에 대해 혹여 불경함이 있을까 싶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하셨던 것 같다.

선생은 연세에 비해 기골이 장대하고 목소리도 찌렁찌렁 울릴 정도로 크셨다. 또 항상 부지런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한 느낌을 주는 분이셨다. 사실 나는 대전에 주로 근무했기 때문에 익산현장에서의 선생의 일상에 대해 세세한 것까지는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미륵사지에 오기 전부터 천식을 앓고 계셨다고 한다. 그리고 식후에 꼭 소주 한 병씩을 드실 정도로 상당한 애주가셨는데 간혹 과음으로 힘들어 하시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다 건강이 점점 나빠져 2006년 즈음부터는 금주를 하셨는데, 천식 등은 여전했지만 일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었다. 그러던 차에 선생이 우리나라 문화재계에 평생을 헌신하신 것을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2007년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보존관리 부문에 추천해서 수상을 하게 되었다. 선생은 주변인들의 축하주로 한동안 절제했던 술을 다시 드시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체장염으로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내 대에는 선생께 고마움을 전하고자 나섰던 것인데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 지금도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故 홍정수 선생을 이 시대 최고의 드잡이로써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선생이 평

생에 걸쳐 이루고 새 생명을 불어넣은 수많은 문화재를 보면 알 수 있다. 연구소에서 일하게 된 후에도 여러 가지 일화가 있었다. 처음 미륵사지 석탑 해체를 준비할 때 작업과 탑의 보호를 위해 목재로 비계를 설치하기로 하고 설계와 모형을 제작한 적이 있다. 이후 목수들이 작업을 했는데 탑을 해체하면서 분해와 조립을 반복하게 되었다. 이때 선생께서는 도면도 보지 않으시고 이것저것 바꾸어 설치를 하셨다. 그래서 내가 “도면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도면을 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대로 해 볼테니 믿고 지켜봐 주세요.”라고 하셨다. 결국 비계는 도면과 다르게 설치가 되었지만 더욱 튼튼하고 작업하기 편한 형식으로 완성되었는데 보기에다 좋아 관람객들



석탑 1층 해체 전
비계 설치 모습

로부터 호응도 좋았다. 이것은 온전히 선생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으로 그때서야 우리는 ‘참으로 경험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005년에 불국사 삼층석탑의 안전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었다. 그때 내가 “선생님 불국사 삼층석탑을 해체보수 하기가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대답을 했지만 선생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뜻밖에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이유를 들어보니 현대장비가 들어오기도 어렵고 천상 전통방식으로 해체해야 하는데 지지대를 잡아줄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선생의 경험과 기술이면 얼마든지 해체할 수 있지만 주변 상황과 작업 중 안전까지 고려해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선생의 문화재에 대한 애정과 치밀함을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2006년에는 감은사지 서 삼층석탑을 해체보수하게 되었는데 워낙 풍화가 심해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때에도 선생의 도움으로 무사히 해체를 마칠 수가 있었다. 미륵사지 석탑의 수많은 부재를 해체하면서 단 하나의 부재도,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선생의 공이 아닌가 싶다.

선생은 2010년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를 모두 마무리하고 그 해 가을 현장을 떠나셨다. 그리고 탑을 쌓을 때 다시 돌아오시기로 굳게 약속하셨다. 그러나 결국 그 때가 내가 본 선생의 마지막 모습이 되고 말았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현장을 떠나신 후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이듬해 겨울 병상에 누우셨다고 한다. 하루에 수십 알의 약을 드시면서도 석탑의 마지막 해체 순간까지 호트러짐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현장을 지키셨던 선생은 그렇게 병상에서 몇 개월을 보내고 우리 곁을 떠나셨다. 진작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한이 된다.

마지막으로 선생께서 현장을 떠나기 전 연구소 홍보팀과의 인터뷰에서 남기신 말씀

과 기록을 옮겨 적어본다.

“첨단기술이 발전하면서 문화재 현장의 드잡이 일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탓에 이 일을 배우려는 젊은이가 이제는 거의 없어요. 그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죠. 첨단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장인의 꼼꼼한 손길을 기다리는 문화재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일에 열정을 가지고 일하면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후배 등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첨단기술이 발을 들여 놓지 못하는 산간 오지 문화재의 해체, 수리는 드잡이들만의 몫이다. 예전 같지 않게 체력도 많이 약해져 간다. 하지만 그의 정신만은 초심을 잃지 않고 깨끗하다. 그 속에는 첨단과학이 범접하지 못하는 위대한 힘이 넘쳐 난다. 『오산단(2010년 여름호)』 ‘미륵 사지 석탑 보수’는 내 인생 최고의 꿈’중에서

지금도 석탑이 다 해체되고 난 후 덩그러니 남은 터만 말없이 바라보시곤 하던 선생의 뒷모습이 눈에 선하다. 아마도 당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 건강하게 우뚝 설 미륵 사지 석탑을 그려보고 계셨으리라.

현장 사업단 식구들과 함께
(2010)



우리 시대 최고의 드잡이 고 흥정수님을 추모하며

문화재위원 이상필

들어가며

문화재는 물리적 자연적 특성상 세월의 경과와 더불어 퇴락과 훼손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원래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문화재를 원래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와 함께 오랜 경험을 축적한 장인이 문화재수리를 담당하여야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문화재수리란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재수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문화재수리기능자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 수리는 한식목공, 한식석공, 화공, 번와와공, 드잡이공, 한식미장공, 온돌공, 실측설계사보 등 20여 직종의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에 참여하게 되어있다. 드잡이공은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목조건축이나 석조물의 문화재수리에서 중요한 기능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어사전에 드잡이는 “서로 머리카락이나 먹살을 끌어 잡고 싸우는 짓” 또는 “빛을 감지 못하여 술을 떼어 가거나 그릇 따위를 가져가는 짓”으로 설명되어 있는 생소한 용어이다. 그러나, 한국 건축사전에 드잡이는 “기울거나 내려앉은 건물을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작키나 탕개(탄버클) 등을 써서 바로 잡는 일, 기둥 보 등의 큰 부재를 들어맞추는 일”로 설명되어 있고, 드잡이공은 “내려앉거나 기울어진 집을 올려서 바로잡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 설명되어 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드잡이공의 업무범위는 “기울거나 내려앉은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 등을 이용하여 바로 잡는 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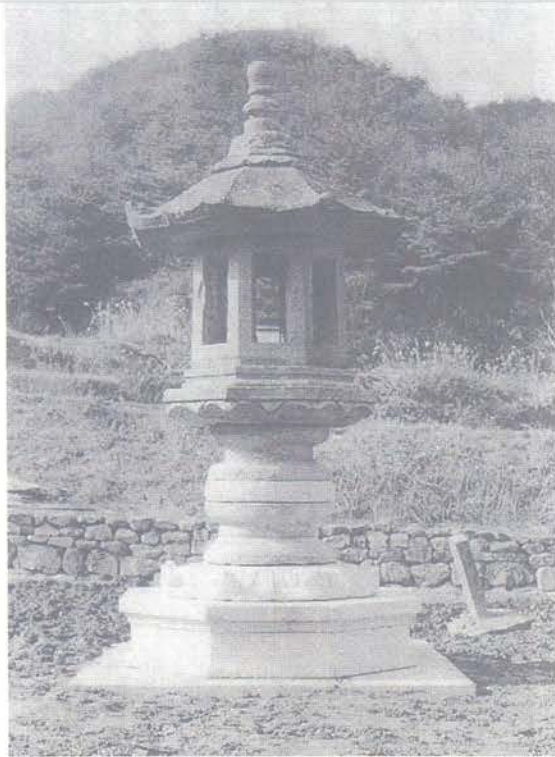


강진 금곡사 삼층석탑 해체수리 중 전면 우에서 두 번째가 고 홍정수 드잡이 장인이다.(금곡사 삼층석탑 수리보고서 인용)

고 홍정수 드잡이 장인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문화재를 수리할 때 건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기울거나 내려앉은 것을 바로 잡는 기능이나, 석탑 등 천 년도 더 오래된 옛 부재를 해체·조립하는 기능을 익히기는 대단히 어렵고 오랜 경험이 축적된 선대(先代) 장인의 기능을 전수 받아야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도로(세종로) 확장으로 인하여 덕수궁 대한문을 궁 안쪽으로 14m 정도 들어 옮길 때(1959년경) 고(故) 김천석(金千石) 선생이 공사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그 당시 많은 사람이 모여 대한문 드잡이 광경을 구경하였는데, 고종황제 국상(1919년)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덕수궁에 몰려 건물이 걸어나는 것을 보고 신기해 하였다 한다. 대한문의 드잡이는 고 김천석 선생을 중심으로 드잡이공 10여 명이 힘을 합하여 대한문을 걸려서 옮길 때 고 홍정수 님도 함께 참여하여 드잡이가 됐다 한다.

서울 숭례문, 덕수궁 대한문, 서울 동묘, 감은사지 서탑 등 국보와 보물이 1959년부터 1960년에 해체 수리되었다. 이 당시 중요한 건조물의 해체 드잡이는 대부분 고 김천석 선생이 담당하여 훌륭한 드잡이로 이름이 나 있었다. 경주 동해안에는 대왕암(大王巖)과 이견대(利見臺), 감은사지(感恩寺址)가 있다. 감은사지에는 신라 신문



왕 2년(682)에 창건된 높이 13.4m나 되는 거대한 동·서삼층석탑이 국보 제112호로 지정되어 있다. 감은사지는 광복후 1959년 우리 손으로 발굴조사한 최초의 사지(寺址)로 기록되어 있고, 감은사지 서탑 또한 우리 손으로 해체 수리한 최초의 석탑으로 기록되고 있다. 감은사지 서탑은 단기 4292년(1959) 11월말에 기공하여 4293년 1월에 완료되었는데 당시 조립 및 해체는 고 김천석(드잡이) 선생이 주관한 것으로 당시 석탑 해체수리 공사감독 및 조사관 초청(김동현, 김정기, 윤무병 등)간담회 내용이 서삼층석탑수리보고서(2010년 문화재연구소 발간)에 기록되어 있고, 감은사서탑중수기에도 공사 담당 서울 김천석(보고서에는 金千石로 기록되어 있으나 金千石의 오기로 보임)으로 기록되어 있다.

강진 금곡사 삼층석탑 해체수리 중 전면 우에서 첫번째가 고 홍정수 드잡이 장인이다.
(금곡사 삼층석탑 수리보고서 인용)

1950년, 1960년대에 최고의 드잡이 명장(明匠)으로 이름 높았던 고 김천석 선생의 처남인 고 홍정수 드잡이 장인은 1959년부터 매형(김천석)의 기·예능을 전수 받아 50여 년간 드잡이 일을 수행해 왔다. 고 홍정수 드잡이 장인이 공식적으로 드잡이공으로 문화재청에 등록된 것은 1971년 4월 22일이다.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기능자 드잡이공 제190호로 등록된 후 2011년 4월 12일까지 40여 년간 드잡이공으로 문화재수리 업무만 전념하면서 평생을 살았으며, 지금까지 고 홍정수 드잡이 장인의 손으로 수리된 수많은 문화재를 일일이 다 언급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서울 동묘 보수(1959년), 서울 숭례문 해체수리 및 통영 세병관 수리(1960), 익산 왕궁리 5층석탑 보수(1965년), 월정사 8각 9층석탑 해체수리(1971년), 경주 불국사 보수(1972년), 수원 화성 성곽 보수(1975년), 경복궁 근정전 월대 보수(1987년), 구

례 화엄사 5층석탑 보수(1999년),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비 보수(1999년) 등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중요한 문화재를 수리하였다.

특히 1988년도에는 보물 제829호 강진 금곡사 삼층석탑 해체수리(1988. 5. 2~7. 20)를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완수 하였으며, 이듬해는 보물 제831호 승주 동화사(桐華寺) 삼층석탑 해체수리 (1989. 6. 12~8. 1)를 담당하였다. 이 두 탑은 문화재관리국에서 단행본으로 수리보고서를 발간하여 고 홍정수 드잡이 장인의 손에 의하여 해체수리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문화재가 고 홍정수 드잡이 장인의 손으로 원형보존되었다.

고 홍정수 드잡이 장인을 추모하며

고 홍정수 드잡이 장인의 우수한 기·예능은 문화재수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함께 만나 논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다행히 필자는 1991년 보물 제111호 개천사지 석등을 해체수리할 때('91. 6. 21~12. 20)에 현장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화사석(火舍石) 우주면(隅柱面)에 음각된 “용기3년신해10월(龍紀三年辛亥十月)라 쓴 명문(銘文)에 의하여 신라 진성여왕 5년(891)에 건립된 석등으로 알려진 유일한 신라 석등의 해체 수리를 고 홍정수 드잡이 장인이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필자는 그때에 고 홍정수 드잡이 장인은 “매사에 침착하고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다.”라고 전해지는 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에 차 있는 모습 또한 직접 볼 수 있었다. 함께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서두르지 말라고 당부했다.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되지 않으면 작업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 하나 꼭 확인한 다음에 작업을 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 할 수 있었다. 그 후로 필자는 고 홍정수 드잡이 장인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게 되었으며, 함께 줄 때는 방법 등을 일일이 챙겨 보고 준비하는 과정 하나 하나와 근면, 성실한 모습을 배울 수 있었다. 그 침착하고 결의에 찬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고, 존경해 마지 않는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미륵사지석탑보수정비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석탑 해체작업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 한 고 홍정수 드잡이 장인은 2001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해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고 본다. 현재 미륵사지 석탑은 기단부까지 완전해체되었다. 앞으로 석탑 조립 복원사업이 진행되면 수 년내에 복원된 미륵사지 석탑의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떠나신 것이 못내 아쉽고 더 그리울 뿐이다.

또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석탑보수정비사업단에서는 감은사지 서탑 3층이상을 해체하는 사업을 2006년 6월 7일부터 실시하였다. 2006년 6월에 경주 감은사지 서탑





감은사지 서탑 찰주 해체
(수리보고서 인용)

의 원만한 해체를 진행하기 위하여 익산미륵사지 석탑 현장의 홍정수 드잡이 장인과 의논하여 해체를 실시하기로 결정한다. 노반, 찰주(총길이 약5.3m, 밑지름 17.9cm), 3층옥개석 등 해체 순서를 정하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해체용 레일을 제작하였으나, 무게중심에 따른 위치이동은 아주 드문 경우이므로 전통방식으로 해체하는 것이 부재안전면에 유리하다는 홍정수 드잡이 장인의 의견에 따라 전통방식으로 해체수리되어 지금도 늠름하게 그 자리에 서 있다.

감은사지 3층석탑 해체에서 보듯이 전통방식으로 드잡이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였고 반드시

확인하고 실천한 우리 시대 최고의 드잡이 장인 고 홍정수 님의 정신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추모하게 된다.

나가며

고 홍정수 님은 1939년 여수에서 태어나 20세가 되는 1959년부터 드잡이 장인으로 활동하여 2011년 4월 우리 곁을 떠나기까지 52여 년간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온 몸을 바쳐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수많은 문화재를 해체·수리하여 원형을 보존한 공적으로 2007년 12월 7일 제4회 대한민국문화유산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 날 축하인사를 드렸던게 바로 엇그제 같은데, 지금 그 때를 회상하며 추모하는 글을 쓰고 있다.

고 홍정수 님은 드잡이 일에 겁을 낸적이 없다. 두려움을 모르며 진취적으로 일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맡으면 며칠을 고민하고 연구하여 신묘(神妙)한 묘책(妙策)을 찾아내 끝내 이루어 내고야 마는 성품을 가지셨다. 오래 동안 감내하고 평생을 지켜온 전통기법과 기능을 물려주고 가신 고 홍정수 드잡이 장인의 뜻을 이어 받아 우리의 전통기·예능이 더 발전 전승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또한, 선생께서 관여하시다가 남기고 간 미륵사지 석탑이 잘 복원되어 서연지(西蓮池)에 드리우는 그림자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한다. 연못에 미륵사지 서탑의 탑영(塔影)이 비칠 날에 다시 선생께 큰 잔을 올리며 추모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묵묵히 지켜온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언제나 변함없이 존경합니다. 그림습니다! 홍정수 드잡이 장인 선생님!

내가 기억하는 드잡이 홍정수 선생

연합뉴스 문화부 기자 김 태 식



2007년 문화유산상 시상식에서
의 선생

지난 4월 13일,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사업단에서 일하는 지인(知人)에게서 전화가 왔다. 드잡이 홍정수 선생이 타계했다면서 내가 몸담은 연합뉴스를 통해 부고 소식을 다뤄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이었다. 그런 말을 듣고 대뜸 내가 그랬다. “그 양반이 왜 돌아가세요?”

그만큼 그의 타계가 나에게는 뜻밖이었다. 나중에 문화유산계에 일하는 다른 분들과 얘기를 해봐도 나와 같은 반응이었다. 내가 선생을 뵈는 지는 몇 번 되지 않고,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도 없지만, 그 명성은 익히 알고, 그런대로 건강하신 줄로만 알았기 때문이다.

그의 타계는 문화유산계에서는 주초(柱礎)의 손실이다. 그만큼 문화유산 복원과 드잡이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獨步)였다. 그가 전국 방방곡곡에 뿌린 흔적들은 겨우 그 흔한 부고 기사 하나로만 기록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나로서는 못내 안타깝기 짝이 없었다. 더불어 먼발치에서만 몇 번 바라본 그의 남다른 열정과 흔적들을 생전에 정리하지 못한 내가 문화유산 담당 기자라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했다. 그의 타계 소식을 접하고, 선생에 관한 자료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넘겨받은 다음 나는 ‘최고 드잡이공 홍정수씨 타계’라는 제하의 제법 긴 분량의 부고 기사를 작성해 그날 오전 9시 30분쯤에 송고했다. 이 기사 첫 문장은 이랬다. “이 시대 최고의 드잡이공으로 꼽히는 홍정수씨가 11일 오후 5시 별세했다. 향년 73세.”

그날 점심시간이었다고 기억한다. 아마도 문화재청이 아닐까 하는데, 그곳 주최 기자간담회가 있어 다른 언론사 동료기자들과 자리를 함께한 일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선생의 얘기가 오고 갔는데, 이 분야에 종사한지 얼마 안 되는 기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드잡이가 도대체 뭐냐”는 것이었다. 박스형으로 그의 행적을 정리한 부고 기사를 마련하기에는 신문 편집에 키를 쥔 소속사 부장이나 편집국장을 설득하기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말도 나왔다. 그렇다. 선생이 반백년을 투신한 드잡이는 그만큼 일반에는 여전히 생소하기만 하다. 사정이 이렇진댄 그의 죽음을 애도할 이, 이 업계를 벗어나서는 몇이나 되리오.

더구나 선생은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가 아니다. 그런 까닭에 문화재청이나 국립문화재연구소 같은 데는 그의 일생을 자세히 채록한 적도 없다. 그러니 그의 부고 기사를 정리하려니 막상 자료가 없어 나오서는 실로 난감하기만 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저기에서 몇 마디 주워 모으고, 2007년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보존관리 부문을 수상할 적에 문화재청에서 주동이 되어 작성한 기본 자료가 있어 그것을 열개로 그의 일생을 겨우 재건축해 내기도 했다.

내가 직접 본 그다지 많지 않은 선생의 행적 중에 잊히지 않는 일이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현장에서였다. 이 석탑은 논란 끝에 해체 보수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실제 해체 작업은 2001년 10월 30일 시작됐다. 나는 당시 이 현장을 현장에서 지켜봤다. 이날 내가 송고한 ‘미륵사지석탑 해체 보수공사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시금 검색해 보니, 이 행사는 이날 오후 공사가 시작됨을 신명(神明)께 고하는 의식인 고유제로써 닳을 올렸다. 이 자리에는 노태섭 당시 문화재청장과 조유전 당시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이 기사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고유제 뒤에는 일부만 남은 석탑 맨 꼭대기 지붕돌인 옥개석을 들어냈다”는 말이 있다. 기사에는 이를 들어낸 사람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지만 그가 바로 선생이었다.

이때 일이 인연이 되어, 그리고 드잡이라는 일이 나에게도 하도 인상깊게 각인이 되어 선생이 2007년 연말에 문화유산상을 수상한다고 결정되었을 적에는 비록 나 자신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후배를 시켜 한 일기는 하지만, 그를 인터뷰하게 했다. 나로서는 선생께 그나마 면목이 서는 것은 바로 이 인터뷰가 간략하게나마 그의 일생을 정리하는 시금석을 마련했기 때문이었다. 필자와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 일하는 고미혜 기자가 작성해 그해 12월 5일 오전에 송고한 ‘〈사람들〉 반세기 외길 드잡이 공 홍정수씨’ 제하 기사는 결국 선생이 타계했을 적에 이 분야 기자들이 부고를 작성하는 근간을 이루게 된다. 이 기사를 보면 선생은 “오다가다 우뚝 서 있는 남대문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흐뭇한지 몰라.”라는 언급이 보인다. 남대문(송례문) 복원에 그 자신 땀을 쏟았기 때문이다. 이런 혼과 땀이 담긴 현장이 불과 1년여 뒤에 어처구니없는 방화를 만났으니 참말로 아이러니다. 기사에 의하면 선생이 문화재 복원 작업에 입문하기는 1959년이다. 남대문 시장에서 미역 등을 팔며 근근이 생활하다가 누나가 당시 알아주던 드잡이공인 고 김천석 선생과 결혼했고 선생도 매형



익산 미륵사 석탑 해체 현장에서의 선생



에게 이끌려 문화재 복원 현장에서 등짐을 지고 기왓장을 나르는 허드렛일을 하게 된 것이 드잡이 인생의 첫 걸음이었다고 한다.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문화재 해체 복원 작업에 참여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1960년대에 참여한 통영 세병관 보수 작업을 꼽았다.

“지금은 기계로 많이 작업을 하지만 그때는 다 손으로 했다.”는 선생은 “일할 때는 힘들었지만 그때 손으로 하나하나 쌓아올린 270m 담을 보면 지금도 보람을 느낀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문화재 복원사업이 드물어 드잡이로는 생활이 힘들어 일이 없을 때는 일반 공사현장의 담이나 석축 작업도 닥치는 대로 했다. 그렇지만 돈을 떼인 일도 다반사여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한창 애들이 클 때는 아내가 해장국 장사 등을 하면서 살림을 거들어야 했다.

“이제는 사는 걱정 안 하고 일할 수 있어 행복하다.”면서 “여든이 될 때까지도 문화재 복원 현장에서 땀 흘릴 수 있다.”고 자신한 그였지만 훌쩍 떠나고 말았다. 미륵사지석탑보수정비사업에 참여하면서 익산에서 주말부부로 생활한 그가 남긴 말 중에 “너나할 것 없이 국민이 문화재가 얼마나 소중한 유산인지에 대한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당부는 여전히 귓전을 때린다.

홍 · 정 · 수 정수 형님이 그림습니다

드잡이 이 만 흥

첫만남 첫인상

80년대인가요, 처음 만날 때까지만 해도 홍정수라는 양반을 몰랐어요. 어디 성(城) 쌓는 현장인데, 산 밑에 있는 술집에서 만나 수인사를 나눴지요. 그때 저도 젊었고 그 양반도 젊었으니까요, 저랑 너댓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만나고 보니 키도 크고, 머리도 훌러덩 벗어진 양반이…… 그때 술자리에 동석했던 양반들이 하던 얘긴데요, 성질이 아주 고약해서 욕도 엄청 잘한다고 해요. 욕 안먹은 사람이 없다고들 합디다. 사실 저도 현장에서 욕을 좀 하는데요, 욕 먹을 짓을 한 일꾼은 욕을 먹어야 해요. 욕을 한다는 건 일꾼들의 정신을 바로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 두 번째 만남게 제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을 칠 땐니다. 자격증이 뭔지도 몰랐고 필요도 없어 늦게 시험을 봤는데, 그 때 홍선생은 부(副)시험관인가 그랬는데요, 시험장에서 인사를 하니깐 “당신이야, 아직 자격증 안 땀어?”라고 했어요.

형님 동생사이

당시 형편이 저도 박물관 일을 쪽 해 온터라, 굳이 찾아 뵙고 굶신거릴 이유가 없었지요. 그런데도 정수 형님이 먼저 동생하자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 정수 형님도 초등학교 4년도 채 못 배웠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야 동생, 나도 초등학교 4년밖에 못 배웠고, 서로 배운거도 비슷하고, 얼굴도 비슷하고, 단지 키만 내보다 좀 적어. 하지만 동생하나 잘 얻었으니깐 난 이보다 좋은 건 없어. 그 양반 성질도 그래서 그런지 저 말고는 그리 가깝게 지내는 친구 분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았어요.”

일주일에 한번꼴로 꼭 제가 먼저 전할했지요. 토요일이면 전할 해야 해요. 안하면 뭐라 했거든요 만남은 한달에 한번 정도쯤이었고, 토요일만 되면 동생한테서 전화 올 때가 됐는데 하면서 전할 기다린데요, 그 양반도 일찍 일어나니깐 아침에 일찍 하지요. 전할 하면 “응, 안 그래도 기다렸어, 언제 만나야지. / 언제가 좋을까요? / 내가 날 받아놓고 연락할게.”

또 이렇게 오랫동안 사이가 변치 않았던 것도 서로 돈 애긴 안했지요. 형님도 돈이 끼면 형제지간에 의(義가) 끊어진다면 돈 애긴 꺼내지도 않았고요.

술 이야기 완전 소주파

완전 소주파였어요. 탄 술은 안 잡셨지요. 형님네 집을 찾아 갈려면 소주를 박스채 사가지고 갔어요. 몇병 사가지고는 안 되서요. 술로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 저는 자주 도망나온곤 했지요. 저도 웬만큼은 하는데 형님 두어병 드실 때, 한 병 정도 비율까 말까였거든요. 내외분 모두 약주를 좋아했어요.

밤새 마신 형님이 꿈아 떨어졌어도 형수님은 자지 않고 빨래를 하곤 했어요. 안주는 돼지머리 삶아서 썰어 드시는 걸 좋아했고, 생선회도 좋아했지요. 바깥 술집으론 흥 선생 아는 집인 남대문시장 안에 있는 횡집하고, 제기동 경동시장 사거리 파출소 뒤편에 있는 대양갈비와 종로5가 보령약국 안쪽에 있는 유명한 한방 삼계탕집에 자주 가곤 했지요. 한정식집 방석집은 찾질 않았지요. 좋은데 안갔습니다. 저도 형님도 싫어했어요. 그런데 가면 서로 부담되고 입장 곤란해지잖아요. 이렇게 빨리 가실거면 한번쯤은 갈만도 했는데요.

술값도 그래요. 형님 노릇하신다고 그 양반이 두어번 내면 제가 한번 낼까 말까 했어요. “자넨 드문드문 일 하는데 무슨 돈이 있어? 그래도 난 한달에 삼백정도는 월급 타잖아.”

술자리 애긴 기술적인 것 보다 공사 후일담이 주였지요. 탑을 어떻게 만져야 온전하고 오래가고 하는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요. 일 하다 적자나서 돈 못주고 도망 다닌 얘기, 어떡하면 이문을 좀 더 남길까 하는 얘기 등등 그런 게 주였어요. 예를 들어 문화재청에서 일을 발주하면 드잡이한테 바로 안주고 업체한테 주잖아요. 그럼 업체가 여름내내 일을 한다고요, 그러다 11월 12월 추워질 때가 되면 우리보고 쌀으라고 한다고요. 추울 때 쌀으면 분명 하자가 납니다. 생석회는 한번 일

면 안 굳어요, 이게 문제가 돼서 하자가 나거든요. 허영게 물이 질질 나오지요, 그전에는 덩어리 생석회를 비벼서 썼거든요. 거기에 물을 붓고 하룻밤 재놓으면 그 다음 날 막 얼지요. 한번 언 생석회는 굳지도 않고요, 그래서 형님도 그랬지요 “야 동절기에 할려면 생석회 잘 해야지 잘못하면 큰일난다.”고요, 유일한 방법은 일을 안 하는 건데 일 안하면 돈을 못 받고…….

드잡이 일

일은 같이 안했어요. 제가 만약 형님 밑에서 일을 배웠다면 같이 했을지도 모르지만, 저도 저대로 배웠고 일꾼들 부리면서 일을 했거든요, 서로 자존심이란게 있잖아요, 성질 고약한 분한테 가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지요.

저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박이섭 선생이라고 옛날 왜정 때 유물을 좀 하셨답니다. 그 분이 일 하는걸 보고 배웠지요. 제가 나름 눈썰미와 손재주가 좋은 모양입니다. 그 양반 하는걸 보곤 금방 따라 했거든요, 똑 같은 방향으로 다 했어요, 그게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면 절대 안 떠나요, 그리고 나서 다른 현장에 가면 그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선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일도 재밌고 대단히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일은 그 분도 반장, 저도 반장 그렇게 일을 했지요, 제가 볼 땐 정수 형님도 누구 스승이 있어 배운 건 아니라고 봐요, 그 분이 머리가 좋으니까 매형 밑에서 매형이 하는걸 보고 배웠지요, 사실 머리 나쁜 사람은 드잡이 못해요, 드잡이 하는 사람들은 다들 머리가 좋아요, 정수 형님도 그 머리로 공불했으면 고생 안하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다시 일로 돌아가면 사실 고수들끼리는 부딪히면 잘못하면 소리가 나지요, 만약 정수 형님이 날 불려서 지금 사람이 없으니 와서 일 좀 해다오, 그러면 전 말을 안 해요, 그 양반이 해달라고 하는대로 해요, 내가 이거 이러니깐 이렇게 합시다 라는 식의 애길 안합니다, 뭐 어떻게 할거냐고 여쭙보고선, 형님이 이렇게 할거라고 하면 두 말없이 그대로 합니다. 그래야 소리도 안나고, 우왕좌왕 하면 사고 나지요.

익산과 남산, 문화유산상

형님이 익산 마륵사에서 일 하실 때 두어번 갔어요, 거기서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지요, 암은 아니지만 속에 혹이 있어 떼냈다고 하더라고요, 익산에 가면 동생이 왔다고 현장을 왔다갔다 하면서 “내가 일한거야 이거 봐,” 그러곤 했지요.



형님이 꽃감을 좋아해서 꽃감 사들고 갔지요. 단걸 엄청 좋아했거든요.

익산 말고는 같이 지방을 갔다 온 적이 없어요. 주로 서울에서만 만났지요. 남산 타워 올라간 게 제일 멀리 간 겁니다. 남대문 시장안 횡집에서 한잔하고 케이블카 있는 데까지 택시 타고 가서 그걸 타고 올라갔는데요, 케이블카에서 내려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도 힘들어 하는 바람에 살짝 올라갔어요. 내려올 때도 한참 쉼 다음 내려왔지요. 형수님도 몸집이 크시거든요.

제가 용산으로 국립박물관 이전할 때 유물을 옮긴 일을 한 공로로 문화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상 받고서 전할 했더니 형님이 칭찬을 많이 해줬지요. 그러고 나서 다음해가 “동생 나도 상 받아. 대통령상이래. 일생에 한번 받을까 말까 하는 상이야.” 그러면서 무척 좋아했지요. 그때 받은 상금이 천만원인가 그랬는데, 남대문시장 횡집에 가서 허리끈 풀러놓고 실컷 먹었어요. 형님이 돈을 쓸땐 잘 써요.

익산 자택 돌아가실 무렵

제가 알기론 형님은 쭉 익산에서 살았지요. 집에 가면 돌을 잘라서 화분 받침대도

쪽 해놓고 자기자기하게 잘 해놨어요. 금요일 저녁에 익산에서 올라와서 집 앞에 온
실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꽃도 엄청 많이 가꿨지요. 옥상에단 화분에 고구마도 심
고, 배추도 심어 김장도 하셨던 그렇게 자상하고 가정적인 분이었죠. 그래도 만날
때마다 술을 같이 했지요. 형님이 천식끼가 있어 잘 견지도 못해요. 한 오십 미터쯤
가면 쉬어야 했어요. 그런대도 자꾸 잡수니깐 저렇게 될 밖예요. 요새 칠십이면 한
창 일할 나이예요.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 애깁니다. 제가 아무리 전할해도 안 받아서 참 이상하다 했어
요. 형수님께 여쭙면 어디 일하러 갔다, 볼일 보러 갔다라고 돌려 대곤 했어요. 그러
다 나중에서 "서방님 그게 아니고, 아파서 그래요, 사람을 잘 몰라봐요. 곧 깨어날 줄
알고 그랬는데 차일피일 하다보니 그리 되었다고……." 그러면서 와 보라고 해요.
아마 제가 가장 먼저 간거 같아요. 가보니 절 몰라봐요. 해서 왜 이렇게 두셨나고 하
니 처음부터 그랬다고 합디다.

홍정수와 이만홍

홍 정 수_ 자넨 실내에서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최고야. 실내 일은 아무나 잘 못해.
나는 밖에서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최곤데…….

이 만 홍_ 남한산성이나 창덕궁 담장 등등 형님이 하신 일들이 아직까지 하잔 없어
요. 그간 일하신게 하자가 있으면 문제지만 하자가 없으니까요. 익산은 해체만 해
논거니깐 복원이 안 되서 자랑할 거리는 아니라고 봐요. 뚜렷하게 자랑할 거도 없
고, 잘못된 것도 없는 게 더 좋은 거 같고. 단지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 구체적인 기
록이 없는게 좀…….

정리 | 협회 자문위원



“장인 중의 장인”이라는 세평(世評)을 받았던 홍정수 선생님이 타계하신 지도 꽤 되었습니다. 생전의 홍정수 선생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글도 여러 편 실게 되었지만, 우리 협회 안에서조차 <드잡이>는 생소하고 잘 모르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차제에 홍 선생님을 기리는 글과 함께 현재 각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드잡이들이 한데 모여 드잡이라는 일이 무엇인지 좀 쉽게 알려주고, 홍 선생님에 대한 개인적인 인연까지 함께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는 판단 아래 2011년 9월 22일 협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한창 바쁜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리를 같이 해주신 남궁치연, 이만홍, 주영재, 홍성표(가나다 순)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진행과 정리는 우리 협회 자문위원이 맡았습니다.



남궁치연

드잡이들이 들려주는 드잡이 이야기

남궁치연 · 이만홍 · 주영재 · 홍성표 (가나다 순)



이만홍

사회 _ 문화재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이들도 <드잡이>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고요. <드잡이>에 대한 뜻풀이부터 해보지요.

(홍) ▶ 이름의 뜻조차도 모르면서 이런 일을 하면 안되지요. 고인돌을 들어 올리거나, 집을 든다고 해서 <드>자를 놓고요, <잡>은 기둥이 빠뜨한 것을 수직으로 바로 잡는다고 해서 잡이란 글자를 놓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둘을 붙여 <드잡이>로 칭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78년도인가요, 당시 문화재관리국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봤는데, 그때도 신영훈박사, 황박사 등등 일급 분의 전문위원들이 하시는 말씀도 머릿자만 떼어서 정리한 거라는 얘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영재

사회 _ 그래도 저 역시 일의 실상을 잘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홍) ▶ 예를 들어 대명사찰의 기둥이 부식되어 동바리를 할려고 해도 들어 올려서 잡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84년도인가 강원도 양구의 제1호 지석묘가 담수가 되었어요, 겨울에 물이 빠지자 그걸 끌어 올렸습니다. 탑도 만지고, 다들 알다시피 덕수궁 대한문도 지붕을 벗기지 않고, 기둥도 손대지 않고 지금 자리로 옮겼잖아요, 그런 일들이 다들 드잡이 일이지요, 집을 옮길려면 사진으로 보듯이 우리가 구조 설치하는 것도 월간보가 이렇게 썼고, 보호대를 다 만들어 방틀을 짜가지고 합니다. 하방 안 상하게 보호대를 쓰고, 중방 안 상하게 보호대를 넣고, 밑에도 옆으로 가로된 나무를 대고서 짚을 든다거나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일을 하면 유동성이 너무 많지요, 우물정자를 촘촘히 해야만 좌나 우로 쓸림이 적습니다. 옛날에도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홍성표

사회 _ 일할 때 쓰는 장비는 어떤가요?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지요?

(주) ▶ 옛날에 비해 엄청 많이 개발되었지요. 이전에 집을 옮길려면 밑에 참나무 고로를 만들었는데요, 요새는 다들 파이프를 잘라서 씁니다. 그리고 홍선생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당길 때 전부 전기로 합니다. 220볼트를 380볼트로 현장에서 만들어 쓰는데요, 좀 쉽게 얘기하면 모터로 움직이는 랜치를 쓰는 겁니다. 일반모터는 2선이 들어가는데요, 3선이 들어가면 뒤로도 갈 수 있고, 앞으로도 갈 수 있죠. 탭을 만질 때도요, 옛날에는 주로 <가구라>라고요, 물체 무게에 따라 바를 두 손도 넣고, 네 손도 넣고, 여섯 손도 넣고 그런 원리로 해서 밑에서 사람이 돌리면서 올리고 그렇게 했어요, 요새는 첨단장비가 엄청 많지요.

(이) ▶ 바도 옛날에는 삼베를 그냥 꼬아서 감으면 몇 줄을 넣어도 끊어져요, 무게가 한 7-8톤 나가면요, 그래서 이것을 술에서 삶아 말려서 써야지 안 그러면 약해서 다 끊어져요.

(주) ▶ 삶기도 하지만 소금도 좀 넣지요? 그래야만 아무리 가물어도 약간 녹진한 게 질기지요.

사회 _ 홍정수 선생의 매형은 안압지에서, 형님은 아산 현충사에서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드잡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가요?

(남궁) ▶ 일을 하다보면 정말로 아찔아찔한 경우가 있어요, 무엇보다 서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해요, 한사람만 딴 생각해도, 또 손발이 안 맞으면 탈이 나고 사고가 나요, 안압지 사고현장에 저도 같이 있었어요, 돌도 조그만 해요, 한 1톤 정도 밖에 안 되보였어요, 사실 10톤 정도도 쉽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알봤는지도 모르죠, 딸딸이로 개조한 경운기에서 딱 잘 들어 올렸으면 되는데, 돌을 끌다보니 중심이 맞지 않아 그냥 돌이 똑 떨어져 내리치니깐 김선생 허리에 맞았고, 대구 파티마병원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셨지요, 제가 구인사 조사전 공사를 할 때요, 아찔한 경우가 있었죠, 한사람이 신호만 조금 잘못해도 사람이 상할 수 있거든요.

(주) ▶ 컨디션(본인은 조시라고 표현)만 안 맞아도 안 되요.

(홍) ▶ 오죽하면 모자에 땀 털을 쫓는 이유가 뭡니까?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땀이 정신이 보통 예민한게 아니거든요, 목공, 석공 어느 분야든 다 위험하고 안전이 제일이지만 드잡이는 더 위험하지요, 목공이나 석공일은 하다가 망가지면 다시 교체하고 보충하면 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탭을 해체복원하다가도 깨져버리면 모든 게 요절나는 겁니다. 재산도 날라가고 제 목도 날라가고요.

사회 _ 일머리는 어떻게 익혔습니까? 옛날 스승들은 잘 가르쳐주지도 않았을테고요.

(이) ▶ 스승에게 배우는 것도 있겠으나 잘 가르쳐주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머리로 깨우쳐야 하니깐 스승이 하는걸 보면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이런 건 이렇게 하고, 저런 건 저렇게 했다고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좀 더 연구해서 발전시키면 되지요. 탑이야 3층이든 5층이든 다들 그만그만 하지만, 드잡이 일이라는게 다양하잖아요? 해서 현장에 딱 가보면 일에 맞는 연장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머릿속에서부터 공사를 다해야 합니다.

(주) ▶ 일을 어떻게 처리할거라는 방도도 입력이 순간적으로 돼야지, 이리 할까 저리 할까하고 머뭇거리면 머리가 복잡해져서 안되요. 막바로 몇 초 안에 다 나와야 합니다.

(남궁) ▶ 김천석선생도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 정규교육도 받지 않은 분이예요. 우리는 현장에 가면 자로 딱 재지만 그 분은 그런 게 없어요. 걸어가면 그게 얼마인지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와요. 그렇지만 그분도 일은 이렇게 한다 저건 저렇게 해라라고 가르쳐주진 않았지요. 각자 보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판단해야 합니다.

(홍) ▶ 어느 현장을 가던 직감이 정확하고 중요해야 해요. 보는 눈과 판단력이 정확해야 해요. 석질은 어떻게, 부식과 마모 정도가 심하니 뭘 방책을 해야 좋을지 바로 알아야 해요. 판단력이 정확하고 빨라야지 느리면 자칫 실수를 합니다. 지형파악도 바로 해야 하고요. 작업하러 들어갈 때 진입로가 굽어서 좁다면 몇 톤밖에 못들어간다는 걸 대번에 알아야 해요. 자기가 일머리를 잘 알아도 현장에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동료들과도 의논하고, 저녁이 되면 내일 할 일도 상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제일이 됩니다. 일을 하다보면 심보가 나쁜 사람들도 꼭 끼게 마련이잖아요? 먹는 것도 타박하니 그런 것까지도 다 잘 챙겨줘야 하지요. 또 판단이 시원찮으면 현장답사를 몇 번이나 해도 소용도 없고요.

사회 _ 돌 얘기 좀 해볼까요? 지역별로 돌의 특성이 다 다르다고도 하고, 일을 할 때도 상태에 따라 보호대책을 세우는 것도 다를 것이고요.

(남궁) ▶ 옛날에는 지금처럼 돌 운반이 쉽지 않아 대개 그 지방 돌을 많이 썼지요. 익산 돌은 철분이 좀 적고, 탑을 하는 돌은 세석이나 강화 애석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조사전 기단도 전부 애석으로 했고요.

(이) ▶ 옛날 어른들은 부실한 돌로 탑은 안 세운 것 같아요. 단단하고 좋은 돌을 쓴 것 같더라고요. 좀 무른 돌로는 동자상이니 좀 가벼운 걸 깎았고, 제일 무른돌은 전라도 흑산도쪽 돌 같아요. 그 돌로 동자상을 깎아놓으면 대나무 뿌리가 돌 사이로 막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뿌리를 잡아 뽑으면 돌이 툭툭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리고 한 5년전에 경기도 양지에 있는 세종돌박물관에 있던 석물 한 2만여 점을 에버랜드로 옮겼어요. 각도별로 돌을 모아 놓은걸 다 보았고, 거기서 부실한 돌 단단한 돌도 볼 수 있었어요. 경북궁에 있던 석물들을 용산박물관으로 이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박물관 야외석탑 역시 마모와 부식이 많이 되었기에 제가 들어간데는 들어간 그대로 흠을 파고 해서 나무 틀을 짜가지고 다 들어 올린 겁니다.

(홍) ▶ 양구 고인돌 작업을 할 때요, 구석기시대 돌이다 보니깐 돌이 짹짹 다 갈라졌어요. 그놈을 광목으로 싸고, 다음에 마대로 싸고, 또 가마니로 또 썼지요. 그리고 나무를 대고 지렛대로 붙여놓고, 바를 다 매고서…… 유동성이 없게 하기 위해서요.

사회 _ 경주 남산에 열암곡 마애불이라고요, 유홍준 전청장이 이 마애불을 바로 세울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아직도 세우지 못했지요. 그 바위가 한 80-90톤쯤 돼서 당시에는 시누크 헬기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했거든요.

(주) ▶ 제가 볼 땐 아마 몽골이나 다른 외세의 침략 때문에 훼손된 것 같아요. 천둥벼락을 맞아서 엷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 제가 그 일을 할려고 작년에 시물레이션을 전부 만들었어요. 절대로 실수가 없겠다고 하고, 문화재연구소와도 협의를 좀 했는데 혹시 잘못되면 자기를 책임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요새는 건물을 해체복원 할 때 위에 철골로 지붕을 다 잇잖아요. 그래서 그 바위를 공중으로 한 5미터에서 7~8미터 정도 들어 올리지요. 밑에는 굵은 굴렛대를 놓고요. 거기에다 살며시 놓으면 45도로 자동으로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책으로도 만들었는데요, 48주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틀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밀고 당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문화재청에 제출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 ▶ 저도 일찍 가서 봤습니다. 사실 어려운 작업이에요. 능선의 경사도 급하고 해서 함부로 잘못하면 밀려 내려옵니다. 그러니 윗 능선 너머에다 앵커를 물어야 해요. 일단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체인블록을 여러 개 걸고, 그 자리에서 일단 뒤집어서 작업을 해야 할 겁니다.

(주) ▶ 위에서 땡기는 건 기본인데요, 힘이 밑으로 쏠리지 않도록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양쪽 옆의 지반도 약합니다. 해서 양쪽을 전부 파고 쪽 돌아가면서 석

회 회다짐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틀을 짜서 일단 바위를 들면 그 속에도 회다짐을 하고요, 그래서 놓으면 자동으로 서도록 해야 할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마애불 양쪽에 기둥을 여러 개 세우고요, 요새 크레인에서 쓰는 납작한 바가 있는데요, 그게 한 50 ~ 60톤 들어 올릴 겁니다. 그걸 한 열 줄만 집어 넣으면 마애불이 상할 이유도 없어요.

(홍) ▶ 현재 기계로 세운다면 가능할 겁니다. 옛날 공법으로 한다면, 거중기로 한다면 능선 너머에 무지하게 장치를 해야 할 거고요.

(*) 참석하신 네 분의 발언이 계속 이어져 이 정도 선에서 정리했습니다. 네 분이 한 팀이 되어 현장을 둘러보고, 함께 기술적 방도를 찾고, 또 공동작업을 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참고했으면 합니다.

사회 _ 순서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홍정수 선생과의 개인적 인연도 좀 밝혀주시죠.

(남궁) ▶ 저는 홍선생과는 직접 일을 같이 한 적은 없어요. 홍선생의 매형은 김천석 선생과는 연이 좀 있었지요. 76년도인가 나주향교 일할 때 같이 했고, 충주 임경업 장군 사당 일도 같이 했었지요. 그런 다음 김선생은 안압지 일을 하셨는데 사고를 당할 때 제가 옆에서 봤어요.

(이) ▶ 저도 형님 동생하면서 지내긴 했지만 일은 같이 안했어요.(다른분 얘기로는 같이 일을 했다고도 합니다) 거구에다 키도 크고 약주를 좋아 하셔서 술자리는 자주 했지요. 술자리서 “형님, 이런 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쭙면 “야, 그건 이렇게 이렇게 해. 그렇게 하면 더 좋아.”라고 말씀도 해주시곤 했습니다. 제가 용산박물관으로 석탑 옮겨다 놓고서 홍선생님 내외분을 모시고 꼭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유산상을 받으신 날, 제가 옮긴 어차도 보여드렸지요. 사실 그 어차는 독립기념관 개관할 때 그곳에서 전시했는데 그때도 제가 옮겼지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고서 문병을 갈려고 했었는데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당신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 얼마 후 병원을 찾았더니 그땐 병세가 나빠서 절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후쯤 세상을 떠났지요. 선생의 핸드폰을 열어보니 사모님과 저 전화번호만이 단축번호로 입력되어 있더라고요.

(주) ▶ 지난해 겨울에 제가 경주에서 한 20여일 일을 같이 했어요. 윤만걸 사장과 그때 석가탑을 할 때입니다. 피바를 사왔는데요, 그 어른이 그건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불 땀 고를 한 열 개 정도 넣으면 될성 싶었거든요. 해보니 바가 굵어서 도

르레에 안들어 가더라고요. 첫 번째 탑신 무게가 한 10톤 되었어요. 여덟 고를 넣었는데도 들어 올리니까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위험하거든요. 해서 하얀 나일론 바를 새로 사와 그걸 새로 설치하고, 열 코를 넣어 들어보니 10톤짜리 돌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탑 두껍하고 탑신하고 그분이 진두지휘해서 일을 다 했지요. 그 일은 문화재청에서 실험용으로 지원해준 일이지요. 그때 선생은 딴사람은 안 찾고 저만 불러요. 제가 선생님 꼬봉이었지요. 내가 안 오면…… 그렇게 경주에 있으면서 저도 연습도 많이 했어요. 배우는 거에 앞서 선배님이시고 연상이시고, 또 어느 정도 위치에 계신 분을 대접 해 드리는건 당연한 도리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땐 탑에 대해서는 홍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는 <별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 사실 홍선생은 경주 일을 하고나서 병이 나기 시작했어요. 절 보고선 “야, 너를 안 부르고 날 불러 이렇게 고생을 시키더라. 추워서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 라고 하면서 고생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길로 계속 아파서 돌아가신 겁니다.

(홍) ▶ 그때 경주에서 일 하는걸 보니깐 우리 성격하고 안 맞는게 있어요. 드잡이 책임자 역할을 할려면 담대하면서도 마음이 누그러져야 해요. 급하게 서둘면 위험하지요. 그 양반 성질이 보통 급한게 아니요, 현장에서 급하게 하면…….

(주) ▶ 하지만 그런 분은 또 그렇게 같이 대우를 해 줘야지요.

사회 _ 지난 7월 윤홍로선생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시면서 드잡이와 미장은 문화재쪽에서 소외된 분야라고 하면서 소위 인간문화재로 지정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처럼 만났으니 관계당국에 제도나 정책이 보강되었으면 하는 말씀도 하시죠.

(홍) ▶ 문화재청에서 발주하는 보수나 신축공사 내역서에는 드잡이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기둥 하나가 열두 자에 자두치, 자반을 쓴다면 하중이 있잖아요. 그런 건 목수 목도가 안 됩니다. 드잡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드잡이 일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요즘 현장에서는 드잡이가 완전 무시되고 있지요.

(주) ▶ 드잡이라는 역사가 언제부터 형성되었을까요? 고인돌을 보면 그때 드잡이로서 일을 했지 목수나 석공이 하지 않았습니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가 부족사회를 형성하면서부터 드잡이가 있었던 겁니다. 역사적 깊이만 해도 목수나 석공에 비해 3-4배 더 깊은데 가장 홀대받는 것 같아요. 요새는 뒷집 강아지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문화재청도 생각을 좀 달리 해줬으면 합니다.

(남궁) ▶ 인간문화재 지정은 차치하고요. 적어도 문화재청 일을 할 때는요, 소운반

이 설계내역에 드잡이 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끼리 얘기해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야만 이 일을 드잡이가 해야 하는구나 하는 인식이 들지요. 알다시피 요새는 드잡이가 할 일을 목수나 석공들이 다 하잖아요.

(홍) ▶ 양구 지석묘 애길 좀 하면 얼마 전에 양구에 다시 갔었는데, 일은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한 걸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 지방에 가서 일을 하다보면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드잡이는 쏙 빼고 그런 게 많아요. 기록은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간담회가 끝날 무렵 윤만걸 사장이 자리를 같이 했기에 애길 좀 더 듣기로 했습니다.

(윤) ▶ 홍선생님과 인간적으로 각별한 연은 없습니다. 인간문화재 지정 때문에 다들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드잡이 일은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팀이 하는 일로 알고 있거든요. 해서 집이나 탑 일을 손대게 되면 한 팀이 되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줘야 하는데요. 한 두 사람이 리드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직종 같고 해서 다른 종목처럼 한 두 분만 지정받는 것보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 한 팀으로 지정을 받아야 전승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탑을 주로 하다보니까 일을 하면 7-8명이 팀으로 움직이는데요, 한 두 명만 빠져도 작업이 안 되잖아요. 새로 들어온 조공은 사인도 잘 모르고요, 그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여기 네 분처럼 개개인의 기능을 하나로 딱 접합시켜 전통을 찾아 맥을 잇고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승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각자 가진 기술은 옛날 것도 있지만 새로운 걸 접목시켜 하니까 나중엔 어떤 게 전통인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해서 문화재청에서 지정할 의지가 있다면 한 팀으로 묶어서 지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별로 하면 전통기술이 새 기술과 접목되면서 변형될 수도 있을 거고요. 성곽석축, 한옥, 탑 등등 분야별로 가지를 잘 치면 별문제도 없거든요.

중국에서 우리 문화를 생각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20호
석장 이 재 순

2011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11월 4일 아침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상해, 오진, 항주, 소주, 주장등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유난히 길었던 여름장마 때문에 그런지 당초예상과 달리 답사기간 중에 바쁜 회원들이 많아서 참여도가 좀 낮았던게 아쉬웠습니다.

2012년도는 보다 내실있는 탐방이 될 수 있도록 탐방지역과 시기결정에 여러 회원님들의 지혜를 많이 모으겠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이 글을 통해 그 때의 감동과 추억을 되살리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하신 회원님들은 간접탐방을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중국의 베네치아 - 오진(烏鎮)

절강성 동향시에 위치한 오진은 중국의 베네치아라고 불립니다. 1,300여년 역사의 물의 도시, 수상 도시답게 옛 마을이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박제된 옛 도시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볼 수 있어 이색적이기도 했고 유익했습니다. 잘 만들어진 홍예다리는 단순하지만 무거워 보이지 않아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입구의 석문 또한 웅장하면서도 아기자기한 조각들을 가득 채워넣은 입구의 석문도 눈길을 오랫동안 끌었습니다. 바닷돌을 잘 깔아놓은 마을길에서도 동방문명의 독특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다산과 장수, 복과 재물을 기원하는 포도나 박쥐문양, 또 불법을 수호하는 사자문양과 같은 여러 조각문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해, 항주, 남경 3개 대도시의 교차점에 위치한 오진은 중국의 전통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었던 그런 고도였습니다.



현대와 전통이 만난 문화콘텐츠 - 인상서호(印象西湖)

잘 아시다시피 서호는 항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그간 여러 방송을 통해 볼 수 있었던 장예모 감독의 인상서호를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4대 전설의 하나인 백사전(白蛇傳) 이야기를 주제로 만남, 사랑, 이별, 추억, 인상 등 5부로 짜여진 공연이었습니다. 어두운 밤 현란한 조명과 물 위에서 펼쳐지는 배우들의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무대, 대사없이 느리지만 아름다운 음악에다 서호의 아름다운 경관이 공연재미를 더 해주었습니다. 현대적 감각과 전통문화의 만남이 창조해낸 수준높은 문화콘텐츠에 깜짝 놀랐습니다.



고대석굴예술 - 항주 영은사(靈隱寺)

항주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영은사는 비래봉(飛來峰) 옆에 있습니다. 신통력 높은



한 스님 덕분에 마을사람도 구하고 산이 날아와 바위가 되었다는 비래봉. 이 비래봉에는 10-14세기경 만들어진 330여개의 석굴조각품을 볼 수 있습니다. 산을 따라 조각되어 있는 이 작품은 그 시대의 시대성을 잘 나타내면서도 석회석이란 재질을 잘 이용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장엄하게 산 전체에 잘 배치되어 있는 모습에서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돌아볼 수 없어 아쉬웠지만 영은사에서 내려오는 길이 계곡쪽 바위에 한분한분 조각해놓은 장인의 숨씨가 존경스러웠고, 그 당시 불교 전파와 포교활동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석탑은 우리나라 원각사지석탑이나 국립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탑들과 모양과 형태가 유사해서 낯설지 않고 친근했습니다.

중국 목조건축의 걸작 - 육화탑(六和塔)

중국 건축계의 거장인 유호(喻皓)가 목경삼수(木經三首)를 근거로 설계했다고 합니다. 육화탑은 외부에서 볼 때는 13층의 목구조이나 내부는 7층, 높이는 59.89미터입니다. 넓고 좁은 229개의 나선형 계단을 오르니 꼭대기까지 갈 수 있었고, 눈앞에는 전담강과 아름다운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담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탑을 세우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걸작답게 중국당국은 이 육화탑을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했습니다.

중국의 피사탑 - 호구탑(虎丘塔)



수나라 때 세워진 탑입니다. 40미터 높이의 언덕 정상에 있어 소주에서 눈에 가장 쉽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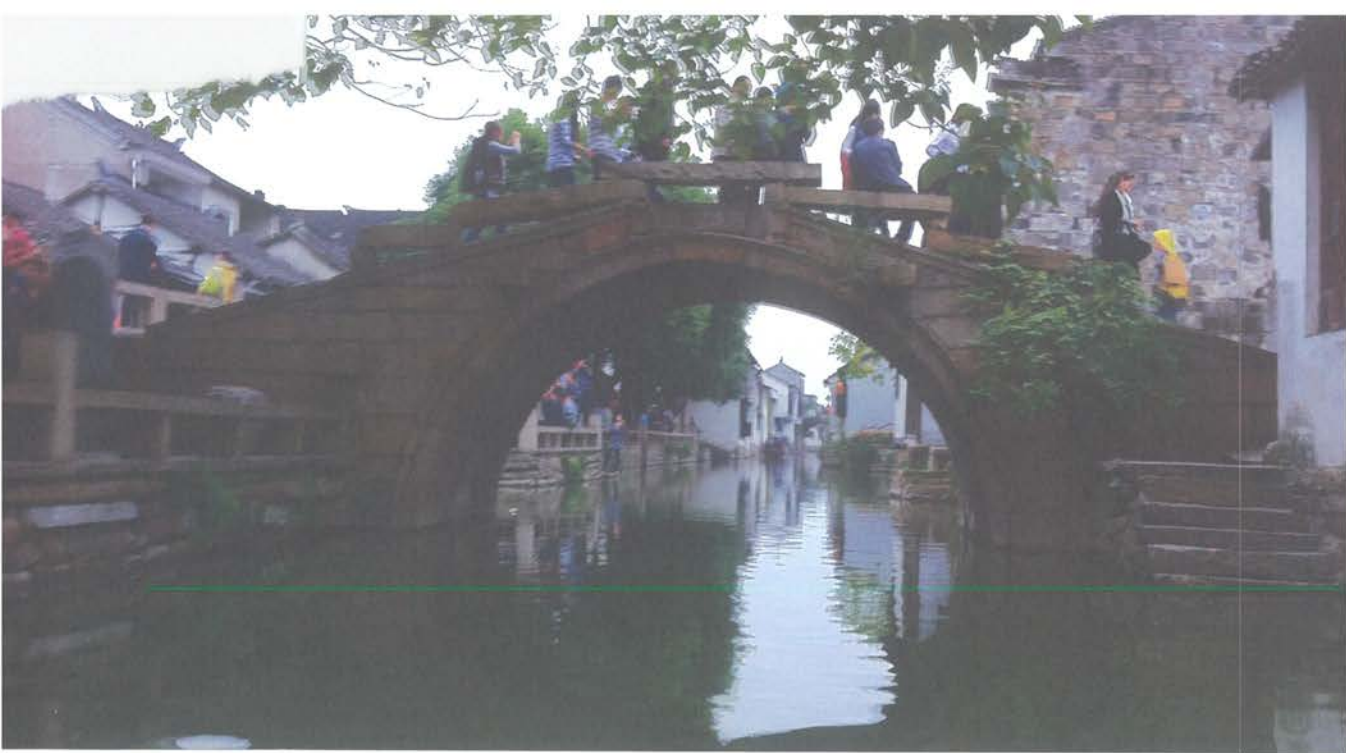
띄는 화려하고 웅장한 탑입니다. 몇차례의 보수공사에도 불구하고 북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호구탑 밑에 합려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는데 무덤이 탑을 지탱하기 힘들어 지반침하가 일어나 탑이 기울고 있다고 합니다. 전탑이면서 곳곳에 아기자기한 문양을 조각해놓은 것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검은 돌을 자른다는 중국인들의 전설같은 이야기 처럼 검은 돌로 자른듯한 시검석이 입구 곳곳에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내부를 볼 수 없었던게 아쉬웠습니다.

중국 4대정원의 하나 - 줄정원(拙政園)



명나라 때 왕헌신이 조성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 4대정원의 하나로 불릴만큼 아름답게 조성된 개인정원입니다. 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총면적의 3/5는 연못이 차지합니다. 가이드에 따르면 산, 나무, 정자, 물 4가지를 갖추어야만 완벽한 중국정원이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줄정원 역시 연못위에 회랑을 연결시켜 거닐면서 정원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호석이라 불리는 기암괴석을 조화롭게 잘 꾸며놓기도 했고, 작은 자연석을 쌓아올린 석가산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중국부자들이 돌을 좋아했다는 말이 이해가 갑니다. 견산루와 파사랑, 원향당과 같은 고건물들은 창살무늬를 다르게 해 문양의 다양성과 섬세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운하의 도시 - 주장(周莊)

“중국 산천의 아름다움은 황산에 모여있고, 수향(水鄉)의 아름다움은 주장에 모여있다.”는 말처럼, 중국을 대표하는 수향을 꼽으라면 당연히 주장이 꼽힐만큼 아름다운 운하도시로 유명합니다. 뱃놀이가 유명하다기에 일단 주장을 한바퀴 돌면서 마을 운치를 흠뻑 느껴했습니다. 현대화의 물결이 닿지않은 마을은 깨끗하게 잘 정돈된 인상을 주었고, 마을사람들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직접 세공하고 조각도 하는 장인들의 가게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같은 장인들이라 그런지 우리 회원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석조공예인의 입문과 미래

석조각 1417호
김 동 철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나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단지 입하나 덜기 위해, 기술하나 배워보겠다는 일념으로, 이웃집 형, 집안친척, 옆동네 아는 사람 등등의 연줄로……, 직업이란 개념도 의식도 없던 어린시절, 석공일이 적성에 맞는지도 모른 채 석재 산지에서 도심 변두리에서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식주 해결해주고 용돈과 명절에 고향에 보내주는 그런 시간을 2~3년 보내면서 기본기능을 몸으로 배우고 익히면서 그렇게 석공예 기능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제자생활이 끝날 즈음, 스승님께서 연장 한 벌 장만해주시면 이를 애지중지하며 내 손으로 벌어 먹고사는 직업인으로서 석공예인의 발길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지독한 가난 때문에, 단지 먹고 살기위해 그 길에 들어섰던 석공예인들은 이제 50을 넘어 6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터를 떠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걱정을 하는 황혼의 길목에 서있는 것입니다. 석공예는 3D 업종이라 배울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 35년간 배우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제천공고, 광업진흥공사, 부산공예고 등지에서 극소수의 석공예인을 배출하면서 명맥을 이어왔지만 이마저도 모두 없어져 공공기관에서 배출되는 석공예인은 전무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석재문화의 맥을 잇고 이를 발전시키면서 실행방법을 찾는 막중한 책임 또한 우리 석공예인들이 안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능만으로 석조공예를 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미술이 시대를 대변하고 전통은 뒷전에 가려져 있습니다. 석재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공을 통해 이론과 실기를 익히고,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석조공예인들은 선후배가 밀고 당기며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 속에서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새로 입문하는 젊은 후진들을 정성을 다해 가르쳐 좋은 재목으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교육기관이 석재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석재계의 힘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후진양성을 통해 석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석조공예의 전공과정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석조공예인

들은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후대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석조공예인으로 거듭
나야 할 것이다.

【일반인 대상 무료 '전통문화체험강좌'】

우리 주거문화의 꽃 구들(온돌)

한식미장 제4669호

유 중

I. 우리 주거문화의 꽃 구들(온돌)문화교육의 필요성



황토는 우리민족의 정서적 감흥에 가장 잘 부합되는 색깔과 느낌, 효용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민족의 삶에 흙은 고향과 같은 의미를 지녀 왔다. 근년에 들어와 황토바람이 불면서 황토찜질방, 황토아파트, 황토 집, 황토침대 등이 등

장하여 황토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황토에 대한 평가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다가 웰빙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황토에 대한 평가가 다시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전통문화는 우리 글과 생활 속 의식주에 배어 있다. 의는 한복으로 오늘날에 다시 살아나고 있으며, 식은 한식의 꽃인 김치로 이미 살아나 중주국의 면모를 굳건히 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주에서만은 양반주거인 한옥과 서민주거인 초가흙집은 세계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주거문화는 자연과 인간 안과 밖이 서로 소통하며 어울리는 조화롭고 한국적인 삶을 반영한 한국식 가옥을 일컫는다. 건축자재 역시 나무와 황토, 흙, 벚짚, 돌 등 자연에서 얻은 그대로의 가공되지 않은 재료들로, 인공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새집 증후군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친환경적 소재를 이용한 우리주거 양식은 찾아보기 힘든 존재가 돼 버렸다.

특히 우리 전통주거문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구들(온돌)은 가장 원초적인 문화유산이면서도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그다지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구들(온돌)만큼 우리 민족생활양식에 큰 영향을 준 문화유산이 아마 없을 것이다. 구들(온돌)의 힘은 “오래도록 열을 보관하여 지속적인 난방”을 하는데 있다. 이러한 구들(온돌)의 전승은 그만큼 구들(온돌)이 뛰어난 발명품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오랜 세월동안 우리의 삶과 함께한 구들(온돌)은 우리에게 펄펄 끓는 아랫목으로 산모가 몸을 푸는 곳이자, 추운 겨울날 할머니의 입을 통하여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입을 통하여 자식에게 대를 이어가면서 구전의 역사가 펼쳐졌던 “쓰이지 아



니한 역사"가 서술되던 "구슬문화" 현장이다. 또한 사람이 운명을 다할 때 자손들의 손을 마지막으로 쥐던 곳이기도 하다. 결국 구들(온돌)은 "우리민족의 탯자리"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구들(온돌)의 문화상징화는 우리들의 영원한 탯자리를 부활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Ⅱ. 우리 주거문화의 꽃 구들(온돌)문화 교육의 목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전통구들문화체험강좌"는 아래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1. 우리 선조들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우리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2. 황토를 이용한 각종체험활동 및 우리 주거문화의 중요성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통주거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3. 간단한 구들의 용어를 습득하고 직접 축조 해봄으로써 구들의 원리를 이해한다.
4. 완성된 구들을 직접 시연해 봄으로써 성취감과 전통구들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한다.
5. 세계에서 유일한 난방방식인 우리의 구들을 이해하고 선조들의 위대한 발명을 기억하도록 한다.
6. 전통 주거형태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면서 전통구들을 설치한 황토방이나 친환경주택으로 황토흙집, 한옥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전통주거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전통주거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Ⅲ. 우리 주거문화의 꽃 구들(온돌)문화 교육내용 개요

- 강 좌 명: 전통문화체험강좌(우리주거문화의 꽃 “선통구들”)
- 일 정: 매년 1~2회
- 장 소: 경북 상주시 공검면 부곡리 210-12
- 속 : 전통구들 농기의 기초이론 및 시공 전 과정
- 참가자격: 전통구들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 주 최: 유민구들흙건축/구들흙집교육원
- 공동주최: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토수분과회, 사)국제온돌학회
- 홈페이지: www.umin9204.com
- E-mail: umin9204@naver.com
- 문의전화: 080-541-9204
- 휴대전화: 011-576-5526

Ⅳ. 우리 주거문화의 꽃 구들(온돌)문화 교육내용



■ 1일차

○ 이론강의 및 토의

-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 우리 주거건축의 역사와 전통구들과 마루의 만남
- 구들의 개요, 구들시방서, 구들과 온돌관련 법규와 조례,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점, 정책전망, 설계, 도면의 이해
- 구들의 종류와 구조
- 흙 건축과 구들
- 친환경 흙집의 이해
- 내손으로 황토방 짓기
- 내손으로 구들농기

■ 2~3일차

○ 이론강의 및 실습 토의

- 황토주택 견학
- 지역주거문화재 견학
- 황토흙집 해체
- 주거건축의 기초와 방법
- 주거건축용 황토
- 건축용 흙의 구입요령 및 사용법
- 흙의 배합법
- 흙건축의 종류
- 구조벽체의 구성방법
- 창호의 종류와 시공법



■ 4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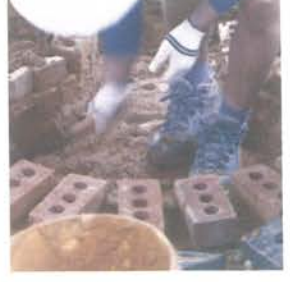
○ 이론강의 및 실습 토의



- 벽체마감과 천정 만들기
- 주거건축의 용어 이해
- 전기배선
- 지붕의 종류와 마감자재
- 목재의 품종과 자재 선택
- 친환경주택의 단열과 문제점
- 업자선정, 자재구매, 하자관리, 인허가 관련

■ 5일차

○ 이론강의 및 실습 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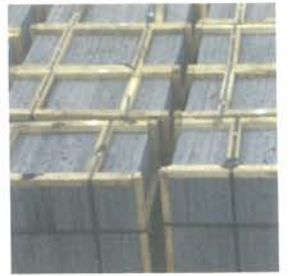


- 구들의 용어와 용어 이해
- 구들과 현대온돌의 발전과정
- 구들의 장점과 단점
- 전통구들 해체
- 방고래의 종별 이해
- 고래켜기의 준비과정
- 고막이와 시근담 현대기초와의 시공법
- 부뚜막아궁이와 함실아궁이의 차이점과 장단점
- 구들개자리, 고래개자리의 축조법과 기능
- 구들장의 종류와 선택방법
- 고임들의 종류와 선택방법

■ 6일차

○ 이론강의 및 실습 토의 수료

- 고래바닥의 구성
- 시근담 고막이의 축조 및 중요성
- 방고래의 종별 및 형태 구성방법
- 고래둑, 꿇돌, 뽕돌, 고래구멍, 고래, 부넝기, 바람막이, 역풍 등 용어 습득 및 실습
- 거미줄치기, 사춤치기, 사춤돌 등 용어 습득 및 실습
- 연도의 위치와 축열과의 관계





- 굴뚝개자리의 중요성
- 소제구의 필요성
- 굴뚝의 종류와 위치 바람의 관계
- 부토헌기, 초새 용어습득 및 실습
- 미장방법 및 흙 배합법 (초별, 중별, 정별)
- 미장마감 후 바닥 길들이기
- 장판바르기(초배, 마감)
- 룡담 들이기와 만들기
- 구들의 유지보수
- 교육과정 총정리
- 질의응답
- 수료

V. 우리 주거문화의 꽃 구들(온돌)문화 교육의 지속성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결코 과거와 무관할 수 없다. 지난 과거는 우리에게 현재를 있게 했으며,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슬기로운 지식의 보고인 셈이다. 따라서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자연친화적인 구들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구들의 개념과 원리를 실증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교육의 효과성을 감안할 때, 이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희망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들을 널리 알려 우리 선조들의 과학적이고 건강한 구들문화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가운데, 본 교육사례도 널리 홍보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앞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재보다 더 다양한 구들체험 및 주거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주거문화, 즉 친환경적인 우리 전통구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화재 표준 품셈 개정 세미나 및 현장실사, 시연에 참여하면서

문화재 품셈이 1974년 제정 된지 (37년), 부분개정 1968년~98년 (14년) 된 이래 2011년 (14년)만에 1차 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1차 개정 이후 1년 만인 2012년 3월, 2차 개정결과가 발표되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품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만큼 작업자들에게 정확한 품이 적용되어,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기능인들의 삶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문화재를 보존하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며 전통기능 직종을 지원하는 젊은 후진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협회 부회장
임 동 조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문화재청과 한국건축문화연구소에서 품셈개정 실사, 실연조사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업에 종사하는 여러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미흡했던 것은 아니었던가 조금 자성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1년 10월 25일, 문화재청이 한국건축문화연구소에 발주한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정비용역 제6차 마지막 최종보고회에서는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정비용역 추진현황과 2차 개정(안) 결과치에 대하여 장시간에 걸친 토론이 있었습니다. ①조사대상 부적격성 부분 ②조사내용 누락분 ③현장사정에 맞지 않는 조사 결과물에 이의를 제기하고 토론장에서 문화재청과 한국건축문화연구소에 실사, 실연 재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기능인들의 의사가 반영된 조사값이 발표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대한건설협회에서는 1년에 상하반기 두번, 4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임금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현장에서 지급되는 실제임금이 신고되고 임금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시중노임이 현실화 될 것입니다.(문화재 보수공사계획 설계시 (예) 표준품셈×시중노임단가=직종별공사대금) 앞으로 대한건설협회 임금실태조사 대상자인 종합건설 및 문화재수리협회와 문화재기능인협회는 현실적인 임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능인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의 기능인들이 한마음으로 뭉치고, 후진양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어렵고 힘든 품셈 개정작업을 위해 오랜동안 수고하고 계시는 문화재청의 여러 관계관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奉先寺「三身佛掛佛圖」 연구



문화재기능 화공 4957호
이 문 희

- ① 비로자나불
- ② 노사나불
- ③ 석가모니불
- ④ 문수보살
- ⑤ 보현보살
- ⑥ 법혜보살
- ⑦ 공덕림보살
- ⑧ 금강당보살
- ⑨ 금강장보살
- ⑩ 가섭존자
- ⑪ 아난존자
- ⑫ 사리불존자
- ⑬ 수보리존자
- ⑭ 부루나존자
- ⑮ 목견련존자
- ⑯ 아나율존자
- ⑰ 가전연존자
- ⑱ 우바리존자
- ⑲ 라후라존자
- ⑳ 제석천왕
- ㉑ 대병천왕
- ㉒ 정반왕
- ㉓ 마야부인
- ㉔ 용왕
- ㉕ 용녀
- ㉖ 주악천인들

도1 | 봉선사 「삼신불괘불도」의 도상, 1735년, 805×459cm

I. 머리말

괘불도는 의식불교가 성행한 조선 후기 불교신앙을 배경으로 제작되었다. 억불 숭유라는 정치적 탄압 속에서 불교계는 '儀式'을 통해 새로운 신도층을 흡수하게 되었으며 특히, 임란과 병자호란 이후 고향을 천도하는 '遷度儀式'위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듯 의식을 지향하는 불교신앙의 성격과 의식을 통해 사회적 입지를 회복해가는 상황으로부터 괘불도가 조성 될 수 있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겠다.

괘불도의 크기는 작게 5m내외, 크게는 10m 이상까지 거대한 규모를 갖고 있으며, 화면에 표현된 어마어마한 크기의 도상, 현란하고 화려한 색채, 힘찬 필선의 대담함, 섬세한 문양의 아름다운 표현 등은 한마디로 경이로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하여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이미지는 종교회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내었으며, 불교도 뿐만 아니라 타 종교인들의 심금까지도 움직인 최고의 회화작품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웅장하고 뛰어난 괘불화 중에서도 경기도 남양주시 봉선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삼신불괘불도」는 法身 毘盧舍那佛, 報身 盧舍那佛, 化身 釋迦牟尼佛 세 분을 한 화면에 그린 형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삼신불괘불도는 三世佛圖에 비하면 그 예가 많지 않아 그 가치가 크다. 이 봉선사 「삼신불괘불도」에 대하여 도상 및 양식적 특징, 그리고 불교회화사적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봉선사 「삼신불괘불도」의 도상 및 양식적 특징

1. 봉선사 연혁

봉선사는 남양주의 운악산 아래에 자리한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이며 절과 이웃한 곳에 있는 조선 제7대 임금 세조와 왕비를 모신 광릉의 陵寢寺刹이다. 절의 창건은 고려시대인 969년 法印國師 坦文이 하였으며 1469년 세조의 승하 후 정희왕후에 의해 능침사찰로 지정되며 89칸으로 중창하고 봉선사라 하였다. 이후 1551년에 선교양종의 首寺刹로 지정되어 전국의 승려 및 신도에 대한 교학진흥의 중추적인 기관이 되었으며, 일제시기도 31본산의 하나로 지정되어 교학진흥의 주역을 담당하였고, 1926년에는 주지로 있던 月初和尚에 의해 동국대학교의 전신이 되는 명진학교를 설립하였다. 이후 雲虛, 月雲스님의 노력으로 불교교화와 역경사업에 헌신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또한 1952년 지은 삼성각을 제외한 모든 건물은 6.25때 완전히 소실되었으며, 지금의 전각들은 모두 그 이후에 새로 지어진 것이다.

2. 도상

봉선사 「삼신불괘불도」(도1, 1735년)는 화엄종의 主尊佛인 비로자나불이 화엄교리를 설법하고 있는 蓮華藏世界를 나타낸 것으로 보신 노사나불과 화신 석가모니불이 법신 비로자나불을 협시 하고 기타 성증들이 설법을 청하여 듣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봉선사 괘불도의 구도는 上·下 2단으로 상단에는 聽聞衆을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삼신불을 크게 묘사하였다. 가슴 앞에서 두 손을 모아 智拳印¹⁾을 짓고 있는 중앙의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왼쪽(向右)에는 두 손을 어깨까지 좌우로 벌려 설법인을 지은 보살 모습의 노사나불이 자리하고 있고, 오른쪽(向左)에는 항마촉지인이 아닌 엄지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맞댄 이른바 아미타구품인의 하나인 하품중생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석가모니불이 화면 가득 배치되어 있는 立像의 삼신불이 나란히 그려져 있다.

조선시대 괘불도 중 이와 유사한 立像의 삼신불도에 해당하는 작품은 2009년 보존처리 시 그림배면의 배접지를 제거하는 과정 중 부처님 법을 따르기 위하여 지켜야 할 금지 행위를 알리는 일종의 '榜'성격의 별지 墨書銘이 첨부되어 1690년이라는 추정연대가 밝혀진 흥천 수타사 삼신불괘불도(도2, 1690년)가 최초의 立像삼신불이며, 1739년 서울 학림사 삼신불괘불도(도3, 1739년)가 있다. 도상의 배치는 같으나 석가모니불이 菩薩形으로 표현된 삼신불괘불도는 서울 청룡사 소장 원통사 삼신불괘불도(도4, 1806년), 서울 천축사 삼신불괘불도(도5, 1856년)가 있고 삼신불이 모두 佛形으로 표현된 서울 흥천사 삼신불괘불도(도6, 1832년)와 서울 백련사 삼신불괘불도(도7, 1868년)가 있다.

삼신불괘불도 중에서 봉선사 괘불도와 형식적으로 가장 유사함을 보이는 수타사 괘불도와 학림사 괘불도는 삼신불의 도상 표현에 있어 거의 동일하다. 비로자나, 석가여래, 노사나불의 세 여래는 거대한 크기로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삼불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좌우의 노사나불과 석가모니불을 본존불보다 앞쪽에 위치시키고 본존불인 비로자나불은 협시불보다 뒤쪽으로 물러나게 배열하여 크게 그림으로써 △형 구도를 이루어 단조로운 평면의 화면에 깊이를 느끼게 하는 공간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본존불을 좌·우 협시불보다 뒤쪽에 두어 공간을 배려하는 구성법은 봉선사삼신불괘불도와 학림사 괘불도 등의 18세기 삼신불괘불도를 비롯하여, 흥천사 삼신불괘불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19·20세기의 삼신불괘불도에서 두루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19세기 삼신불괘불도의 경우는 흥천사 삼신불괘불도처럼 협시불보다 비로자나 본존불을 앞쪽에 두어 ▽형 구도를 이루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성법은 입불형식 괘불도의 경우 그 예가 드문 구도로 본존불을 앞쪽으로 돌출시킴으로써 뒤쪽 공간감의 부여는 물론, 삼신불의 주존인 비로자나불을 강조

1) 삼신불괘불도에서 보이는 지권인은 오른손이 왼손을 감싸 권 형태이다. 충청남도 갑사 괘불도에서는 이와 반대로 왼손이 오른손을 감싸 권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도2 | 홍천 수타사 삼신불패불도,
1690년 추정, 594 × 413cm



도3 | 학림사 비로자나삼신패불도,
1739년, 443 × 252cm



도4 | 서울 청룡사 소장 원통사
삼신불패불도, 1806년, 500 × 320cm

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²⁾. 이에 비해 후불도 성격의 3폭식 및 1폭식 삼신불도와 좌불 형식의 삼신불패불도인 갑사 패불도(1650년)는 입불형식과 다르게 화면만 2-3등분하여 인물을 배치함으로써 공간감은 없으나 인물의 크기를 뒤로 갈수록 작게 하여 원근감을 주고 있다.

한편, 거대 장육상으로 도상화된 삼신불패불도는 1650년 조성된 갑사 패불도 이후 1690년 조성된 수타사 패불도에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후, 1735년 봉선사 패불도에서 장육신상이 등장하며 이후 조성되는 모든 삼신불패불도에서는 장육신상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구도가 등장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본다면 17세기에 조성된 패불도는 영산교주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법화경」의 설법회에 참석한 보살과 성문, 호위하는 무리 등을 도상화한 것이 17세기 후반부터 패불도가 가로로 긴 대형 화폭에서 폭이 점차 좁아지면서 불보살이 입상형식으로 표현되었다. 설법할 때의 자세로 결가부좌를 취하던 석가모니불과 설법회에 모여든 성문중은 의식도량에 막 강림한 모습을 나타내듯 좌상 대신 입상형식으로 표현되었고, 영산회의 모습을 묘사적으로 재현하는 대신 등장인물을 단순화시킨 패불도가 유행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18세기 초반에 이미 전국적으로 거대불의 유행과 패불의 구성에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봉선사 패불도의 도상적인 변용이 허용되는 시대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다.

2) 김창균, 「수타사 삼신불패불도 초본 연구」, 『문화재』 42호, 2009 p. 121 참조

3) 봉선사삼신불패불도에 등장하는 보살의 명호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불화에서는 문수·보현·관음·세지·미륵제화갈라 보살로 보았으나 삼신불화는 화엄경을 근거로 그려진 불화로서 화엄설법을 하는 6보살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화면을 가득 채운 삼신불의 위로는 비대칭적이며 화염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광배의 역할을 하는 화염문이 있다. 이 화염문은 현재까지 조사된 불화 가운데서는 유일한 사례로 보인다. 또한 하늘 공간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瑞雲은 연화장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도5 | 서울 천축사 괘불도,
1858년, 525×268cm



도6 | 서울 흥천사 삼신불괘불도,
1832년, 600×358cm



도7 | 서울 백련사 괘불도,
1868년, 588×335cm

한편, 화면 하단은 크게 U자형을 이루며 구성되었다. 좌·우측에 치우쳐 좌(向
右)측에는 문수·법혜·금강당보살이, 우(向左)측에는 보현·공덕림·금강장보
살³⁾ 등 각기 3보살 입상을 삼각형구도로 묘사하고 있으며 생동감 넘치는 몸짓과
표정의 10대 제자는 좌·우 보살군의 광배 상단부를 따라 상반신만을 나타내었
다. 이들은 여의주를 들거나 턱을 피고 선정에 잠기는 등 다양한 동세와 표정을 지
니고 있다.(도8- 10대 제자의 표현 참고)

10대제자의 옆으로 그림의 가장자리에는 용왕·제석·범천을 배치하였다. 그림
의 하단 중앙에 그림으로 둘러싸인 공간에는 비파, 장고, 소고, 생황, 나각 등의 악
기를 연주하고 박을 치며 춤을 추는 8인의 奏樂天人像들로 배치된 群圖 형식을 보
여주며, 그림의 하단부 중앙에는 구름을 경계로 두고 여의주를 받쳐 들며 용관을
쓰고 있는 용왕과 공양물을 받쳐 든 용녀가 등장한다. 한 그림 안에서 용왕과 용
녀가 중복하여 등장하고 있는 점은 매우 드문 경우 이지만 권속으로서의 용왕·용
녀와 공양자상으로서의 용왕·용녀를 구분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봉선사 삼신불괘불도의 하단부에 표현된 악기를 연주하는 주악 천인군상은 매우
독특한 도상이다. 이러한 도상은 「법화경」서품에서 묘사된 영축산에서의 설법장
면을 매우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경변상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주악천인군상의 표현은 일본 知恩院本 관경변상도(1465년), 일본 十輪寺 오불
회도(1467년), 진천 영수사 괘불도(1653년)에서 선례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후대
의 작품으로는 흥국사 구품도(19세기)와 호국지장사 구품도(1893년), 수국사 구
품도(1907년)등의 작품에서 주악천인 군상이 표현되었다. 奏樂天人像이 등장하
는 불화는 관경변상도류, 구품도류에서 주로 볼 수 있다. 관경변상도류에서는 관
경16관의 내용 중 제6관의 내용인

3) 봉선사삼신불괘불도에 등장하
는 보살의 명호에 대해서는 약간
의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불화에서는 문수·보현·관
음·세지·미륵제화갈라 보살로
보았으나 삼신불화는 화엄경을
근거로 그려진 불화로서 화엄설
법을 하는 6보살을 나타낸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보석으로 장식된 국토의 경계마다 오백 억의 보석 “누각”에는 무수한 천인들이 있어 천상의 음악을 연주한다. 이 음악은 부처님(佛)과 교법(法) 및 수행자(僧)를 생각할 것을 說하고 있다.”

를 도상화 것이다. 조선 전기의 관경서본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영산중회-韋提請法の 한 장면으로 상징화되면서 관경16관변상도가 구품도로 축약되어 나타난다⁴⁾. 이 시기의 구품에 등장하는 주악천인상은 아미타극락회와 함께 등장하여 주로 아미타설법을 찬탄하는 장면으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진천 영수사 패불도와 봉선사 삼신불패불도에서는 영산법회에 참석하여 불법을 讚嘆하고 환희심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라 봉선사 패불도는 거대 장육신상으로의 기능적인, 시대적인 변화와 창의적인 구도법의 변화로 갑사 패불도와 같은 후불도유형의 패불도에서 19세기의 입상 삼신불도로 변해가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양식

봉선사 삼신불패불도는 상궁 李性愛가 숙종의 후궁이었던 寧嬪金氏의 영가 천도를 목적으로 발원하였으며 도화원 覺聰, 七惠, 斗策, 太雲, 萬彬의 화원에 의해 조성되었다.(도9, 畵記참고) 각충의 유존작품은 이외에 신록사 삼장보살도(1758년) 정도가 알려져 있는데, 이때의 동참화승 雪訓은 이후 18세기 말 경기지역 최고의 화승이 되며 설훈의 초기 화풍이 각충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만큼 봉선사 패불도

4) 유마리, 「조선 후기 관경16관변상도-관경변상도의 연구(Ⅱ)」, 『불교미술』 12, 동국대학교박물관, 1994, pp.73-139.



도9 | 봉선사「삼신불괘불도」書記, 1735년

연구의 필요성 커진다.

봉선사 괘불도는 전지 크기의 장지 30장을 잇대어 만든 종이 바탕에 부드럽고 묽은 채색을 올린 淡彩기법의 불화로서 조선시대에 유행하던 眞彩성향의 괘불도와는 전혀 다른 맑은 수채화와 같은 느낌이다.

주로 사용된 채색은 황토색과 녹색, 홍색, 옥색을 보조색으로 사용하여 18세기 전반의 전형적인 불화색조를 보여 준다. 이 괘불도에서 보여주는 특징적인 색감인 황토색은 水土黃으로서 금색과 유사하여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金대신 조채하여 금에 가까운 색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봉선사 괘불도에서도 삼존불의 대의에 금빛을 대신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호분이 혼합된 중간색의 사용은 화면을 부드럽고 은은하게 만들어 주며 부분적인 원색의 사용을 편안하게 연결시켜준다.

불화는 일반회화와는 달리 엄숙하고 경건함을 강조하였으며 畫師에게도 수행자와 같은 마음가짐이 요구되었다. 그 결과 불화의 기본적인 鐵線描를 주로 구사하였으나 본 괘불도에서는 필선 굵기의 다양한 변화가 눈에 띈다. 각 존상의 얼굴과 손 등 신체의 윤곽은 가늘고 섬세한 탄력 있는 선을 구사하였고 대의에는 굵기의 변화가 심하며 쪽쪽 내리뻗는 듯한 의도적인 꺾임이 있는 선을 구사하였으며, 구름과 다른 부분들의 표현은 觀子로 하여금 숨쉴 틈 없이 몰아치는 운동감을 느끼게 하는 활달한 선을 구사하여 18, 19세기의 풍속화를 보는 듯하다.

또한, 삼존불의 대의에 구사된 윤곽선은 墨線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다시 채색을 한 후에 묽은 갈색으로 중복된 선을 사용하였으며 전체적인 그림의 윤곽선은 담채라는 특성 때문인지 묽은 갈색으로 처리하였다. 대의의 문양 표현도 은은한 흰색의 가는 필선으로 동심원문을 그리고 그 안에 雲紋을 시문하였고 주불인 비로자나불만 오금이 있는 운문을 시문하여 차별성을 두고 있다. 또한, 18세기 불화에 서 보이는 문양의 특징은 단청에서 사용되는 문양들이 불화에 등장하는 것이다.

역시 봉선사 괘불도에서도 결련금문, 갈모금문, 비늘문, 등심원문, 연화문, 당초문 등이 사용되었다.

Ⅲ. 봉선사 삼신불괘불도의 불교미술사적 의의

지금까지 살펴본 봉선사 괘불도를 통해 몇 가지 불교미술사적 의의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19·20세기 서울·경기지역에 유행했던 거대 삼신불입상의 시작을 알리는 최초의 작품이다. 거대 삼신불입상 도상의 발생원인은 괘불이 야외에서 현괘되는 특성상 바람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기능적인 측면, 신도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단순하고 큼직한 도상, 의식도량에 막 강림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입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게 생각된 듯하다.

둘째, 삼신불의 배치구성에서 보이는 도상의 자유로운 변화이다. 지금까지의 불보살의 배치와는 매우 다른 파격의 구도라 할 수 있다. 봉선사 괘불도와 같이 주존이 뒤로 물러나 있고 협시불이 앞으로 나와 있는 배치법은 19세기에 접어들며 주존이 앞으로 나와 있고 협시불이 물러나 있는 배치법, 삼존이 차례로 어깨를 겹치며 서있는 배치법 등으로 변화를 이루어 갔다. 이러한 배치의 문제는 좁은 화면에 삼불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현상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 수화원인 覺總의 창의적인 능력을 엿볼 수 있다.

셋째, 뛰어난 회화성이다. 봉선사 삼신불괘불도는 바탕재질과 설채법 등에서 당시의 불화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독특하며 창의적임을 볼 수 있다. 왕실관계 불화임에도 종이 바탕을 선택하여 맑은 담채기법의 불화를 구사한 점과 중간색의 적절한 사용이 주는 은은한 화풍, 거침없이 구사된 힘찬 동세와 과감한 꺾임의 필선들, 주악천인군상의 다양한 동세와 활달함 등은 기존의 화풍을 답습하는 구태 의연한 그림이 아닌 당시의 새로운 회화상을 반영하려 했던 노력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봉선사 「삼신불괘불도」는 18세기 전반의 불교 사상적인 변화와 화풍의 변화를 짐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나아가 현대 불화작품에서도 과감하고 창의적인 화풍의 변화·발전을 시도해 보라는 선배 화사의 무언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다.

화공시험도 단청공과 불화공으로 나누어 시행되기를 희망하며

우리나라 전통미술이나 문화유산에서 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다고 감히 말하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사안들을 몇 자 적어본다. 불화(佛畵)는 불교의 종교적 이념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 주로 사찰건물의 내벽(內壁)과 외벽(外壁)에 그려지는 탕화나 벽화, 큰 행사시 야단법석을 마련하여 야외에 설치하는 괘불(掛佛), 또 종이나 천에 그려서 책자로 보관해 오는 경변상도(經變相圖) 등으로 크게 나누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불화용어 중 탕화란 용어를 없애고 일괄적으로 도(圖)로 통일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용어를 바꾸고자 하는 이유가 너무 궁색하다는 생각이 든다. “탱화라는 용어는 중국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사용하지도 않는 말이고, 영문으로도 번역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문화재를 조사연구하고 지정, 보존하는 문화재위원들의 의식에 의문이 가는 이야기다. 탕화는 용어 그 자체가 수백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언어문화다. 예를 들어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라고 말하면 벽에 직접 그린 벽화가 있고, 천과 종으로 배접된 화폭에 그려서 벽에 걸어놓은 탕화가 있으며, 평소에는 두루마리로 말아서 보관해 오다가 큰 행사 때만 내다 거는 괘불, 나아가서는 판화나 사경화에도 영산회상도가 있으니 이 도(圖)란 용어만으로 그 그림의 특징이나 재질을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그림에 대한 그림바탕과 재료에 대해 덧붙여서 설명을 해야 하는 어려움과 혼란스러움은 피해갈 수가 없다.

또 “불화를 통칭하는 ‘탱(幀)’ ‘탱화(幀畵)’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쉬운 ‘도(圖)’로 통일해 표기했다.”고 밝혔는데, 탕화는 단순히 불화를 통칭하는 말이 아니라 불화중의 한 장르로 봐야 하며, 불화의 특징과 종류를 구분해 왔던 불교미술의 중요한 용어이다. 그리고 위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탕화라는 용어를 잘 이해하고 있어, 이미 정착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영문이나 다른 외래어표기가 어렵다는 말은 더욱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다. 그 나라의 전통문화는 그 나라 고유문화로 표기될 때, 그 가치와 주체성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보통 그 나라 전통용어의 외래어 표기는 고유문자로 사용하고 설명을 곁들여 이해를 구하는 것이 통례이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용어를 버리면서까지 외국인들을 이해시키려는 의도는 소중한 우리문화를 지켜가고 있는 많은 국민들

화공 524호

불교미술
일섭문도회 회장

전 연 호

에게 실망과 혼란만 초래하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티벳불화의 탕카(Thangka)나 가톨릭 성화인 이콘(Icon, Eikon)도 우리나라의 탕화(Tenghwa)와 같은 고유용어로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고, 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용어를 이해하면서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런 논란의 중심에서 있어야 할 불교계가 아직도 아무런 대책이나 움직임도 없는 것은 이 개정안이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남의 일 인양 무관심한 것인지 전통문화를 지켜가는 불교미술인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나라에서 불화가 시작된 것은 불교가 처음 전파되었던 삼국시대부터였다고 본다. 그 후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불화가 그려졌으나, 잦은 외세의 침략으로 대부분의 탕화와 벽화들이 소실되거나 파괴되었다. 몇몇 점의 유물을 제외하고는 임진왜란 후인 강희(康熙)에서 건륭(乾隆) 연간에 제작된 불화로 이 불화들이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다. 그 중에서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유물만 해도 50여점이나 되고, 그 외에 많은 불화들이 각 지방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탕화와 괘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도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300여년이나 된 탕화나 괘불과 같은 문화재를 오래전부터 배접장들이 해체하고 배접하여 보수를 시행하고 있는데, 탈락되고 찢겨진 부분이나 퇴색된 부분을 전통불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의해 그림물감이나 아크릴물감으로 조잡스럽게 덧칠되고 그려지는 어이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나 불교계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 실로 안타까운 마음이다.

불화를 그리는 사람을 금어, 불모, 화승, 양공 이라 하여 조선시대까지는 스님들의 전유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40여년 전부터 치츄 일반인에게도 활성화되어 지금은 “불교미술대전”이나 “전승공예대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술대전” 등 여러 미술공모전에서도 불화를 공모할 정도로 불화를 그리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불교미술 발전과 전통미술의 확산을 위하여 무척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물론 유물보수는 지금이라도 현재 지정되어있는 무형문화재들을 활용하여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정책적 기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화문화재 보전이나 전통불화의 전승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결과제는 먼저 문화재수리기능자시험에 불화종목을 신설하여 불화와 단청을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 문화재수리기능자 화공시험은 지금까지 단청실기시험 한가지로만 문화재기능인을 선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조물문화재는 궁궐이나 사당뿐만 아니라 많은 전통사찰이 있고, 그 안에 그려진 수많은 벽화나 탕화, 괘불들이 우리나라 소중한 문화재로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재도 단청장과 불화장이 분리되어 지정되어 있을 만

큼 불화의 기능은 우리 문화재의 보전과 전승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종목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재수리기능자 화공시험도 초창기인 30여 년 전에는 불화(佛畵)를 별화(別畵)라고 하여 단청과 함께 수험을 하였는데 언제부턴가 화공시험이 단청시험으로만 일관하여 치러지고 있다. 과거에는 불화를 하는 화공이면 모두 단청기능을 겸하고 있었지만, 근래에 와서는 불화와 단청이 분리 전문화되어 있으며 그 전승방법도 전혀 다르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하루빨리 불화종목의 기능시험을 제도화하여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수많은 불화를 보전하고 그 기능을 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서는 그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

물론 관련법 시행령에는 “단청에 불화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화공시험은 단청기능 하나만으로 기능인을 선정하고 있고, 불화를 하고 있는 많은 불화가들은 응시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화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전과 함께 전국에서 불화수학을 하고 있는 많은 전통미술인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우리의 전통미술인 불교미술의 전승과 발전을 위하여 석공 종목을 ‘가공석공’과 ‘쌍기석공’으로 나누고, 조각공을 ‘목조각공’과 ‘석조각공’으로 나누듯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화공시험도 ‘단청공’과 ‘불화공’으로 나누어 시행되기를 바란다.

구들장 이야기

배 홍 렬

한국의 고택 문화재 역사는 조선왕조 500년 보다도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고택 문화재 수리를 하면서 한식 주택의 우수성을 피부로 느껴왔습니다. 4대문 안의 궁궐을 보면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움과 웅장한 자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세계의 명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천여년동안 살아 숨쉬는 고건축물은 지금도 끄떡없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천년 역사라고 한다면 나는 오천년 역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쟁의 와중에 건물이 불타 소실 되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후기에 지은 건물만 살아 남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온돌문화 역사 또한 오천년을 함께 해 온 최고로 오래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추운 지방에서 따뜻하게 살아야 하는 절실한 바람이 오늘의 온돌이 있게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구들방 시공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오천년을 이어온 기술이 오늘날 우리 손에 의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팠던 시절 도시락 싸들고 찾아가 온갖 잡일 다하며, 월급도 없이 얻어맞으며 기술을 배우던 힘든 시절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1968년도인가요, 연탄 온수 보일러가 생기면서부터 온돌방 수리일도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함석 가공기술을 배웠으나, 플라스틱 제품이 나오면서 함석일은 자연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아버지에게 벽돌쌓기, 미장일, 구들방 농기를 배우면서 흙일과 시멘트일 모두 배웠습니다. 어느날 여럿이서 한식집 천벽을 바르는데 아버지께서 바른 곳은 한군데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다른 동료들이 바른 곳은 군데 군데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께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힘있게 쳐서 발라야지 옷 버릴까 봐 슬쩍슬쩍 바르면 그게 떨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972년 2월 24일 나는 처음으로 혼자서 일을 나갔습니다. 한식집 일터는 전남 장성의 농가였습니다. 대목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일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해 봐야지요, 하면서 외워고 바닥만 깔고 초벽치고 맞벽치고 천벽치고 마감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우마차 타고 산에 가서 결이 있는 깻묵돌을 찾아서 정으로 결 따라서 구멍을 여러 개 파고 나무췌기를 박아놓고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방돌을 떠서 아래로 굴리면서 이틀동안 방돌뜨기를 마쳤습니다. 구들방 농기 하고 부뚜막에서 굴뚝까지, 이어 플방까지 모두 마치니 총 품이 40개가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6만원을 벌었습니다. 그중에 7,500원은 저를 도와준 주인집 아들,

말을 못하는 장애가 있었지만 뒷바라지를 잘 해준 그 이에게 주고 집으로 왔습니다. 어른들은 “진달래 막걸리로 반주를 해야 한다.” 하시며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어린 다슬기 찹쌀죽도 맛있었습니다. 토종닭, 집토끼 잡아서 매운 고추장 찜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구들방 고치러 가는 날이 많아 여러 형태의 구들방을 놓았습니다. 그중 가장 어려운 방법이 장작불 구들방입니다. 방 터 잡는 일이 먼저고 방 표면에서 아궁이 바닥까지 1미터의 공간을 기점으로 하고 순서대로 하는데, 방고래는 아랫목이 얇고 윗목은 높게 손질 하고 아랫목과 윗목에도 은고래를 파두어야 합니다. 아랫목 은고래 높이는 약65cm에서 방고래 면이 형성되고 폭은 30~40cm 쯤 됩니다. 윗목 은고래도 앞쪽과 비슷하게 합니다. 아랫목에는 두터운 구들장을 사용하고 윗목에는 얇은 구들장을 사용합니다. 종갓집처럼 식구가 많고 불을 많이 지피는 아궁이에는 아랫목 구들장을 두 겹으로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굴뚝은 연기가 나가는 쪽 천정이 아궁이 천정보다 20cm이상 높아야 합니다. 굴뚝의 높이는 집집마다 바람 부는 습성을 잘 이해하고 바람 길을 따라서 구멍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궁이 위치와 굴뚝의 위치에 따라 구들방 놓는 방법이 다르지만, 여러 형태의 구조에 따라 구들방 놓기에 적절한 자재를 고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연탄아궁이에 두꺼비 집을 이용하여 구들방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탄난로를 이용하여 아궁이 깊숙이 넣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은 주로 여관이나 여인숙 및 하숙집에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줄고래나 헛튼고래 놓는 방법도 있으나 재료에 따라 변수가 있고 꺾돌을 이용해야 되는데, 요즘 일부 사람들이 줄고래 위에 구들장을 직접 깔고 방을 만드는 것도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이런 시공법은 따뜻한 줄은 따뜻하고 차가운 고래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방바닥 마감선	0cm
구들장	10cm
킴돌	20cm
화강암 방 고랫돌	30cm
	40cm
부뚜막 마감선 및 굴뚝	50cm
부뚜막 뒤 이매펀	60cm
아궁이 이매펀	70cm
아궁이	80cm
	90cm
	100cm

家門. 문 짝은 살아 움직인다.

황영식

문 짝과 시골집 소

경북 울진 두메산골에서 태어나 문명의 혜택도 없이 소년기를 보내며 고향을 떠나 온지도 어언 46년. 나름 한눈 팔지 않고 소목 문 짝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항상 겸손하고 진실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열심히 문 짝을 만들다 보니 이제서야 그 문 짝이 얼마나 소중한지 조금은 알 것 같군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문 짝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문 짝을 아름답고 튼튼하게 만들어 집에 달아주면 어디까지 않고 오래오래 볼 수 있습니다. 난 항상 문 짝을 만들면서 시골집에서 기르는 소를 많이 생각 했어요. 잘 먹여 메어두면 어디까지 않아요. 또한 농촌의 농사일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게다가 소를 팔아 돈도 사고 밭도 샀어요. 그래서 소는 농촌에 부를 가져다 주었지요.

문 짝 또한 추위를 막아주고 더위를 막고 도둑을 막아주니 얼마나 많은 부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남은 인생 후회하지 않도록 문 짝 만드는 일에 끝까지 매진하겠습니다. 더욱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소목이란 자격증을 부여받고 보니, 문 짝에 대한 소중함을 더 알 것 같아요. 우선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문 짝이지만 일반인들이 관심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지요. 더욱이 문 짝 만드는 일을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꽃살문

문 짝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전통 한옥문 문살 만들면 신기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꽃살문을 잘 만들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1990년 중요무형문화재이신 최기영 대목장 선생님께 꽃살문 만드는 기술을 전수받고, 봉원사 삼천불전과 대웅전 꽃살문을 만들 때에는 참으로 신이 났습니다. 지금도 여러 사찰의 대웅전 꽃살문을 만들고 있는데, 기분 좋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럴 땐 문 짝이 살아 움직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산업화와 현대화의 물결속에서 이 땅에 많은 아파트와 빌딩이 세워지면서 문 짝(창호) 만드는 기업도 생겨났지만 크게 성공한 기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짝 만들기

시대가 바뀌어 기계로 많은 문짝(창호)을 만들지만, 그 기계의 안전과 성능을 알아야만 능률도 있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계가 좋다고 하나 사람의 손이 가지 않으면 좋은 문짝(창호)이 될 수 없습니다.

우선 소목 문짝(창호) 만드는 일을 배우겠다고 하면 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배우기 어려운 것 또한 십분 이해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전통 한옥문짝 만드는 기술을 배울려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창호) 전통 한옥 문짝을 배우겠다고 하면 돈 생각이 없어야겠지요, 그리고 수백가지의 연장 이름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문짝을 만들려면 수백가지의 목재를 필요로 합니다. 문짝(창호재), 가구재, 건축재 분명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나무로 만든 문짝은 그 향기와 빛이 아름답습니다. 이 목재의 진미를 알게 되면 문짝과 가구에 대한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알게 되겠지요.



가지개문



빗살창문

문짝 없이 살수 없습니다

목수가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문짝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짝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문짝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잘 이해하면 아름다운 문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도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것이겠지요.

저 역시 45년 동안 문짝 만드는 일만 했지만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지금은 남양주시 진접읍 철마산 자락에 위치한 東部한옥建具 공방과 전시장을 만들어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문짝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전통 한옥 창호기술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통 한옥창호 보급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의 진리의 뜻을 담고 있는 전통 한옥창호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후계자 양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고향의 조상님 은혜를 생각하며 46년 동안 단 한해도 고향방문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조요 애향심이라 하겠습니다. 난 항상 장손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 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문짝 만드는 장인들과 함께

한국의 멧과 멧과 소리 그리고 멧돌

멧돌이야기

우리나라에서는 질 좋은 돌을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일반 살림살이에도 돌로 만든 기구(器具)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석공예 기술이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그리고 그 뛰어난 기술은 일본까지 전파되어 610년(영양왕 21)에 일본에 건너간 고구려 승려 담징(曇徵)이 멧돌을 만들어 주었다는 <일본서기 日本書紀>의 기록(推吉 18년 3월조)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전하는 내용이다.

고려시대에는 <고려사>식화지(食貨志) 봉록조(俸祿條)의 공장별사(工匠別賜)에 따르면 멧돌을 만드는 마장(磨匠)은 중상서(中尙署)에 속해 있었으며 인원은 1명이었다. 마장(磨匠)의 직위는 행수교위(行首敎尉)였다.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진흥정책으로 하였고 때문에 유교는 검소한 기풍을 장려 하였으므로 생활 공예로서의 민속공예와 서민공예인 멧돌과 절구, 연자방아, 다듬잇돌, 돌확 등 석공예품도 많이 만들어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의하면 마조장(磨造匠) - 멧돌이나 연자매를 만드는 장공인(工匠)은 경공장(京工匠)의 일종(一種)으로 선공감(繕工監)에 딸렸던 공장(工匠)으로는 8명이었으며 지방관아에 속한 마조장(磨造匠)은 24명이라고 되어 있다.

멧돌 (고흥석) - "수"자 문양을
조각하여 장수를 기원한 멧돌, 2008

예전의 멧돌을 만드는 장인들은 연장망태를 짊어지고 전국의 마을로 돌아다니며 근처의 산이나 냇가의 돌로 멧돌, 절구 등을 쪼아 주었다고 한다. 돌에도 결이 있어서 멧돌, 연자매처럼 가로로 퍼진 것을 마를 때에는 가로결대로, 절구나 돌확처럼 길이가 긴 것은 세로결에 따라 마른다. 멧돌이나 연자매 따위는 2,3년이 지나면 이가 닳아서 기능이 떨어지므로 다시 쪼아 이를 내어주는데 돌아다니며 멧돌 쪼는 이를 '매죄료 장수'라고

가공석공 2274호
멧돌지기

정 정 교

따로 불렀다.

맷돌과 절구 다듬잇돌, 돌확 그리고 한약방에서 쓰던 약연(藥硯-한약재를 갈아 가루로 만드는 도구) 등 전통 석공예품들은 필연적으로 민중의 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생각된다. 또한 제품이 생활에 가장 깊게 사용되는 실용품인 것과 선조들의 소질과 덕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기에 전통적인 색이 깊다 하겠다.

약연이야기



약연 (현리석) - 한약방에서
한약재를 갈아 가루로 만드는
도구, 2008

약연 [藥硯]은 단단한 나무나 돌 · 사기 · 쇠 등으로 만든, 속이 V자 또는 U자 모양으로 팬 가늘고 긴 배 모양의 그릇에 약종을 넣고, 축이 달린 금속제의 연차를 굴려서 그 속의 약종을 가루로 만드는 도구이다. 약연의 명칭은 중국에서는 모양이 배같이 생겼다 하여 약선(藥船)이라고 하며, 일본에서는 약연(藥硯)이라고 한다.

재료는 돌, 나무, 청동, 놋쇠 등 다양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약의 종류와 성분에 따라 달리하였으며, 은, 옥, 마노(瑪瑙) 같은 값진 재료가 이용되기도 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질 좋은 화강암을 곁에서 흔히 구할 수가 있어서 돌이 많이 사용되었다.

약연은 동양의학의 기본원리인 음양법칙에 부합되게 만들어졌다. 음양설에 의하면 태양 · 위[上] · 남성 등은 양이며, 달 · 아래 · 대지 · 여성 등은 음에 속하는데, 음은 정(靜)하고 양은 동(動)하다 하였다. 우리나라의 약연기를 살펴보면 약연의 받침이나 유발 및 맷돌의 암맷돌은 여성의 생식기나 대지를 뜻하기도 하며, 연알과 공이 및 솥맷돌은 태양이나 남성의 성기를 본떴고 동적이어서 음양설에 부합된다. 음과 양의 이상적인 화합에서 바른[正] 것이 생기며, 실제 기구의 요(凹)와 철(凸)이 잘 합치되어야 약이 잘 갈린다. 진자(振子)의 원리를 이용하여 약을 갈기 때문에 힘이 적게 든다. 자연법칙에 순응하는 것을 생활화하였던 우리나라에서는 약을 가는 기구의 모양도 그 원리에 입각하여 제작하였다.

맷돌과 약연을 제작하면서 보람도 커

맷돌전시가 끝나고 어느 날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그리고 며칠 후 한 분이 작업실로 찾아오셨다. 기계톱을 대지 않고, 정으로만 쪼아 만든 맷돌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작품들을 다시 보았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기에, 맷돌과 절구, 약연, 다듬잇돌 등 석공예 작품들을 소개하였다. 그러자 정다듬으로 마감한 맷돌과 전

통기법으로 제작한 다듬잇돌 그리고 돌확과 절구 등을 차례로 구입하겠노라고 말씀하실 때는 무슨 일이냐고 놀라웠다. 한 작품도 아니고 서너 작품을 개인이 한꺼번에 구입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후로도 나의 땀과 손때가 묻은 제법 많은 작품들을 새로운 주인을 찾아 떠나 보냈다.

그리고 거친정다듬과 고운정다듬, 도드라다듬 등 전통적인 기법으로 맷돌과 석공예품을 만들 때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거칠게 정으로 쪼아서 만든 맷돌과 작품들을 누가 사가겠냐고 하면서 예쁘고 맨질맨질한 작품을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전통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고집부리며 돌과 함께 해 온 시간들이 고마울 따름이다. 돌만큼 솔직하고 정직한 물건도 그리 흔하지 않다. 망치를 내리치는 손과 정을 움켜쥔 손이 돌을 다듬는 만큼 이마에 맺힌 땀방울만큼 무뎠던 돌은 수많은 정을 맞이하고서야 그 아름다운 몸뚱이를 보여준다.

등산을 할 때 정상을 향해 올라가지만 오르면서 힘들면 나무에 기대어 쉬기도 하고 동행인과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계절마다 각기 다른 자연의 멋도 만끽하며 여유롭게 산행을 한다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정상을 향해 바쁘게 올라가는 것만이 최선은 아닌 것이다. 행위 자체 하나하나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야지만 그나마 장인들의 고된 날들이 지켜지리라 여겨진다. 또한 기능인들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으로써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전통문화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를 바라봄으로써 정리되지 못하고 흥미한 현재를 보는 안목을 키우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석공예도 또한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러나 기계화와 산업화에 밀려 잊혀져가고 있고 석공예에 종사하는 기능인들은 일도 고되고 힘이 들어 배우는 이가 적어 안타깝다. 맷돌과 절구, 다듬잇돌, 약연, 돌확 등 우수한 한국의 멋과 맛과 소리를 지니고 있는 석공예품들이 우리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자리매김 되길 기대해 본다.



절구 (고흥석), 2008



돌확 (화강암), 2011

2012년도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

올해 또 다른 50주년을 시작하는 문화재청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중 참고할만한 사업들을 간추려 재정리하였습니다.

일반현황

■ 임 무

- 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계승, 국민생활의 문화적 향상 도모

■ 조 직

- '04년 3월 차관청 승격, 1관3국25소속기관, 정원 857명 (지난해에 비해 19명 증원)

■ 예 산

- 5,452.2억원 (지난해에 비해 4.3% 늘어난 223.8억원 증액)

■ 지정문화재 : 총 11,310건('11. 11. 24기준)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3,847건

국보 313, 보물 1,690, 사적 481, 명승 82, 천연기념물 422, 중요무형문화재 114종목,
중요민속문화재 264, 등록문화재 481

- 시도지정문화재 5,025건, 문화재자료 2,438건

※ 유네스코 세계문화자연유산 10건, 기록유산 9건, 인류무형유산 14건 등 33건 등재

■ 법 령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고도보존특별법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11년 제정, '12. 7. 15 시행)

■ 문화재위원회

- 9개 분과 110명(전문위원 148명), 임기 2년('11. 4. 26 ~ '13. 4. 25)

주요사업

■ 문화재 보수정비 품질향상 방안 마련

- 문화재 수리품질 전면개정 시행(18개 공종, 209개 항목, 3월)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연구수행(3~12월)
- 문화재 수리품질 향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수행(3~8월)
- 전통기와와 전벽돌 품질향상 및 활성화 방안 마련(3~10월)
-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설립을 위한 기본설계용역 착수(9월)
- * '12~16년, 총 290억원 투입/ 경기 파주시 소재 연면적 1.3만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2층

■ 승례문 및 궁능의 원형복원

- 2008년 착공한 승례문 복구공사를 2012년에 완료('12년 58.7억원)
 - 문루 복구, 방재 시스템 구축, 광장조성 등 주변정비
- 2030년에 마무리될 경복궁 2차 복원사업 추진(총 5,400억원 투입, 흥복전 등 254동 건립)
 - 내외 소주방 등 17동 복원(50억원)
- 석조전 복원, 즉조당 및 광명문 보수 등 덕수궁 원형복원
- 역사경관림 조성과 부적합 시설 철거를 통한 조선왕릉 능제 복원

■ 문화재 활용자원 확대

- “살아 숨쉬는 4대궁과 종묘 만들기 사업”의 내실화
 - 창덕궁 달빛기행, 궁중 장 담그기, 경희루 연향, 정관헌에서 명사와 함께 등
-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상생문화재' 우수사업을 발굴하여 명품화 추진
- 세계유산 등 중요문화재 안내판 개선방안 마련(경주, 제주)
- 국민들의 문화재 향유를 위한 접근권 확대
 - 현충사 무료개방, 창덕궁 전각, 파주 삼릉 등 미개방 궁능원 개방

■ 문화재 기록보존 및 DB구축

- 국가지정문화재 정밀실측 및 DB구축
 - 사적 3건, 중요목조문화재 5건, 중요동산문화재 10점, 근대문화재 8건, 전통가옥 4건, 중요목조문화재 단청('12~'20년) 등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 채록 및 DB화(11월)

- 해외 한민족 무형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전승실태조사(중국, 중앙아시아, 10월)
-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기초정보 축적
 - － 서원, 성터, 전국 폐사지, 동산문화재(사찰벽화, 불교유물, 개인소장) 등
 - － 도서해양문화유산 원형기록(2~11월, 신안병풍도, 진도, 맹골도 어촌민속조사)
- 고전국역 중장기 계획 수립('12년 계획수립, 13년부터 국역추진)

■ 조사연구 및 지방 민간역량 강화

- 한국전통문화학교를 “대학과 대학원” 체제로 개편('12년 7월 시행)
- 전통문화연수원의 전문교육 강화(23개 과정 → 27개 과정)
 - － 문화재수리분야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보수기술자, 감리원 등)
-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도입 추진(평가지표 개발 등)
- 중앙-지방간 정책협의회 및 교육실시(각 2회)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수정비 및 활용역량 강화 지원
 - － 선사유적, 관아 등 지역유산 특화정비를 통한 브랜드화(10건, 130억원)
 - － 문화재 기술지도와 자문의 실효성 제고(현장별 맞춤형 기술지도단 운영)

■ 예방적 문화재 관리 및 방재체계의 고도화

- 문화재 현장과 지자체를 연계한 재난관리통합시스템 구축(하반기, 강원도)
- 모바일을 통한 안전경비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구축(경기도)
- 지진대비 기본계획 수립(구조보강 기법 및 보호대책 마련 등)
- 재난 예측력 및 사전 대응력 강화를 위한 문화재 위험지도 개발
- 목조문화재 경비인력 배치(국보 보물 126건, 362명 배치, 47억원)
- 폐사지, 산간오지 등 관리취약 문화재 안전관리인력 배치(이화장 등 496건 341명, 24억원)

2011년도 문화재청 주요정책 및 행사

1월

- 1. 13 창녕 우포늪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지정
청원 연제리 모과나무, 제주 도련동 굴나무류 천연기념물 지정
강릉 방동리 무궁화,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 천연기념물 지정
- 1. 14 오색약수, 의성 얼음골, 밀양 압괴류, 신안 작은대섬, 제주 용머리
해안 천연기념물 지정
- 1. 24 광화문 현판 재제작을 위한 '현판제작위원회' 구성
- 1. 24 천연기념물의 보고 -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도전
- 1. 24 문화재청, 궁궐에서 맞이하는 특별한 설 만남 행사 준비
- 1. 26 국립고궁박물관, 입춘 맞이 춘첩 써주기 행사 개최

2월

- 2. 5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
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행
- 2. 8 문화재청, 공주부여역사유적지구와 익산역사유적지구를 통합한
(가칭)백제역사유적지구와 남한산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우선등
재 추진, 서해안 갯벌을 자연유산으로 등재추진기로 결정
- 2. 10 제1회 '문화재방재의 날' 계기, 합동소방훈련 및 문화유산방재 국
제심포지엄 개최
- 2. 10 승례문 화재 3주년 계기, 복구공사 경과와 향후 추진계획 설명회
개최
- 2. 11 조선왕조 음식, 나전장, 줄타기 등 3건을 2011년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우선 등재기로 결정
- 2. 11 문화재청, 중요무형문화재 초청행사 개최
- 2011년 무형문화인의 만남, 지음(知音)
- 2. 24 김소월 시집 진달래꽃을 문화재로 등록
- 2. 28 전통문화연수원, 문화재수리복원과정 수료식 및 입교식 거행

3월

- 3. 1 고궁 포털 인터넷 서비스 시작
- 3. 2 한국전통문화학교 2011년도 입학식 거행
- 3. 2 수원 화성내 방화수류정과 서북 공심돈 보물지정
- 3. 2 낙안읍성과 외암마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 신청
- 3. 15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년도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존 116,896점에서 23,000여점 늘어난 140,560점 (20개국 549개 기관 및 개인) 확인
- 3. 15 문화재청, 궁궐과 왕릉의 봄꽃 개화 예상시기 발표
- 3. 29 문화재청, 명지대와 '문화유산 기록정보 지원 선진화를 위한 협약 체결
- 3. 30 문화재청, 한-라오스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

4월

- 4. 1 동절기중 개방을 중단했던 경회루 등 주요전각 재개방(10월까지)
- 4. 3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조선왕릉 나무심기 체험행사 개최
- 4. 11 개정된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관보 고시
- 목공사등 13개 공종 100개 항목 우선개정, 2012년 상반기까지 석공사등 5개 공종 109개 항목 개정 예정
- 4. 12 문화재청, 균열된 광화문 현판 수리 시작(4월중 완료)
- 4. 12 문화재청 개청 50주년 캐치프레이즈 공모작 선정
-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
- 4. 23 한문화재 한지킴이가 함께 하는 '내고장 문화재 가꾸는 날' 행사 개최
- 4. 25 문화재위원회와 전문위원 신규위촉(임기 2년, 전체위원장 이인규)
- 4. 27 양산 통도사 영산전 벽화 등 7건 보물 지정
- 4. 28 아산 현충사에서 제466회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기념행사 거행
- 4. 29 근대 종교건축물인 '남양주 흥국사 대방'을 문화재로 등록
- 4. 30 마츠우라 고이치로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문화재청 초청으로 방한

5월

- 5. 1 2011년도 '종묘대제' 봉행
- 5. 2 궁궐, 종묘, 왕릉에서 문화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4일까지)

- 5. 3 창덕궁 낙선재에서 다문화가족 초청, 1박2일 궁궐체험행사 거행
- 5. 3 고궁박물관, 석탄일 계기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유물 공개(6월 2일까지)
- 5. 12 천연기념물 익산 천홍동굴 주변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 5. 15 여주 영릉에서, 세종대왕 탄신 614돌 숭모제전 봉행
- 5. 17 연천 무등리 2보루 유적에서 고구려 갑옷 출토
- 5. 24 문화재청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거행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재기능명장특별전'을 27일까지 정
부대전청사에서 개최
- 5. 28 일성록,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6월

- 6. 2 국립문화재연구소, 영국박물관과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과 협약
체결
- 6. 4 평화의 댐 유역에서 천연기념물 수달 자연방사
- 6. 5 창덕궁 선정전 일원에서 궁궐 세시절 단오행사 개최
- 6. 7 영월 한반도 지형과 선돌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 6. 11 조선왕실의궤 반환기념 국민환영대회 개최
- 4월 14일 1차분을 시작으로 5월 27일까지 네 차례로 나눠 반환.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중
- 6. 11 문화재청, 박병선 박사의 연구활동을 후원하는 후원증서 전달
- 6. 16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출토유물보존센터 준공
- 6. 20 2011년도 우수문화재 실측설계업자로 '길건축사무소' 선정
- 6. 2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국회 통과로 한국전통문화학교 대학
명칭 사용 가능
- 6. 27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충남 태안유물보존센터 준공

7월

- 7. 1 '한식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구성, 첫회의 개최
- 7. 6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합동공개행사
- 2011여름, 天工을 만나다(인사아트센터)
- 7. 19 문화재 환수 국제포럼 및 문화재 환수정책 토론회 개최
- 7. 19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내 최초로 조선후기 조운선 복원,
진수식 거행
- 7. 19 문화재청,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 태안 해저유물 도굴범 7명
검거

7. 29 문화재청, 집중호우로 인한 국가지정문화재 피해확인(이화장등 30개소)

8월

8. 1 국립문화재연구소, 울진 인근해안에서 발견된 국내 최대 상어이빨 화석 공개
8. 8 진도 윤림산방 등 3개소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8. 8 문화재청 50주년 기념 '우리땅 독도, 그 아름다운 섬 이야기 특별전'(정부대전청사)
8. 9 문화재청, 캄보디아 정부와 문화유산 보존협력 합의
8. 17 경복궁 등 4개 궁궐 9개 전각, 회의장 활용방침 발표(9월-10월)
8. 26 승례문 인근 지하철 안전을 위한 지반보강공사 시행(2주간)
8. 29 민간인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
8. 30 문화재청, 신한은행과 승례문 복구지원 후원 약정 체결

9월

9. 8 문화재 발굴조사인력 자격인증제도 도입연구 공청회 개최
9. 15 덕수궁 명칭, 시민의견 수렴후 재검토기로 결정
9. 16 경복궁내 장고 개방, 옹기전 개최(10. 3까지)
9. 19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중요무형문화재특별전 개최(9. 28까지)
9. 23 칠백의사 순의 제419회 제향행사 거행
9. 24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자연유산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워크숍 개최
9. 28 문화재청 개청 50주년 기념, 고도육성포럼 개최
9. 30 문화재청, 제2차 무형문화유산 일제조사계획 발표(2012 - 2020년까지)

10월

10. 2 경복궁 흥례문앞 특설무대에서 문화재청 50주년 기념 코리아 헤리티지 패션쇼 개최
10. 4 창덕궁 창의정에서 벼베기 행사 거행
10. 4 제36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개막(10. 24까지, 민속박물관 특별전시실)
10. 5 경복궁 소주방 복원공사 기공식 거행
10. 5 문화재청, 2012년부터 사직단 직접관리 예정
10. 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군 마도 해역에서 마도 3호선 발굴성

과 발표

- 10. 11 승례문 전통기와가마 화입식 거행
- 10. 12 공주 공산성에서 백제시대 명문이 있는 옷칠가죽갑옷 출토
- 10. 21 등록문화재 제도시행 10주년 기념, 덕수궁 증명전에서 등록문화재 전시회 개최(11. 14까지)
- 10. 25 경주 사천왕사에서 통일신라시대 석교 발견
- 10. 26 문화재청, 백제권 고도인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와 업무협약 체결

11월

- 11. 8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 2012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신청기로 결정
- 11. 18 서해안 해저도굴범 일당 11명 검거, 70점 회수
- 11. 22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고고학전문사전 - 성곽봉수편 발간
- 11. 22 고궁박물관, 하정웅 기증전
- 순종황제의 서복순행과 영친왕, 왕비 일생 특별전 개최
- 11. 28 줄타기, 택견, 한산모시 짜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결정
- 11. 28 완주 화암사 극락전,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지정
- 11. 29 국립고궁박물관, 네이버 뮤지엄 뷰 오픈, 3차원 가상체험 가능

12월

- 12. 2 덕수궁 명칭에 대한 공청회 개최
- 12. 2 이혜은 문화재위원, 세계유산 자문기구 집행위원 선출
- 12. 6 경복궁 사정전등 6개소 보물지정 예고
- 12. 9 안중식, 고희동, 채용신 등 근대회화작품 문화재 등록 예고
- 12. 13 조선왕조도서 환수 고유제(종묘), 오대산 사고 고유제(12. 16)
- 12. 15 효의 상징 용건릉에 역사문화관 개관
- 12. 18 천연기념물 겨울철새 먹이주기 행사(2012년 3월까지 6회 예정)
- 12. 26 동구릉 건원릉, 목릉 정자각 보물지정
- 12. 27 고궁박물관, “다시찾은 조선왕실 의궤와 도서 특별전” 개최(2112년 2월 5일까지)

전통문화연수원의 2012년도 교육과정을 소개합니다.

전통문화연수원장
조 성 래

전통문화연수원은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입니다.

2008년 8월 문을 연 문화재청 산하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수원은 문화재 수리복원 전문 인력 양성과 공무원, 문화재 관련 종사자 및 일반인들에게 문화유산 관련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충남 부여의 한국전통문화대학교내에 있는 우리 전통문화연수원의 본관은 지상 3층, 연면적 4,035㎡ 규모로 대강당, 강의실, 기숙사 등의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연면적 3,905㎡ 3층 규모의 전통기능교육센터가 2011년 12월 완공되어 문화재수리·복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공방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연수원은 문화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문화재수리종사자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단기과정과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양성을 위한 6개월 ~ 2년의 장기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단기과정의 운영을 위한 강사진으로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전임교원과 문화재분야의 대학교수,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해당분야 최고의 실기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교육·훈련 실적을 소개합니다.

우리 연수원의 그간의 장기과정 교육 수료생은 2011년도 29명을 포함하여 연인원 8962명에 달하였고 해당분야의 기능을 마스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과정의 문화재수리·복원전문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의 작품전시회를 세 차례 개최하였고, 매년 작품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연수원은 그간 설립목적인 문화재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인 양성에 노력하며 국내유일의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2012년도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문화재 수리기능자 양성을 위해 전통칠기 등 4개 과정을 추가로 개설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6개월~1년 과정으로 기존의 2년 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2011년 전문기관 연구용역 실시)를 통한 단점들을 보완하여 마련한 과정으로서 주 2일간의 집중교육을 실시, 해당 분야의 기능을 완전히 습득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건립한 전통기능교육센터(전문공방)에서 운영할 이 과정을 위해 실습장, 기숙사, 강의실 등의 시설과 충분한 기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강사진 또한 해당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과정의 확대를 통한 여러 분야의 문화재수리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의 능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우리 연수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현황을 소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과정 교육개요

1. 교육과정 운영

가.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

- 교육목표 : 수리기능자 자격증 취득 및 수리현장에 투입할 인력의 기초 역량 함양
- 교육내용 : 문화재수리기능인 과정별 특성에 맞는 전통수리기법을 체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실습위주의 교육

나. 교육과목 및 기간

- 칠 공 : 2012. 3. 12. ~ 2012. 9. 7. (26주/ 6개월) * 주12시간(2일/ 수, 목)
- 소 목 : 2012. 3. 12. ~ 2013. 2. 28. (52주/ 1년) * 주12시간(2일/ 월, 화)
- 화 공 : 2012. 3. 12. ~ 2013. 2. 28. (52주/ 1년) * 주12시간(2일/ 월, 화)
- 표 구 : 2012. 3. 12. ~ 2013. 2. 28. (52주/ 1년) * 주12시간(2일/ 수, 목)

다. 교육대상 및 교육비

- 관련분야의 전공자, 종사자 또는 일반인

과 정 명	전통목칠공예	한옥고건축	계
정원(명)	10	10(과목별)	40
교 육 비 (만원)	60 (매월 10만원) (수강료6만원, 기숙사비4만원)	120 (매월 10만원) (수강료6만원, 기숙사비4만원)	120

※ 교육 재료 무상제공/ 단, 교육재료로 제작된 작품은 연수원에 귀속

라. 강사진 구성 및 경력사항

구분	인원(명)	강사명	학력 및 주요경력	비고
칠공	1명	이광웅	연수원 전임교수(나전장 이수자)	
소목	1명	소병진	대한민국 명장	
화공	2명	최문정	중요무형문화재 단청장 전수조교	
		김 민	일본동경시립대학교 미술연구과 석·박사	
표구	1명	홍종진	배첩장(충북도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	

※ 교육 관련 분야 최고 권위자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특강, 특별실습지도 실시

마. 교육장소

- 칠공, 소목 : 공방 1층(목공실, 소목실, 칠공실)
- 화공, 표구공 : 공방 2층(회화실, 보존실)

바. 교육방법

- 1년 과정은 수준별 단계적 운영 : 1단계(6개월) - 기초반, 2단계(6개월) : 숙련반

- 주 12시간 강의 실기중심 집중적 교육 실시
- 교양·특수 분야 강의시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명예교수,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문화재위원 등) 초청 특강
- 개인별 수준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진행

2. 교육생 응시자격 및 선발방법

가. 응시자격

- ① 현재 문화재수리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자(자격증 소지자 포함)
- ② 향후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취득하여 현업에 종사하려는 자
 - * 위 응시자격 중 1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
 - * 관련 분야인 칠공과 소목, 화공과 표구 중복응시 가능

나. 1차 전형 : 서류전형

- 전형방법
 - ① 적격 및 기준 평정표에 의한 평점 부여 방식으로 심사
 - * 부적격자 및 채점성적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자는 불합격 처리
 - ② 모집 인원의 2배 내외를 1차 전형 합격자로 선발
 - * 채점기준 : 이력사항(60%), 자기소개서(40%)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련분야 증명서(해당자)

다. 2차 전형 : 면접전형

- 전형방법
 - ①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 ② 면접채점표에 의한 평점 부여 방식으로 심사(해당분야 적성 및 전문성 평가)
 - * 채점성적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자는 불합격 처리

라. 전형위원 구성 및 운영

- 구 성 : 5명 내외(미술, 공예 관련전공자)
 - 전통문화연수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외부 전문가 등 위촉
- 1차(서류)·2차(면접)전형 심사 및 교육생 선발

3. 모집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및 방 법	비 고
응시원서 접수	2012. 2.13(월)~2.24(금)[12일간]	우편 및 직접접수	
1차(서류) 전형	2012. 2.27(월)		
1차 합격자 발표	2012. 2.29(수)	전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2차(면접) 전형	2012. 3. 5(월)	전통문화연수원	
2차 합격자 발표	2012. 3. 8(목)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2012년도 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과정 현황

구 분	과 정 명	교 육 대 상	교육 기간	교육 횟수	기당 인원	교육 인원	비고
총 계 (32개 과정)				62		2,920	
문화재수리· 전문인복원양성	소계(10개 과정)			10		260	
	문화재수리기능자양성과정(전통 칠기)	전공자 등	6개월	1	10	10	
	문화재수리기능자양성과정(전통 소목)	전공자 등	1년	1	10	10	
	문화재수리기능자양성과정(전통 화공)	전공자 등	1년	1	10	10	
	문화재수리기능자양성과정(전통 표구)	전공자 등	1년	1	10	10	
	문화재수리기술교육 I, II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5일	2	50	100	
	문화재수리종사자교육 I, II	수리업종사자, 수리기술자 등	5일	2	50	100	
	전통회화 문화재수리복원 과정	전공자 등	2년	1	10	10	
	전통목칠·공예 문화재수리복원 과정	전공자 등	2년	1	10	10	
직무	소계(8개 과정)			8		620	
	문화재관리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5일	1	60	60	
	역사속에서 배우는 리더십 I, II, III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3일	3	100	300	
	자연유산 담당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5일	1	100	100	
	근대문화유산 담당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3일	1	50	50	
	국토개발과 매장문화재 보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5일	1	50	50	
	전통문화의 새로운 이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5일	1	60	60	
전문	소계(7개 과정)			7		360	
	문화재와 학교교육(일반) I, II	초·중등 교원	4일	2	40	80	
	문화재와 학교교육(전문) I, II	중등 교원	4일	2	40	80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활용	관련 종사자 등	3일	1	100	100	
	보존과학 기초이해	보존처리 담당자 등	5일	1	50	50	
	문화재 현장관리	관련 업무 종사자 등	3일	1	50	50	
국제	소계(1개 과정)			1		20	
	국제문화유산 전문가	아시아지역 문화유산 담당자	1주	1	20	20	
사회	소계(3개 과정)			3		140	
	문화유산아카데미	지역사회 지도자	12주	1	40	40	
	불교문화유산 관리자	불교문화유산 관리자	3일	1	30	30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다문화가족	1일	1	70	70	
사이버	소계(3개 과정)			33		1,540	
	문화재행정 실무입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1개월	11	60	660	직무
	전통 건축의 이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1개월	11	40	440	전문
	불교 미술의 이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1개월	11	40	440	전문

※ 교육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협회 소개

〈협회 개요〉

■ 일반현황

- 대 표 자 이재순(중요무형문화재 제120호 석장 보유자)
- 설립일자 1988년 8월 18일
- 설립목적 문화재 보전수리기능의 전승개발
문화재 애호사상 앙양
회원 자질향상과 상호간 친목도모
- 주요사업 학술교양지 문화재기능의 맥 발간
국내외 문화재 탐방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
문화재 보전수리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정책건의 등
- 소 재 지 (110-801) 서울 종로구 계동 102-1 연화빌딩 3층
(전화) 02-3672-8803-4
(팩스) 02-3672-8805
(홈페이지) www.kcca88.or.kr
(이메일) kcca88@hanmail.net

■ 회원현황

- 회 원 6,196명
- 직 종 22개 직종
한식목공(한식목공 359/ 대목 692/ 소목 89), 한식석공(한식석공 226/
가공석공 351/ 쌓기석공 357), 화공 674, 드잡이공 401, 번와와공 530,
제작와공 7, 한식미장공 384, 철물공 22, 조각(조각 16/ 목조각 186/
석조각 85), 칠공 293, 도금공 126, 표구공 93, 조경공 414, 세척공 62,
보존처리공 397, 훈증공 49, 식물보호공 147, 실측설계사보 202,
박제및표본제작공 34

■ 회원가입

- 가입자격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에 합격한 기능인
- 가입조건 입회원서와 입회비를 제출한 자(연회비 12만원, 회원증 1만원)
- 입금구좌 기업은행 024-036907-04-017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연혁 및 주요사업〉

■ 역대 회장

- 초 대~제2대 (1988. 11. 4~) 장영근
- 제3대~제5대 (1992. 8. 26~) 전홍수
- 제6대~제7대 (1999. 1. 15~) 신응수
- 제8대~제9대 (2004. 1. 14~) 최기영
- 제10대 (2010. 2. 4~) 이재순

■ 협회지 발간

- 회지 「옛살림」 제1호~제28호 격월간 발간('92. 12. 1~ '97. 6. 30)
- 학술교양지 「문화재기능의 맥」 매년 발간 ('02년부터~)

■ 기능인 작품전

- 제1회 문화재기능인작품전('93. 5. 12~5. 18 종로 공평아트센터)
- 제2회 문화재기능인 및 불교미술인작품전('94. 5. 10~5. 24 종로 공평아트센터)
- 제3회 문화재기능인작품전('96. 10. 8~10. 27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
- 제4회 문화재기능인작품전('98. 10. 24~11. 30 예산 한국고건축박물관)
- 제5회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00. 10. 23~11. 2 서울역문화관 전시실)
- 제6회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02. 10. 2~10. 20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
- 제7회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04. 10. 14~10. 31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
- 내나라여행박람회 우수작가 작품전시('05. 9. 1~9. 4 코엑스 태평양홀)
- 제8회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05. 9. 24~10. 12 덕수궁 석조전)
- 내나라여행박람회 우수작가 작품전시('06. 8. 31~9. 3 코엑스 태평양홀)
- 제9회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08. 10. 17~10. 31 덕수궁 석조전)
- 제10회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10. 10. 7~10. 18 경복궁 흥례문 회랑)

■ 문화재 탐방

- 제1회 일본('01), 제2회 중국 서안, 북경('02), 제3회 전라 충청지역('03), 제4회 중국 곤명, 여강, 대리('05), 제5회 제주도('06), 제6회 태국 방콕, 아유타야('07), 제7회 경주 강릉, 속초('08), 제8회 전라지역('10), 제9회 중국 상해, 오진, 항주, 소주('11)

■ 문화재기능인 교육

- 매년 직종별로 교육실시중

■ 인명록 발간 및 산학협력

- 한국문화재기능인 인명록(I) 발간('03. 1. 15)
- 한국전통문화학교와 산학협력 협약체결('04. 12. 21)

■ 정부포상

-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보존관리부문 대통령상 수상('08. 12. 8)

■ 명칭변경

- 사단법인 「한국문화재보전수리기능인협회」로 발족('88. 8. 18)
- 사단법인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로 변경('00. 3. 28)

〈임원진 명단〉

직 위	성 명	직 종	휴대폰/전화	우편번호	주 소
회 장	이 재 순	석 공 631	011-351-5443	471-050	경기 구리시 사노동 434 석조원
			031-563-5443		
명예회장	장 영 근	목 공 205	011-216-7003	120-070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100 독립문삼호A 104-108
			02-363-5870		
명예회장	전 홍 수	목 공 608	010-6488-2788	340-922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동리 152-18 한국고건축박물관
			041-337-5877		
명예회장	신 응 수	목 공 152	011-257-9007	110-034	서울 종로구 창성동 35 한국전통건축
			02-3210-1311		
상임고문	최 기 영	목 공 407	011-279-0225	472-862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695-1 전수교육관
			031-572-9688		
원로위원	허 균	목 공 1643	011-811-2892	780-250	경북 경주시 충효동 581-1
			054-771-2892		
원로위원	이 의 상	석 공 611	011-227-0960	440-719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 백설마을 성지A, 546-502
			031-269-0657		
원로위원	정 문 길	와 공 670	011-540-3059	780-804	경북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487-1 노당기와
			054-763-3059		
원로위원	김 은 동	와 공 1844	011-509-0108	717-842	경북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350 (주)고령기와
			054-954-8000		
원로위원	이 근 복	와 공 815	011-287-4453	136-044	서울 성북구 삼선동4가 344-1 선우빌딩2층 와수종합개발
			02-924-6888		
수석부회장	윤 창 병	목 공 1376	011-609-2576	502-813	광주 서구 농성2동 667-26
			062-364-9495		
부 회 장 (내무)	김 범 식	목 공 383	010-5058-2500	706-903	대구 수성 범어1동 614-100 청 구푸른마을A 103-1902
			053-746-1127		
부 회 장 (교육)	홍 완 표	목 공 386	011-269-0898	232-940	강원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280-1 성주목재고건축
			033-335-0458		
부 회 장 (기획)	김 한 열	석 공 995	011-501-5968	717-872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7 보광석재
			054-955-8888		
부 회 장 (문화)	허 길 량	조 각 615	010-5259-8523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74-8 대불광전시관
			02-738-1117		
부 회 장 (외무)	윤 만 곁	석 공 875	011-523-6254	780-220	경북 경주시 남산동 1156-246
			054-742-6254		

<임원진 명단>

직 위	성 명	직 종	휴대폰/전화	우편번호	주 소
부 회 장 (재정)	박 해 수	목 공 2018	011-462-8450	363-831	충북 청원군 문의면 남계리 8-27 한도고건축(주), 한도목재소
			043-296-9700		
부 회 장 (홍보)	임 동 조	석 공 1396	011-287-1549	131-804	서울 중랑구 망우본동 358-7 현암빌딩 2층 미성석재
			02-432-0243		
충북지회장	이 연 훈	목 공 1195	011-463-4925	369-920	충북 청원군 북이면 영하리 1구 452-1
			043-213-4925		
상임이사 (총무)	박 갑 용	도 금 2781	011-216-4848	477-816	경기 가평군 청평면 솔틀로 54-107 준제불교미술원
			031-584-3952		
재정이사 (재무)	박 병 두	와 공 1957	010-5459-4005	363-813	충북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 762-5 대신기와
			043-297-4004		
내무이사	김 식 경	석 공 677	011-221-0317	480-811	경기 의정부시 가능3동 596-56 보광명석재
			02-358-0810		
교육이사	김 종 양	목 공 1246	011-725-4872	472-862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695-1 전수교육관
			032-681-3291		
기획이사	김 주 성	화 공 474	011-224-6179	133-821	서울 성동 성수1가1동 656-234 대림A 105-1004
			02-465-6179		
문화이사	이 연 욱	화 공 1088	011-733-2985	441-732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893 성원A 107-404
			031-295-2985		
외무이사	황 영 식	소 목 3410	011-747-5721	472-861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진별리 184-17 동부건구
			031-571-5997		
홍보이사	김 대 건	목 공 624	011-222-5125	456-705	경기 안성시 당왕동 534 대우A 104-702
			031-671-5125		
감 사	이 조 형	석조각 1975	011-251-2200	412-480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71-9 동강석재
			031-964-3388		
감 사	박 인 주	소 목 1786	011-252-4576	142-816	서울 강북구 송천동 703-73 동신공예
			02-980-8119		
총무이사 (부)	한 진 석	대 목 2478	011-355-5456	442-783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대한대우A 118-504
			031-224-8110		
내무이사 (부)	이 상 문	목 공 1901	010-8897-0125	142-778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 1353 SK@ 122-1304
			02-983-0195		
교육이사 (부)	정 재 언	석 공 2575	011-211-5190	446-572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495 삼성래미안 2차A, 215-1301
			031-287-6229		

〈임원진 명단〉

직 위	성 명	직 종	휴대폰/전화	우편번호	주 소
기획이사 (부)	안 강 수	목조각 1360	011-852-6035	607-780	부산 동래구 온천3동 삼정그린코아A 103-1107
			051-502-5712		
문화이사 (부)	김 동 철	석조각 1417	010-5406-4031	472-905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14 석주조각원
			031-577-4036		
외무이사 (부)	김 진 욱	미 장 2131	010-9900-1950	435-060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 181-2
			031-501-1577		
재정이사 (부)	권 재 도	석 공 2859	011-325-1189	465-210	경기 하남시 초일동 66
			031-793-1586		
홍보이사 (부)	선 동 철	소 목 1789	011-658-7724	576-801	전북 김제시 검산동 1030-2 시영A, 나-212
			063-543-5486		
이 사	심 용 식	목 공 1198	010-5257-7152	110-800	서울 종로구 계동 79-12 청원산방
			02-715-3342		
이 사	송 근 영	조 각 724	016-255-6273	482-845	경기 양주군 광적면 비암리 589-8
			031-871-9545		
이 사	남궁치연	드잡이 714	011-252-1941	137-817	서울 서초구 방배2동 434-3 정림A 503호
			02-586-1941		
이 사	주 영 재	드잡이 1702	011-508-3319	702-734	대구 북구 동변동 697 U대회선수촌1단지 102-202
			053-945-0121		
이 사	홍 경 선	목 공 975	010-5405-6414	305-772	대전 유성구 지족동 978 반석마을 207-1102
			042-476-3388		
이 사	이 중 한	소 목 3409	010-3526-3615	701-320	대구 동구 괴전동 197
			053-961-0800		
이 사	안 병 욱	석 공 1081	010-3773-1940	131-770	서울 중랑구 신내1동 795 새한A 101-104
			02-3423-1947		
이 사	이 재 휴	석 공 1605	010-3733-2050	456-894	경기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17-1
			031-676-3005		
이 사	박 수 한	목 공 1650	011-896-5498	472-060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44-10 경기목재
			032-667-5498		
이 사	김 성 규	화 공 1696	011-481-6000	305-801	대전 유성구 구암동 621-15
			042-823-0404		
이 사	김 영 성	목 공 765	010-3615-6789	500-845	광주 북구 용봉동 999 쌍용예가 109-1803
			062-572-6780		

〈임원진 명단〉

직 위	성 명	직 중	휴대폰/전화	우편번호	주 소
이 사	이 광 복	목 공 2236	011-9603-5560	462-827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37 수산리치빌A, 102-1301
			031-623-5560		
이 사	소 병 진	소 목 1917	010-7777-9632	561-842	전주 덕진구 팔복동 2가 121-7 공재소목공예연구실
			063-211-0008		
이 사	임 한 빈	석 공 1395	010-7123-3231	456-912	경기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714-1 동 창석재
			02-723-7026		
이 사	유 재 택	미 장 2361	010-5189-0581	136-043	서울 성북구 삼성동3가 90-20
			02-765-2525		
이 사	오 세 중	도 금 1363	011-350-8788	472-761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33-1 삼신A 101-1001
			031-572-1390		
이 사	홍 성 표	드잡이 451	011-474-4099	361-806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119-59
			043-253-4227		
이 사	전 연 호	화 공 524	011-498-0888	700-430	대구 중구 대봉동 60-10 센트로팰리스 101-804
			053-952-4241		
이 사	백 남 정	석 공 1676	010-3794-3227	487-836	경기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461-1 미 술석재조각원
			02-931-0275		
이 사	장 홍 대	화 공 3477	017-433-5988	361-2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호반베르디움 209-502
			017-433-5988		
이 사	안 배 근	석 공 1678	011-423-8865	361-201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02 주공A, 215-903
			043-284-5988		
이 사	강 기 중	와 공 497	010-5243-8515	136-082	서울 성북구 보문동2가 75-3
			02-928-8515		
이 사	정 재 원	대 목 2490	011-730-4936	413-811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4리 688번지
			02-999-4936		
이 사	정 상 인	와 공 4254	011-457-8686	300-220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529번지
			042-273-8989		
이 사	김 쌍 동	목조각 1728	011-9947-1884	476-921	경기 양평군 강하면 항금리 192
			031-774-4955		
이 사	박 주 향	대 목 3046	010-5365-9853	210-920	강릉시 교2동 18-16 대림A 411호
			033-653-9853		
이 사	방 대 식	화 공 3792	010-7482-2247	380-967	충북 충주시 호암동 221-23 호암리 버빌A, 105-1406
			043-857-2247		

2011년도 협회 주요행사 및 회원동정

<협회 운영관련 회의>

- 1. 10 업무계획 수립
- 1. 25 2010년도 업무 및 회계감사
- 2. 15 제23차 정기총회(한국의 집)
- 4. 14 원로위원 자문요청 회장단회의
- 4. 14 제1회 정기이사회
- 6. 30 제2회 정기이사회
- 7. 18 운영위원회의
- 7. 24 회장단회의
- 9. 22 제3회 정기이사회

<계동포럼>

- 4. 14 제1회 계동포럼(발제 문화재위원 이상필)
- 6. 30 제2회 계동포럼(발제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장 박왕희)
- 9. 22 제3회 계동포럼(발제 연합뉴스 문화부 김태식 기자)

<교육>

- 2. 25 미장모임 교육 및 총회
- 11. 1 직종별 문화재기능교육(한식목공)
- 12. 13 제13회 문화재기능교육(국립민속박물관 강당)

<문화재기능의 맥 발간>

- 1. 28 문화재기능의 맥 제10호 출판위원회의
- 2. 15 문화재기능의 맥 제10호 발간
- 7. 24 문화재기능의 맥 제11호 편집위원회의

<특별사업>

- 5. 24~28 문화재청50주년 기념 “문화재기능명장특별전”(정부대전청사)
- 4. 13 협회 홈페이지 개편

〈문화재탐방〉

11. 4~7 2011년도 문화재탐방(중국 상해, 오진, 항주, 소주, 주장)

〈지회 및 분과모임 등〉

- 1. 11 충북지회 정기총회
- 1. 12 번외와공회 모임
- 1. 17 경기남부지회 신년모임
- 2. 14 와공모임 회의
- 2. 16 와공분과 결성
- 3. 29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협회 창립총회(이사장 최기영)
- 9. 22 드잡이 간담회
- 12. 17 대한민국전통문화재조각회 총회

〈품셈, 건설업임금실태조사 등〉

- 1. 12 품셈관련회의
- 3. 20 품셈관련,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회동
- 4. 21 품셈관련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회동
- 4. 25 최문순의원 발의 문화재수리법 개정관련 국회의원회의 참석
- 7. 2 품셈관련 화공 모임
- 8. 29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중간보고회 참석
- 9. 21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간담회 참석
- 10. 14 문화재수리 품질향상 워크숍 참석
- 10. 25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결과보고회 참석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

- 8. 8~12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 원서접수
- 10. 9~17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
- 11. 9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 합격자 발표

〈수상 및 명장선정 등〉

- 4. 20 손준호(목조각 5408호) 전국최우수장애인상 수상
- 4. 27 안강수(목조각 1360호) 경상남도 문화재전문위원 위촉
- 9. 2 김진옥(미장 2131호) 대한민국 명장 '미장' 선정
남진세(석공 2853호) 대한민국 명장 '석공' 선정
김용관(칠공 2750호) 대한민국 명장 '패세공' 선정
정정교(석공 2274호)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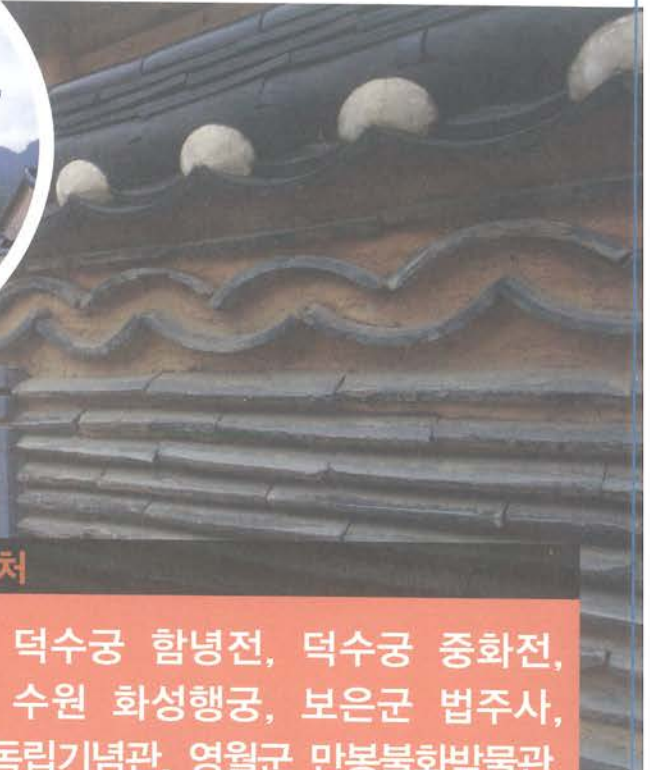
〈공개행사 및 작품발표 등〉

3. 8 남진세(석공 2853호) 돌조각전(대구문화예술회관)
4. 29 정상인(변와와공 4254호) 대청기와 확장이전
5. 4 제2회 아사달 조각전
5. 4 조은섭(가공석공 4115호) 석조각전
5. 16 신응수(한식목공 608호) 국회 한옥 준공식
5. 28 중요무형문화재 변와장 이근복 공개행사
5. 30 중요무형문화재 대목장 신응수 공개행사
6. 12 아사달 아사녀 추모제
6. 22~28 전통공예4인전
7. 1 한독불교미술순회전
7. 6~18 2011여름 천공을 만나다
- 8.12~10.10 김범식(목공 383호) 경주엑스포 “우리전통건축의얼 백미를 찾아서”전
윤만걸(석공 875호)경주엑스포 “포석정 유상곡수 체험장” 설치
8. 24~30 김익홍(고. 화공 531호) 식솔전, 경인미술관
8. 31~9. 5 한민정(화공 2909) 개인전, 갤러리메르
9. 7~19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작품전 “예술 魂과 脈” 만나다”-
9. 21 중요무형문화재 석장 이의상 공개행사
9. 23 임한빈(석공 1395호) 동창석재 전시장 오픈
10. 4 2011대한민국기능전승자 작품전
10. 4 제36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10. 5 2011 서울무형문화재전
10. 13~15 제2회 나전칠기기능대회
10. 20 제15회 대한민국명장작품전
10. 25 한국나전칠공예대전
10. 25 제12회 대한민국전통문화재조각회전
10. 26 “깨달음.미소...”전
10. 28 박찬수(조각 772호)전수관 개관식
11. 2~8 안강수(목조각 1360호) 개인전
11. 5~6 심용식(대목 1198호)-북촌공방축제(회장) 개최
- 11.25~30 제12회 한국석조각예술인협회전
- 11.29~12.15 제26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12. 12 홍완표(목공 386호) 전승발표회 학술세미나

“기와 한 장 한 장에 장인정신을 담아



세계속의 (주)대동요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515-81-02169

대표이사명 : 박진철

대 동 요 업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사업장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주요납품처

청와대, 덕수궁 함녕전, 덕수궁 중화전,
창덕궁, 수원 화성행궁, 보은군 법주사,
천안시 독립기념관, 영월군 만봉불화박물관,
부여군 롯데 리조트, 증평군 증평박물관,
경주시 국립박물관 등 다수

大桐 (株) 大桐窯業

대표이사 박진철

주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943-1

TEL : 054-371-2345

FAX : 054-372-0456



팜클 문화재보존연구소

팜클 문화재보존연구소는 1997년 문화재 대상 훈증처리를 시작으로 다양한 재질의 문화재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의 생명연장을 위해 완벽한 보존처리를 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 및 시설, 기술력을 갖추고 과학적인 보존처리를 실시하여 우리 문화재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팜클 문화재보존연구소의 주요 연구, 보존업무 ●

보존처리

금속, 석조, 지류, 복식, 벽화

유해생물방제

흰개미, IPM, 훈증소독

유구보존

이전, 복원, 토층전사

복제 및 모형제작

유물 및 유구

pharm(cle) (주)팜클 문화재보존연구소
Conservation Science For Cultural Heritage

본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02-4번지 Tel. 031-494-7303, 8208 / Fax. 031-493-9303

서울사무소: 서울 강남구 개포2동 163-5 팜클빌딩 Tel. 02-470-3826 / Fax. 02-470-3824

홈페이지: www.pharmcle.com 대표: 전찬민



성 동 중 합 목 재



송정 한 진 석

문화재수리기능 대목 2478호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이사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475-1번지

TEL: 033)372-2586

FAX: 033)372-2587

H.P : 011-355-5456

E-mail : kjs779@yahoo.co.kr

발행인 이재순
발행일 2012년 2월 2일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110-801) 서울시 종로구 계동 102-1 연화빌딩 3층
P 02,3672,8803-4
F 02,3672,8805
E kcca88@hanmail.net
H www.kcca88.or.kr

편집위원장 윤창병
홍 보 임동조 김대건 선동철
운 영 박갑용 김진섭
자 문 송근영 홍성표 김진욱 김동철 한진석
행 정 유명숙
디자인·제작 (주)터치커뮤니케이션즈
P 02,517,8772

